



조선문학



1

주제 97(200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7(2008)년 제1호

(루계 제 723 호)

차 례

| | |
|--|----|
| 축원의 이 아침 | 4 |
| 위대한 영생 | 5 |
|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노래 | 6 |
| 공화국창건 60 돛을 맞는 올해에 선군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나가자..... | 7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9 |
| 불사약이야기..... | 10 |
| 장군님의 웃음속에 | 12 |
| 시작품집에 깃든 은정 | 13 |
| 혁명소설창작의 새 력사와 함께 성장한 세계적인 작가(3)..... | 14 |
| 추운 날 더운 날 | 16 |
| 우물가에서 | 17 |
| 위대한 《이민위천》리념의 승리사에 대한 불멸의 화폭 | 18 |
| 주체문학의 대강 | 22 |
| 새해결의묵음..... | 23 |
| 수령형상문학창조에 정열과 지혜를 다 바치겠다 | 23 |

| | |
|------------------------------|----|
| 시대의 거울로 | 24 |
| 젊어지자, 나의 시여 | 24 |
| 작품창작을 선도할수 있는 우수한 평론을! | 25 |
|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외 1 편)..... | 25 |
| 장군님의 선군동지가..... | 25 |
| 팽이채소리 | 26 |
| 약초 | 27 |
| 고향길 | 34 |
| 고향길로 들어서며 | 34 |
| 고향의 박우물 | 34 |
| 장령과 백양나무 | 35 |
| 뒤동산에서 | 35 |
| 상봉의 기쁨속에 나눈 말..... | 36 |
| 추석날의 비분 | 36 |
| 첫닭이 우는 소리..... | 37 |
| 고향에서 다시 초소로..... | 37 |
| 보금자리 | 38 |
| 탄부의 말..... | 49 |
| 청춘의 심장은 거울을 몰라 | 50 |
| 축하시를 받은 물리학자 | 50 |
| 향토애의 정서가 짙게 풍기는 특색있는 형상..... | 51 |
| 네크라소브,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츠..... | 52 |
| 전류가 흐른다..... | 53 |
| 조선속담 | 53 |
| 유모아..... | 53 |
| 한삼 더 담아주오..... | 54 |

| | |
|-----------------------------------|----|
| 《로저 액클로이드의 살인사건》 | 54 |
| 전우의 고향 | 55 |
| 7 천만이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 | 66 |
| 최자가 격찬한 시의 모범 | 69 |
| 나는 시가의 붓을 놓을수 없다 (외 1 편) | 70 |
| 불같이 달아오른 이 마음은... .. | 70 |
| 나의 복무메달 | 71 |
| 혁명적신념과 인생관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 | 72 |
| 돈황석굴의 비밀 | 75 |
| 리유원의 《해동악부》에 대하여 | 76 |
| 방이와 그 동생 | 78 |
| 《동반자》 작가 심훈과 그의 시세계 | 79 |

축원의 이 아침

한광춘

이른새벽 천만마음의 창문들이
아버이장군님께로 삼가 열리는데
그이는 벌써
새해의 첫길을 떠나시였구나
아 우리 장군님

소중히 간직한 희망
다 이루고 행복하라고
삶은 더 벅차고 아름다워
일터와 가정들에 기쁜 일만 있으라고
축복의 인사 보내시며
새해의 진군길을 먼저 열어가시누나

아뢰이고싶어라 이날 이 아침엔
우리 정녕 새해에 꼭 이루고싶은 그 소원
아버이 우리 장군님
한해 또 한해 뒤로 미루시며
끝내는 들어주지 못하시는 그 소망 아뢰고싶어라

《고난의 행군》이 끝난지도 이제는 그 몇몇해
허나 강행군의 신들메를 풀지 못하신채
행군에서 또 행군을 이어가시는 장군님
부디 하루라도 편히 쉬시었으면
찬바람 눈보라속을 걷지 마시었으면

수령님께서도 우리 수령님께서도
나라를 찾은 다음 쉬시겠다 하시더니
전쟁을 이기고서 쉬시겠다 하시더니
한평생 어느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인민의 마음속에
소원으로만 남겨주신 절절한 이 념원
그래서 가슴가슴에

더더욱 사무쳐지는 소망인줄
송이송이 흰눈송이 너도 알아 고이 내리는가
우리 장군님 폭우와 불별을 뚫고 가신
《삼복철강행군》길의 그 자욱자욱우에

내리는 흰눈은
이미 가는해를 바래왔건만
우리 어찌 잊으랴 잊을수가 있으랴
야전차안에서 드시던 쥬기밥마저 번지시며
우리 장군님 하루에 2천리길을 헤쳐가신
자강땅의 그날을 그날의 로고를

인민을 위해 천만고생도 달게 여기시며
그 길에서 더없는 삶의 기쁨을 찾으시는분
한생의 날과 날을 강행군으로 이으시는
장군님이시여
단 한분 우리의 아버지이시여

우리 심장에 불타는 소원중의 소원
우리 바라는 행복중의 행복도
장군님의 건강이고
이 나라 천만가정의 기쁨도
해돋이 찬란한 강성대국의 아침도
장군님의 안녕속에 있나니

아 우리의 운명이신분
태양이신분
우리의 조국이요 미래이신분
아버이장군님
무궁세월 부디 건강하시라
안녕하시라

위대한 영생

류동호

아침에도 우리앞에
저녁에도 우리앞에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영상
자애로운 그 미소는
해빛이시다 축복이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버이수령님
희망넘친 출근길의 거리에서
위훈과 창조의 일터에서
새날을 펼쳐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꽃피워주신다

수령님 위대한 심장에서 받아안은
우리 삶의 호흡은 커지고
그 뜻과 유훈을 따르고 받드는
삶의 희열은 이 땅 이 하늘에 넘친다
태양은 한순간도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 심장에 솟은 해님은 지지 않는다

조국땅 끝에서 끝까지
인민의 정깊은 어머니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어
한평생 병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는 수령님
오늘도 인민행 그 길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속이야기도 다 들어주시며 의논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고무도 해주시며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가리켜주신다
더 큰 승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어버이수령님의 체온과 사랑은
숨결처럼 혈맥처럼 인민의 심장속에 흐른다

빨찌산 김대장과 붉은기력사는
백두산장군의 전선길에 굽이친다
인민이 사는 이 세상 끝까지
자주시대의 해빛은 찬란하다

영원한 태양의 집 금수산기념궁전
수령님 집무실에는 예전처럼 변함없이
당과 군대와 국가의 선군일과가 흐르고
선군조국의 하루사업이 총화된다
위대한 생애는
위대한 집무로 계속된다

영생
그것은 다만 못 잊을 회고와 추억
그리움의 세계만이 아니다
우리 수령님의 영생은
이 땅에 메아리치는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
위대한 심장의 박동으로 굽이치는 일심단결의
대하
선군조국의 위력 떨치며 전진하는 사회주의조선

오늘도 래일도
수령님은 장군님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끄시며
선군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부르시며
선군혁명의 길에 계신다
강성대국조선을 건설하고 계신다
우리 수령님의 영생은
인민의 어버이의 영원한 복무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헌신
주체의 태양의 불멸의 활동이시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노래

박천걸

가는 해와 더불어

더더욱 간절해진 다함없는 축원속에

희망찬 래일을 기약하며 밝아온

새해의 이 아침

푸르른 우리의 하늘은 더 높이 열리고

우리 삶의 정든 터전엔

새로운 신심과 열정에 넘치는

새해라도 참으로 가슴 벅찬 이해

바라보면

얼마나 격동적인 사변들을 아로새기며

이 땅에 명절같은 한해가 또 흘러갈것인가

이 날과 날에 우리 받아안을

기쁨과 행복의 환희

우리 조국의 모습은 또 얼마나 긍지로울것인가

그 모든 행복과 긍지를 인민에게 주시려

아버이장군님

또다시 새해의 초행길을 남먼저 가시니

정녕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아들로

자신의 천만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는 장군님

지나온 한해의 날과 날에도

이 땅 한끝까지 쉬임없이 걷고 걸으신

헌신장정의 천만리가 눈물겹게 안겨오거니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신 길

강성대국의 희망찬 앞날을 열어오신 길

그 길에서 력사가 알지 못하는

《삼복철강행군》이란 말

선군혁명실록의 갈피에 새롭게 새겨지고

6.15의 기치를 더 높이 날리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더 굳게 다져주시며

평양의 하늘아래 북남수뇌상봉을 펼쳐

그 옛날 피눈물 아리랑민족의 가슴에

통일아리랑의 밝은 노래로

희망찬 미래를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

새해의 날과 날에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존엄

민족의 영광을 더 높이 떨쳐가시며

우리 장군님 이어가실 그 길은 또 얼마이라

생각할수록 고마움에 목메이고

자옥자옥 뜨거움에 젖어드는

만고절세의 애국자의 거룩한 자옥이어

그 자옥 또다시 따르며

열화같은 승배와 그리움의 노래로 하늘땅 울리며

공동사설의 구절구절 심장에 안고

최후승리의 그날로 질풍처 갈 이해

틀어진 총검마다 결사옹위의 신념이 나래친다

수많은 정춘실영웅들 조국땅 아름답게 가꿔가고

우리의 자랑찬 공화국기발은

이국의 하늘가에 더 찬란히 빛나리니

아 민족의 긍지가 가슴가득 차넘치는

복받은 새해의 이 아침

다시 또다시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노라

선군조선의 영원한 태양

천만자식들의 아버지 우리 장군님이시여

부디 안녕하시라!

해와 달이 다하도록 부디 건강하시라!

공화국창건 60돛을 맞는 올해에 선군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나가자

최길상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온 이 강산에 희망찬 새해가 왔다.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주체혁명의 새 시대를 더욱 빛내일 만만한 투지와 락관에 넘쳐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건인 불발의 의지로 모든 난관을 뚫고 과감히 전진하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발걸음을 같이하며 시대의 기치가 되고 위훈의선도자가 될 혁명적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킬 불타는 각오와 결의에 넘쳐있다.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0돛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하시여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신것은 우리 민족의 치욕스러운 망국사에 종지부를 찍고 참다운 인민의 나라, 주체조선의 탄생을 안아온 력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민족의 해방의 은인이시며 건국의 어버이이다.

우리 전체 작가들은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김일성조선으로 끝없이 빛내어나가는데 문학작품창작으로 적극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여주신것은 우리 작가들의 운명개척에서와 참다운 민족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었다.

우리 작가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의 존엄과 긍지를 안고 자기 운명과 창작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보람찬 작가적삶을 빛내일수 있게 되었으며 류례없이 간고했던 우리 혁명의 매 단계마다 혁명적인 문학작품창작으로 당과 수령의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버이수령님

의 숭고한 뜻을 받드시고 우리 작가들을 당의 영원한 동행자, 선군혁명동지로 여기시고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사랑으로 작가들의 창작을 이끌어주시고 창작조건을 마련해주시였으며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우리 당의 선군위업을 문학으로 힘있게 받들어나갈수 있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작가들은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시대적사명을 다하고있으며 주체문학의 위력을 과시하며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전례없는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창건 60돛을 맞는 올해를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운동은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조직화하고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시켜 문학사업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게 하는 혁명적인 사업이다.》

우리 문학의 발전력사를 보면 중요한 정치적사변들을 계기로 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으며 주체문학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이 마련되였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작가들이 자기의 뚜렷한 개성과 특기를 다 발휘하여 빛나는 자욱을 새긴 작품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국문학축전을 통하여 창작되였다고 볼수 있다. 중요정치적사변들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문학축전이야말로 우리 문학의 형상수준을 한계단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고 말할수 있다.

올해문학작품창작에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목표는 공화국창건 60돛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전국문학축전에 새롭고 특색있는 작품을 내놓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올해문학운동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

작가마다 서로 다른 창작적개성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벌린다고 하여 분산적으로 하여서는 올해문학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없다. 문학운동은 모든 창작력량을 뚜렷한 방향과 목표에로 지향시키고 쫓아다니는 사업이며 문학건설의 모든 문제를 작가들의 집체적인 노력으로 풀어나

가기 위한 공동작전이며 공동행동이다.

모든 사회적운동은 사회와 집단의 일정한 지향과 요구를 전격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조직되는 사업이다. 문학운동도 그것을 통해 달성하려는 사회와 집단의 공통된 리상과 투쟁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투쟁목표의 높이에 따라 문학운동의 높이도 결정된다.

올해에 진행하는 문학운동은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주체문학운동사에 영원히 길이 빛날 선군시대의 명작을 창작하는것을 목표로 한것으로 하여 높은 단계를 이룬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올해에 진행하는 문학운동의 중요성과 의의를 똑바로 인식하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올해 문학운동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현실의 요구에 맞게 짜고들어 조직하고 더욱 힘있게 내밀어야 지난 세기 70년대와 같은 일대 전성기를 이룩하는 튼튼한 도약대를 확고히 마련할수 있다.

문학운동은 말로만 떠들어서 되는것이 아니다. 문학운동은 뚜렷한 방향과 구체적인 설계에 기초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착실하게 벌려야 하며 그에 대한 총화대책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문학부문 창작지도일군들과 작가들은 신들메를 고쳐 매고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올해 진행하는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도 작가들과 일군들속에서 어느때보다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문학운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당의 의도에 따라 해결하는 엄격한 규율을 세워야 한다. 문학운동에 대한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문학을 선군시대의 요구와 현실발전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고 명작을 창작할수 없으며 부르쥬아사상과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의 침습도 막아낼수 없다.

작가들을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주체의 문예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은 올해문학운동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창작실천론을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고 주체적문예방침의 요구대로만 창작하는 혁명적창작기풍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우리의 총적목표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주고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명작을 많이 창작하는것이다.

작가들은 명작을 내놓는가 못 내놓는가 하는것을 작가로서의 자신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

로 제기하고 누구나 다 선군시대의 명작을 내놓기 위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시대의 명작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장군님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장군님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하는 참다운 혁명동지가 되여야 한다.

혁명의 수뇌부는 우리 조국의 불패성과 존엄의 상징이며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운명이다.

우리 모든 작가들과 일군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과 결사옹위의 정신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혁명적신념과 의리가 깊이 간직되었을 때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명작을 창작할수 있다.

우리들은 혁명적인 문학작품창작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깊이 간직하고 명작창작에 온넛과 심장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

명작창작에서 첫째가는 요구는 당정책적대를 바로세우는것이다. 현시기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정치적문제를 예리하게 제기하고 형상으로 실현하려는 높은 정책적안목이 없이는 아무리 손끝재간을 부리고 형상을 기발하게 한다고 하여도 결코 선군현실이 요구하는 명작이 될수 없다.

모든 작가들은 자신들이 당정책의 대변자라는 높은 자각과 긍지감을 가지고 작품마다에 우리 당의 정책이 뚜렷이 반영되게 하여야 하며 당정책적선이 확고히 서게 하여야 한다.

작가들의 창작실무적자질은 명작창작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창작적재능은 작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것이다.

모든 작가들은 창작기량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야 한다. 잠자는 시간을 내놓고는 언제나 창작적사색에 몰타있어야 하며 사색의 빈곤은 곧 작가의 존재와 관련된다는 관점과 립장을 옳게 가지고 창작적사색으로 한초한초를 귀중히 보내야 한다.

최근 우리 당은 작가들이 격동적인 현실속에 몸을 폭 잠그고 땅냄새, 기름냄새가 폭 배이도록 할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에도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예술소조공연을 보시고 높은 치하를 주시면서 생활은 결코 작가들의 머리속이나 책상우에 있는것이 아니라 벽찬 생활속에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작가들은 현시기 현실체험문제를 작가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하며 심신을 다 바쳐야 한다. 우리는 현실체험문제를 당에 대한 작가의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혁명적락관주의는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교양, 부단한 사상단련을 통해서만 이루어 지는것이 혁명적락관주의입니다. 적이 아직은 강하고 혁명이 언제 승리한다고 기약하기 어려운 때에 미래를 띠관한다는것은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때문에 사상교양, 사상단련을 부단히 해야 하는것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그 어떤 폭풍속에서도 휘여들지 않는 강한 군대로 될수 있는것은 우리가 초기부터 사상교양에 큰 힘을 넣어온데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일관 유격대원들을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 불요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로,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교양하였습니다.

나는 잠만 있으면 대원들을 띠천적으로 교양했습니다. 대원들에게 <독립이 되면 평양에 가서 송어국도 먹고 랭면도 한그릇씩 먹고 모란봉에 올라가 대동강구경을 하자!> 고 하면 그들이 다 <야, 빨리 그날을 앞당겨와야지!> 하면서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백배해서 싸움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량심과 의리에 관한 문제로 간주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작가들의 몸에서 도시냄새를 말끔히 가셔버리고 땅냄새, 기름냄새가 꼭 배이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특히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을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올해창작에서 일대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들과 총서 《충성의 한길에서》에 속하는 장편소설들을 새로운 사상예술적높이에서 창작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설, 시, 아동문학 등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수령형상문학작품을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올해문학작품창작에서 또 하나 힘을 넣어야 할 주제분야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여기에서 전형으로 될수 있는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우리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애써 일하는 선군시대의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게 되면 그를 본보기로 하여 시대의 전형들이 더 많이 배출될것이다.

우리가 올해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작가들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그들의 창작성을 적극 계발시켜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선군혁명위업이 심화발전하는데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줄 때에만 그들속에서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충분히 발양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작품이 나올수 있다.

창작지도일군들은 자기의 사업방법과 작품이 당의 존엄과 관련되어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작가들보다 더 높은 정치적식견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직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여야 한다. 정치적식견이 높고 정치실무적자질을 훌륭히 갖춘 일군이라야 문학사업에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옳바로 파악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작가들을 똑바로 이끌어주고 실제로 도움을 줄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에게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견결히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조건에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의 침습을 막고 우리문학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최대의 각성을 가지고 문학작품창작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이색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히 짓통개버림으로써 주체문학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올해의 문학운동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평론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론계가 들끓어야 문학계가 흥성거리게 된다.

평론부문에서는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진행하는 전국문학축전작품창작에서 발양되는 작가들의 혁신적인 창작면모를 적극 찾아내고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 선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특히 자연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우리 문학에 조금도 배겨내지 못하게 비평의 날을 예리하게 버려야 한다.

뜻깊은 올해의 창작전투는 바야흐로 시작되었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올해의 하루하루를 모든 열정과 사색, 작가적재능을 다 쏟아부어 피타는 탐구와 창작적흥분으로 충만된 나날로 되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명작창작으로 공화국창건 60돐기념 전국문학축전을 빛나게 장식하고 주체문학운동사에 빛나는 뚜렷한 자욱을 남겨놓아야 할것이다.

불사약이야기

김종석

사람이 병없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옛날 사람들은 늘 장생불로의 꿈을 꿀 때면 《삼천갑자 동방삭》을 제일로 꼽았다.

전설에 의하면 동방삭은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먹고 오래오래 장수하였는데 그 수명이 무려 삼천갑자나 되었다는것이였다.

진시황은 중국천하를 통일한 후 황제가 되어 부귀영화를 끝없이 누리면서 동방삭처럼 오래도록 살기 위해 동남동녀 100여명에게 불사약을 찾아오라는 령을 내려 삼신산으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떠나간 동남동녀들은 불사약을 찾지 못했고 그들마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것처럼 오래 살기를 바라던 진시황이 죽어버리어 후세에 《진시황도 죽었는데...》라는 웃음거리일화를 남겨 놓았다.

이러한 옛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매우 오래전부터 무병장수하기를 소원하였음을 말해주고있다. 또한 세상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도, 장생불로하는 불사약도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하다면 이 세상에는 진짜로 불사약이 없는것인가?

이 이야기는 주체29(1940)년 봄 어느 밀영지에서 있는 일이라 한다.

식량공작을 나갔던 유격대원들이 여느때없이 검정닭을 한마리 사가지고 돌아왔다.

식량공작책임자는 그 닭을 사령부의 꼬마전사 순남에게 넘겨주면서이렇게 말하였다.

《이 검정닭은 친히 백두산대장수님께서 부탁하신거요. 그런데 대장수님께 갖다드렸더니 이걸 순남이에게 맡겨두라고 말씀하셧소. 자, 어서 받으소.》

이리하여 순남은 살이 찌고 윤기가 자르르 도는 까만 검정닭을 받아두게 되었다.

(야! 이젠 됐구나.)

책임자와 헤어진 후 순남은 무릎을 탁 쳤다.

방금 식량공작책임자에게는 말을 안했지만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이 순남이에게 검정닭을 받아두라고 하셧다는 말씀을 전달받는 순간 그의 머리에선 뽕뽕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2년전 소부대활동을 하던 한 대원이 뜻밖에도 산속에서 수십년 묵은 산삼을 캐게 되었는데 그는 백두산대장수님의 건강을 바라며 그 산삼을 사령부에 올려보냈다.

그때 산삼을 받아드신 대장수님께서 《이건 아주 보기드문 보물이요!》라고 하시며 여간만 기

뻘하지 않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때 그 산삼을 순남이에게 주시며 잘 보관해두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순남은 줄곧 그 산삼을 배낭 깊숙한 곳에 넣고다니며 언제면 이 산삼을 보약이 되게 잘 만들어 백두산대장수님께 드릴수 있을가 하는 생각만 해오고있었다.

그런데 오늘 검정닭을 구해오시고 그것을 또 이 순남이에게 맡겨두시는걸 보니 이번엔 보약을 쓰시려는가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두산대장수님께서서는 대부대선회작전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며 온 겨울 치열한 전투와 무서운 눈보라속에서 왜놈들을 때려부시였다.

그렇수록 유격대원모두가 바라는것은 백두산대장수님의 건강과 안녕이였다.

그때문에 산삼을 캔 유격대원도 그것을 삼가 백두산대장수님께 드렸던것이다. 그런데 아직 대장수님께 보약을 해드리지 못하였으니 그 유격대원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랴.

순남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등불도 피우고 오지단지도 깨끗이 가시고있을 때 그의 결의로 백두산대장수님께서 걸어나오시였다.

《순남이가 벌써 이 사령관의 뜻을 알고 닭곰을 만들 준비를 미리 다 해놓았구나.》

대장수님께서서는 가마속에서 펄펄 끓는 물을 바라보시면서 순남이는 닭곰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지 알고 물으시였다.

순남은 입대전에 어머니가 닭곰을 하는것을 몇번 보았지만 제손으로 해본 일은 없다고 솔직히 말씀올렸다. 그러자 대장수님께서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그래? 그럼 오늘은 나와 함께 닭곰을 만들어보자.》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순남은 바쁘신 대장수님께서서 어찌 이런 일에 손을 적시시겠는가고, 이 길로 사령부작식대에 달려가서 녀성대원들에게 부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대장수님께서서는 순남이를 멈춰세우시며 《아니, 이 닭곰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해.》라고 하시였다.

《조용히 순남이와 둘이서만 만들자구.》

순남은 대장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 좋아 《예!》하고 큰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순남은 불을 지켰고 대장수님께서서는 직접 손을 걸으시고 닭을 튀기시였다.

어린 순남은 닭곰만드는 법을 몰라 대장수님께서서 어떻게 끓는 물에 닭을 튀기시고 털을 뽑으시

는가를 구경할뿐이었다.

어느새 검정닭은 털까지 깨끗이 뽑은 말쑥한 닭으로 되었다. 대장수님께서는 순남이가 지금껏 보관해온 산삼뿌리를 씻어 찹쌀과 함께 닭의 배 안에 넣으신 후 그것을 또 오지단지에 조심히 넣으셨었다.

닭곰을 넣은 오지단지가 큼직한 가마안에 다 들어갈 때까지 멍청히 서있지만 하던 순남은 대장수님의 바쁘신 시간을 더 잃게 할수 없어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다.

《저... 이젠 불때는 일만 남았으니 그건 저에게 맡기시고 어서 들어가보십시오. 불은 제가 잘때겠습니다.》

그러자 대장수님께서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허, 순남이가 영 닭곰을 할줄 모르는구나. 닭곰은 어떻게 불을 때고 잘 익히는가가 더 중요한 거란다. 자, 그러지 말고 넌 저기 가서 장작이나 더 가져오너라.》 순남은 이번에도 대장수님께서 친히 불을 때시는것을 보면서도 말려드리룰수가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 하는수없이 장작을 가지러 갔다.

순남이가 장작을 한아름 안고 대장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돌아올 때였다.

갑자기 장작을 안은 순남은 그 자리에 떡 서버리고말았다.

방금전에 길을 따라 장작을 가지러 나왔는데 되돌아가자니 눈앞에 뽕안 안개가 서리어 어디가 어딘지 통 가늠을 할수 없었다.

이게 웬일인가.

지금껏 해빛이 짹짹 내려쬰었는데어디서 이런 안개가?

사방좌우를 둘러봐도 안개뿐이었다.

순남은 하는수없이 백두산대장수님을 큰소리내어 찾았다.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꾸는가.

두리번거리며 몇걸음 내여질던 순남은 뒤에서 울리는 대장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순남아, 나무를 들고 왜 거기 있는거냐? 어서 그 장작을 이리 가져오너라.》

뒤로 돌아서던 순남은 깜짝 놀랐다.

방금전의 안개는 말끔히 사라지고 바로 몇걸음 앞에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서계시는것이 아닌가.

너무도놀랍고 놀라운 일이어서 순남은 한동안 그러고 서있었다.

그는 대장수님께서 부르시여서야 다시 우등불이 있는 곳으로 갈수 있었다.

(참 초환데... 분명 방금전까지 눈에 안개가 보였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으니.)

순남은 이 사실을 대장수님께 말씀드리려 했으나 자기가 착각을 일으킨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러는 사이 닭곰은 훌륭하게 만들어졌다.

우등불가에는 산삼을 넣어 고아낸 닭곰의 구수한 냄새가 퍼져있었다.

순남은 빨리 이 닭곰을대장수님께서 드셔야 할텐데 하고 생각하며 장작을 불에 더 올려놓았다.

그런데 백두산대장수님께서서는 순남에게 이젠 불을 더 때지 않아도 된다시며 닭곰이 꼭 익었을테니 식기 전에 그것을 얼른 밀영병원에 가져다주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순남은 갑자기 제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는 대장수님께 말씀을 드리였다.

《장군님, 안됩니다. 이것만은 꼭 장군님께서 드셔야 합니다.》

순남의 간청은 절절했으나 대장수님께서서는 닭곰단지를 정히 써서 순남의 손에 안겨주시는것이였다.

순남은 울먹이며 닭곰단지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무리 순남이가 울먹이며 간청을 했어도 대장수님께서서는 끝내 순남이에게 닭곰단지를 들려 밀영병원으로 가게 하시였다.

결국 2년동안 고이 보관해온 산삼이 든 닭곰단지는 눈물을 흘리는 순남의 손에 들리워 병원으로 내려가고말았다.

그런데 일은 그다음에 일어났다.

며칠후 순남은 백두산대장수님으로부터 잠깐 밀영병원에 다녀오라는 명령을 받게 되였다.

명령은 병원환자들의 상태를 알아보고 오라는 내용이었다.

대장수님의 명령을 받은 순남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깜짝 놀라운 일이 순남이를 기다리고있었다.

그가 병원어구에 들어서자마자 안경을 낀 유격대군의 아버지가 순남을 멈춰세웠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물었다.

《순남이가 요 며칠전에 무슨 보약을 가지고 우리 병원에 온 일이 있지?》

《예, 닭곰단지를 가져왔지요.》

순남의 어리벉벉한 말에 또 군의가 다우쳐물었다.

《그렇지,그 보약이 닭곰이었지! 산삼까지 넣은 닭곰. 그런데 말이네. 순남인 그 닭곰단지를 어디서 나서 가져왔나?》

순남은 아직 어리둥절했다.

《왜요? 그걸 먹은 동무가 뭐 어쨌습니까?》

사실 순남은 그 닭곰단지를 가져갈 때 대장수님께서 닭곰에 깃든 사연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여 아무 말없이 밀영병원에 가져다주고 돌아갔었다.

그런데 군의아버지가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니 은근히 부아가 났다. 그래 순남은 한마디 했다.

장군님의 웃음속에

한원희

보고 또 보아도 희한하였네
따라가며 보아도 신기하였네
자동흐름선에 떠실린 화장품 화장품들
어에서 시작되어 흘러나오는지
이 화장품 흘러흘러 가면
가는 곳 그 어디인지

그립던 장군님 모신 기쁨에
지배인은 생산공정을 말씀드렸네
붉고 푸른 신호를 서로 주고 받으며
쉬임없이 화장품들 만들어내네
재빠른 기계들 기계의 손들
상품도 《봄향기》 정답게 짙고 짙어서
스리슬슬 안고가는 그 흐름

지배인의 설명없이도 왜 모르시랴
그리도 대견해
장군님은 빙그레 웃으시고
지배인은 또 말씀드렸네
장군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리도 놀라웁게 현대화되었다고

여쭙는 말 들으시면서도 웃으시고
기대를 돌아보시면서도 웃으시고
만시름 놓으신듯 천만시름 푸신듯
멋들어진 화장품보고 또 보시였네
너인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웃으시는 장군님

아, 서서 보아도 희한해
따라가며 보아도 신기해
사람들이 묻지 말자
자동흐름선에 떠실린 화장품의 물결
어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나오는지
이 화장품 흘러흘러
가는 곳 그 어디인지

묻지 말자
묻지 말자
장군님의 웃음속에 흘러나와서
장군님의 기쁨속에 인민에게로 가네!

《그 닭곰이 어떤 닭곰인지알고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로 그래서 묻는거네!》

순남은 긴장해졌다.

그 약이 바로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손수 지으신 보약이니 별일은 없겠지만 군의아바이가 펄쩍 놀라는것은 뭔가 다른데 있는것 같기때문이었다.

《내 평생 많은 의서를 뒤져보고 수많은 환자도 치료해보았건만 이런 기적은 처음 보아 그러네!

사실 순남이가 들고온 보약단지를 받은 중환자는 거의나 앞날을 기약할수 없는 사람이었네.

물론 걸보기에는 음식도 들수 있고 걸음걸이도 조금은 할수는 있으나 그에게는 의학계가 죽음을 선고한 불치의 병이 자라고있었거든!

그런데... 그런데 바로 그 중환자가 그 닭곰 한 마리를 먹고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났단 말일세. 그뿐인줄 아나. 그 보약에 어떤 신비가 깃들었는지 그날 보약을 먹은 사람은 물론 닭곰냄새를 맡

은 한병동의 환자들까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네.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네!》

순남은 그제서야 저도 걱정에 넘쳐 유격대군의에게 닭곰단지에 깃든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약을 지을 때 백두산대장수님의 주위에 하얀 안개가 서리였던 그 이야기까지 다 들려주었다.

군의는 감동을 금치 못하며 순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껏 나는 세상에 장생불로하는 불사약이 있다는 말을 부정해왔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손수 지어주신 보약을 받고 불치의 병도 사라지고 대치를 다시 확보하는 저들을 보며 어찌 불사약이 없다 하겠는가!》

순남이 역시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손수 불사약을 짓는것을 본 사람으로서 유격대군의의 감동어린 그 말을 깊이깊이 리해하고있었다.

시작품집에 깃든 은정

소중한 씨앗도 비옥한 토양과 따뜻한 해빛이 없다면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없다.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찾으신 재능의 싹들을 보석과도 같이 귀중히 여기시며 빛을 보게 하시는분이 바로 우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입니다.

지난해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태천4호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던 때의 일이다. 발전소를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돌격대원들이 쓴 시작품집을 보게 되시었다.

그 시작품집에는 청년건설자들이 창작한 100편의 시작품들이 올라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들이 지은 시를 하나 하나 읽어보시었다. 돌격대의 한 일군이 시작품집을 만들게 된 사연을 말씀 올리였다.

언제기초공사가 한창인 때였다. 처녀들이 떡돌을 씻듯이 암반을 정성들여 씻고있었다.

이것을 보게 된 한 남자청년돌격대원이 처녀돌격대원들에게 룡조로 떡을 치려고 하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처녀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서로 마주 보며 웃음보를 터뜨렸다. 한참만에야 한 처녀가 영문을 몰라하는 청년에게 이제 이 암반에 콩크리트타입을 하는데 한점의 티도 없어야 딱 붙기 때문에 티를 굵어내느라고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처녀돌격대원의 대답에서 피땀 펴오르는 시상을 잡은 청년돌격대원은 수첩에 시를 써나갔다. 바로 그 시가 《떡을 치려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처럼 발전소언제기초에도 한점의 티가 없어야 한다는 이 시구절에서 그들의 순결한 량심의 호소를 읽으시었다.

한동안 그들이 지은 소박한 시를 하나하나 읽어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태천4호청년발전소 건설 돌격대원들이 쓴 문학작품집 《대령강은 말한다》가 아주 좋다고, 이 책의 작품들은 돌격대원들이 로동생활과정에 자기들이 체험하고 느낀것을 쓴것이기때문에 종자도 좋고 사상도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사실 시를 잘 모르는 일군들의

눈으로도 시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한 습작품집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그 한편한편의 시를 그리도 소중히 여기시며 문학작품은 현실과 떨어져 책상에서 쓴것보다 로동현장에서 쓴것이 더 의의가 있고 생동하여 좋다고, 로동현장에서 쓴 문학작품들에는 체험자의 훌륭한 사상정신세계가 반영되어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정녕 이는 투쟁과 위훈으로 청춘을 빛내여가는 선군시대 청춘들의 참된 삶을 높이 평가하시고 우리 문학의 창작방향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나이도 태어난 곳과 사는 곳, 취미와 성격, 습관도 다르고 학력도 각이한 그들속에는 시를 써본 사람도, 지어 시를 어떻게 쓰는지조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에게 잘한것, 잘못된것을 다 말하는 자식의 그 마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발전소건설의 력사, 선군시대 청춘들의 투쟁과 생활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를 그대로 아뢰고싶었다.

그렇게 되어 한편한편의 시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현장오락회장에서 합평을 하여 당선된 시들로 소박한 시작품집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시작품집, 선군시대의 영웅적위훈의 창조자, 불굴의 기상 of 창조자들인 태천의 청년돌격대원들의 신념의 목소리는 곧 신문과 방송, 텔레비존을 통하여 온 나라에 힘있게 울려 퍼지었다.

어제날에는 전선시찰의 길에서 한 평범한 병사가 그린 연필화를 몸소 보아주시고 그의 소중한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시며 온 나라에 《소묘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실로 그이는 우리 청년들의 재능의 싹을 튼튼히 자래워 열매맺게 하시는 위대한 은인이시다.

아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이 땅우에 더 활짝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과 불멸의 업적은 시작품집 《대령강은 말한다》와더불어 길이 전해질것이다.

혁명소설창작의 새 력사와 함께 성장한 세계적인 작가(3)

박춘택

인류문학사에는 작가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가지고 그들의 창작생활에 관심을 돌리었던 위인에 대한 실례들이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나라에서처럼 수령과 작가사이의 관계가 참다운 동지적관계, 혈연적인 인간관계로 되어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러한례는 일찌기 없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되어야 한다.》

하나의 뜻,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참다운 동행자!

이것은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안겨주신 고귀한 칭호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이 받아안고 누리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숭고한 믿음에 원천을 두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것처럼 영원하고 웅심깊고 뜨거운 것이다.

석유키는 혁명소설창작의 새 력사와 함께 그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누구보다도 심장뜨겁게 받아안았던 작가의 한사람이였다.

작가는 고향을 남조선에 둔 사람으로서 가까이 한명의 친척도 없다. 그러나 그는 레사로운 나날들에 친부모에도 비길수 없는 세심하고 살뜰하고 뜨거운 사랑을 늘 온몸으로 느끼였다.

주체60(1971)년 2월 예술영화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가 완성되어 나왔을 때 그를 친히 부르시여 앞으로 중요한 창작사업을 수행해야 하겠는데 건강에 각별히 류의하라라고 재삼 당부하시던 그 다정하신 음성...

그때로부터 석유키의 삶은 한없이 숭고하고 뜨거운 사랑속에서 감격의 순간순간들로 이어져왔다.

석유키가 건강이 좋지 않은것이 좀처럼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장편소설로 옮기던 때에는 손수 귀중한 약재를 보내주시고 그후 거듭하여 효험높은 보약재들을 안겨주신 은정깊은 사랑 그리고 일군들을 만나실 때면 작가의 건강에 대하여 따듯이 헤아려주시고 최상의 의료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검진을 받으며 치료받도록 취해주신 사랑의 조치들...

한 평범한 작가에게 돌려주시는 이 지극한 보살피심에 접할 때마다 석유키는 송구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그리고 단순한 인간적애정만으로 설명할수 없는 그 사랑의 숭고하고 고귀함을 뜨겁

게 느끼며 감격으로 눈시울을 적시곤 하였다.

그러던 주체64(1975)년 경사로운 4.15를 하루 앞둔 날이였다.

강산에 넘쳐나는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힘모의 마음을 가슴후덥게 느끼며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을 출판에 넘길 준비를 다그치고있던 석유키는 뜻밖에도 한 영화문학작가와 함께 자기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할데 대한 중앙인민위원회(당시)정령에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실로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영예였다.

사실 그때까지 석유키는 4.15문학창작단 작가로서 자신이 하고있는 창작사업과 지금까지 받아안은 믿음과 사랑으로도 영예와 행복의 절정에서 사는 심정이였다. 그런데 자기가 다시금 《김일성상》의 것처럼 고귀하고 값높은 영예를 받아안게 되다니...

이런 심정으로 가슴속에 감격의 바다를 안고 지내던 석유키는 영예의 상장과 금메달을 받아안은 자리에서 한 일군으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4월 15일을 맞으며 창작가들에게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하시고 친히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찍어주신 사연에 대하여 전해듣고는 더는 자신을 다잡지 못하고 격정을 터뜨리고야말았다.

그날 밤 작가는 견딜수 없는 충동을 안고 책상에 마주앉았다. 하지만 막상 펜을 들고보니 눈물만 앞설뿐 마음속의 사연을 좀처럼 옮길수가 없었다.

이러한 그에게는 남조선에 있을 때 겪었던 일들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지는것이였다.

8.15해방후 새 조선의 앞날을 그리며 환희에 넘쳐서 시 《출항》을 썼던 일이며 그 원고가 항쟁의 거리에서 미제의 땅크무한궤도에 깔려 짓이겨지던 일,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부르짖었다 하여 특공이 으스스지는 악형을 당하고 피를 토하는 몸으로 경찰서 마당에 내던져졌던 일이며 막막한 가슴을 부여잡고 방황하던 일...

그때의 자기와 당의 작가로서 누리는 오늘의 영예와 행복, 이 운명에서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의 가슴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뜨겁게 젖어드는 것이였다.

이때뿐이 아니였다.

혁명적인 소설창작으로 인민들의 혁명적교양에

이바지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어 작가에게 로
력영웅칭호를 안겨주시었으며 주체77(1988)년
에는 입원생활을 하고있는 그에게 《김일성훈장》을
달아주도록 하신 크나큰 믿음 그리고 그를 당
에서 품을 들어 키운 일군으로 불러주시며 4.15문
학창작단 단장,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의 중책을 맡겨주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위원으로까지 내세워주신
숭고한 믿음...

참으로 그 사랑과 믿음은 끝없이 고귀한 자양
분이 되어 석운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나게 하였으
며 그의 심장을 언제나 청춘의 활력으로 고동치
게 하였다.

이것은 비단 한 작가에 한한 믿음과 사랑이 아
니였다.

석운기가 작가 한사람한사람을 더없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무한함과 뜨거움에
대하여 더욱 사무치게 느낀것은 주체76(1987)년
4월 중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4.15
문학창작단건물을 찾아주시였던 그날이었다.

그 건물로 말하면 그이께서 건설을 발기하시고
창작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사랑을
돌려주시어 완공된것이였다.그런데 작가들이 새
건물로 옮길 준비를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 불비한 점이 없겠는지 걱정되시어 친히
바쁘신 시간을 내신것이였다.

그이를 새로 완공된 건물에 모시고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처럼 새벽 일찌기 정문에 나와서군
했던 석운기는 너무도 기쁘고 감격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그이께서 석운기의 인사를 받으시자 무척 반가
와하시며 그사이 몸이 좀 좋아진것 같다고 환히
웃으시였다.

그 친근하신 음성, 따사로운 미소는 봄날의 해
별보다 더 강렬한 사랑의 빛으로 가슴을 적셔주
어 석운기를 목메이게 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석운기의 안내를 받
으시며 건물의 내부를 구체적으로 다 돌아보시였
다.

그이께서 침실도 달려있고 서고도 있고 일체
생활필수품들이 다 갖추어진 창작실에 들리시였
을 때였다.

그이께서 이런 방에 앉아 글을 쓰면 글이 저절
로 나오겠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가시였다.

그러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뒤정원을 바라
보시다가 일군들에게 나무를 많이 심어 밀림처럼
보이게 하라고, 그래서 작가들의 정서생활과 휴
식, 창작작사색에 도움이 될수 있게 꾸리라고 이
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의 현지도의 길에서 작가들
이 리용하게 될 오락도구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
심하시였다.

그리고 서고에 들리어서는 작가들의 시야를 넓
혀주자면 서고를 꼭 채워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
께서 참고로 보시던 책들도 기증하겠다고 말씀하
시였다.

지어 그이께서는 건물앞마당에 꾸린 정구장에
서 굴러난 공을 주으려 다닐 작가들의 부담까지
헤아리시며 그물을 쳐줄데 대하여 세심하게 알려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4.15문학창작단 작가들
의 창작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고 거듭 간곡히 이르고나서 애로되는 문제가
있으면 다 풀어주겠으니 자신께 직접 제기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석운기는 그이를 안내하여 걷는 걸음걸음에서
자신을 포함한 조선의 작가들이 정녕 얼마나 위
대하고 자애로운 품에 안겨있는가를 절감하며 몇
번이고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작가들을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고귀하고 숭고
한 은정.

정녕 세상에 이런 믿음과 사랑의 품에 안겨 창
작사업을 하는 작가들이 또 있을것인가!

석운기의 가슴은 이러한 생각으로 마냥 부풀어
올랐다.

그는 늘 그 궁지와 자부심으로 심장이 불탔으
며 조선의 작가된 끝없는 행복감을 가지고 혁명
소설창작과 문학부문의 사업을 개선하는데 지혜
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는 그때 불치의 병으로 신고하면서도 새로운
장편소설 《기념비》의 창작을 준비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구상을 높이 받
드시어 주체건축의 새 력사를 펼쳐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령도력과 불멸의 업적!

그는 장편소설을 통하여 이것을 시대와 력사앞
에 높이 노래하려고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악화
된 병세로 하여 석운기는 장편소설집필을 끝내
시작하지 못하였다.

석운기가 원고지를 안은채 쓰러진데 대한 사실
이 보고되었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하나 소생시키
시려고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의 이름있는 의사까
지 부르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치료에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다 해결해주시
였다. 석운기는 이렇듯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마
지막순간까지 숭고하고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채
주체78(1989)년 4월 우리결을 떠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가 세상을 떠났어도

추운 날 더운 날

김정순

대소한추위속을 오시더니
삼복의 무더위속을 오셨구나
또다시
먼 2천리
내 고장 북변땅을

꽃피는 봄, 선선한 가을
좋은 날도 많건만
겨울에도 대소한
여름에도 삼복
제일 춥고 더운 날...
날 끝라 떠남이
그 무슨 혁명이라
인민위한 고생
나의 락이라
늘 외우시는 우리 장군님

추운 날 오셨을 때는
강바람 사나운 수성천발전소머
눈깊은 어랑계곡의 언제며
산중의 장연호양어장...
차고찬 한지에만 계시었는데

더운 날 오신 날은
김철의 뜨거운 해탄로며
라남의 달아오른 대형기대며
성강의 열기쁨은 전기로앞에서
내내 열풍속에만 계시니

아, 비오나 눈오나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돌려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그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셨으며 장의기간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까지 보내주시었다.

중편소설 《전사들》, 장편소설들인 《시대의 탄생》 1,2부, 《무성하는 해바라기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 《두만강 지구》,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단편집 《폭풍시절》 등 10권의 단행본과 《평양신문》에 련

사무치게 사무치게 기다리다가도
정작 뵈고나면
아버이의 그 고생이 그냥 땀혀와
송구스러운 마음

그때문에
우—우—바람불고 날이 추우면
장군님생각 더 간절한가
이 추운 날 성에 짙은 야전송용차
또 어느 령길에 멈춰선것만 같아

그때문에 그때문에
숨막히는 무더위가 온몸 달구면
아버이장군님 생각 더 뜨거운가
이 더운 날 그이 야전옷자락
출강하는 어느 로앞에 날릴것만 같아

아 내 나라 푸른 하늘아래 꽃피는 봄이여
너는 우리 장군님 추운 날 고이 품고 오신
그날의 따뜻한 봄씨앗이였고
풍요한 대지의 설레이는 나락이여
너는 우리 장군님
더운 날 땀으로 익히신 그날의 열매였거니

추운 날 더운 날
장군님 헌신으로 안아오신것이여서
선군승리의 봄은
그리도 따스한것이구나
밝아온 강성대국의 려명은
그리도 밝고 아름다운것이구나

제한 첫 중편소설 《청춘의 길》 그리고 수십여편의 예술적산문과 평론들.

그는 참으로 많은것을 조국과 인민앞에 남겨놓았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작가 석윤기의 영광에 넘친 한생을 통하여 우리 작가들이 얼마나 위대한 스승, 위대한 아버이를 모시고 창작활동을 벌리고있으며 인생을 꽃피우고있는가를 깊이 느끼게 된다.

우물가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한생에 대하여 그가 일생동안 해놓은 그 모든것은 다 동지들을 위하고 인민을 위하고 혁명을 위한것이였지 자신을 위한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고 회고하시였다.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렬차를 타고 평양으로 향하시던 주체34(1945)년 12월 어느날이였다.

명천역에서 하루밤을 묵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아침일찍 바깥을 드시고 역사를 나서시였다. 동행하였던 녀투사가 물긴는 일은 우리가 할테니 가만 계시라고 거듭 말씀올리였건만 그이께서는 그럼 같이 가자고 하시면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얼마 멀지 않은곳에 우물이 있었다. 우물은 그리 깊지 않았지만 드레박이 없이는 퍼올릴수 없었다. 아직은 이른새벽이여서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녀인들조차 없었다.

주변을 살펴보던 녀투사는 우물가에 서있는 집의 처마밑에 드레박이 걸려있는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드레박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려 할 때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를 가볍게 제지시키시더니 밖에 건사한 물건이라도 임자가 있는 물건이겠는데 주인을 찾아 승인을 받고 쓰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였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정직하기로 이름이 높았다고, 이 집주인도 우리 인민의 고운 마음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 집 재산들을 이렇게 밖에 건사하지 않았을것이라고 나직하게 타이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이야기나 나누자고 하시며 우물터에 자리를 잡고 앉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띠엮띠엮 자리잡은 주변의 초가집들을 둘러보시면서 항일전의 나날 유격대원들이 것처럼 엄숙한 조건에서도 인민의 재산을 아끼며 보호하던 일들을 감회깊이 회상하시였다.

녀투사는 아침식사가 늦어질가보아 조바심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금만 있으면 주인이 깨어날텐데 좀더 기다리자고 하시면서 우

물가의 눈을 쓸기 시작하시였다. 녀투사도 비자루를 찾아들고 나섰다. 한동안 시간이 흘렀지만 우물집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녀투사는 더는 기다릴수 없어 집주인을 찾으려고 문앞으로 다가섰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또다시 그를 만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단잠에 든 사람들을 깨우기보다는 좀 피로더라도 우리가 참는게 낫다고 하시며 이번에는 우물집의 마당을 쓸어나가시였다.

한참후에야 가볍게 문이 열리더니 물동이를 인녀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눈을 말끔히 쓸어버린 마당과 우물가주변을 둘러본 녀인은 영문을 몰라 잠시 머뭇거리였다.

바깥쪽과 비자루를 들고 저편에 서계시는 김정숙동지와 녀투사를 알아보고서야 녀인은 물을 길러온 손님들이 그렇듯 고마운 일을 하였다는것을 알아차리게 되였다.

우물집녀인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처음 보는 길손들이 처마에 걸려있는 드레박을 잠시 빌리기 위해 집마당과 우물가주변을 깨끗이 쓸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으니 난생처음 당하는 일이라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녀인이 황황히 벗겨올리는 드레박을 받아드시는 길로 우물가로 다가가시여 녀인의 동이에 먼저 물을 퍼주시였다. 녀인이 너무도 황송하여 드레박을 어서 달라고 말씀올리였지만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께서 마저 길겠다고 하시며 그냥 물을 길어주시는것이였다.

어쩌면 이리도 소탈하시고 인정이 많으실가!

우물집녀인은 마을형편과 가정형편에 대하여서도 차근차근 물으시는 김정숙동지를 우러르며 연신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어느 사이엔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동네녀인들을 둘러보시면서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녀성들도 해방이 좋다고 만세만 부르지 말고 김일성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낯은 사상잔재와 생활인습에서 벗어나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정깊은 음성으로 다정히 인사를 남기시며 역사를 향하여 걸어가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물집녀인과 동네사람들은 오래동안 우물가를 떠나지 못하였다.

위대한 《이민위천》 리념의 승리사에 대한 불멸의 화폭

최연경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청산별》(김삼복 작)은 위대한 수령님식 대중지도사상과 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거창한 탄생과정에 대한 생동한 력사의 확인이며 그 절대의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불멸의 화폭이다.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의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 수령님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진리성과 그 승리를 그 탄생으로부터 생활력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폭넓게,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었다는데 장편소설 《청산별》이 총서 《불멸의 력사》에서 차지하는 특이한 위치와 혁신적의의가 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발전시킨 대중지도사상이며 지도방법이다.

이 위대한 지도사상과 방법은 오로지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지론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시였으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하는 사람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혁명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수 없고 창조할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정치철학의 절대적인 진리성과 업적은 반드시 력사에 기록되어야 하며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져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잘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는것은 우리 세대 작가들이 지닌 가장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이다. 이 과업을 후대에게 넘겨줄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는 사업은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직접적인 목적자와 체험자가 살고있는 우리 대에 다 완성해놓아야 한다.》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직접적인 목적자, 체험자들인 우리 세대 작가들에게 사명 지워진 이 영예롭고 책임적인 과업을 리행하는데 뚜렷한 기여를 하였다는데 수령형상문학에서 차지

하는 작가의 응당한 몫과 장편소설 《청산별》의 사상에술적성과가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청산별》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사상에술적성과는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에서 것처럼 거대한 운명적의의를 가지는 수령과 인민이라는 무게있는 종자를 든든히 틀어쥐고 그 사상에술적해명으로 수령형상을 집중시켜 성공한데 있다.

소설은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창조해나가는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상을 직접적으로 그리는데 형상의 기본을 두고 모든 형상을 여기에 집중시킴으로써 종자가 제기한 문제에 훌륭한 사상에술적해답을 주었다.

소설은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창조의 력사적필연성, 시대와 혁명의 절박한 요구 그리고 그것을 비범한 예지와 뜨거운 인간애의 심장으로 명철하게 통찰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을 밝히는데로 작품의 사건과 인간성격, 인간관계 등의 모든 형상요소들을 훌륭히 집중시켜 그 의의를 끝까지 파헤치고있다.

그와 인연이 없는 결가지란 소설에 하나도 없다.

소설이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주체48(1959)년,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가 이미 완성되어 사회주의체도가 확립되었으며 생산력이 빨리 발전하고 생산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아졌다. 이 새로운 환경은 필연적으로 그에 맞는 새로운 지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군들의 지도수준은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었다.

당, 정권기관, 경제지도일군들은 지난날 개인농경리가 지배하고 생산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때의 낡은 사업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이 고리를 풀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킬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누구도 감득하지 못한 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한눈에 통찰하시고 몸소 조국의 북변 함경북도로부터 중부인 황해남도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방방곡곡을 다 밟으시며 현지지도의 낮과 밤을 보내시였으며 력사적인 주체48(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제와 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현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예견하신 그대로 새로운 지도방법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었다.

그중에도 강서군 청산리야말로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전형적으로 체현하고있는 우리 나라 농촌의 축소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강서군 청산리에 나가시여 보름동안이나 농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보시며 당사업, 경제지도사업, 협동조합관리운영사업과 농민들의 생활형편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깊이 연구분석하시였다.

소설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려 보름동안이나 현지지도하신 청산리를 기본형상무대로 하여 그 생활을 깊이 파고들으로써 종자의 거대한 의의를 훌륭히 밝혀내고있다.

여기서 작가는 전진도상의 결합과 생활을 미화분식하지 않았으며 있는 그대로 적라라하게 펼쳐보임으로써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진실하게 밝혀내는데 응당한 기여를 하였다.

소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청산리를 통하여 본 나라의 농업실태는 참으로 엄중하였다.

그 첫눈에 띄는것이 농업상 합의선이였다. 그는 극단한 패배주의와 교조주의에 사로잡혀 농촌경리의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기계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모든 농사일이 하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자연적인 농업의 범위를 벗어날수 없으며 따라서 대규모협동경리가 운영될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두말할것없이 우리 당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였고 신념이 없는 표현이였다.

그런가 하면 개인농경리때와는 달리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유일관리제가 확립된 유리한 조건에서는 손탁 센 장악력과 강한 요구성만이 생산장성의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아래실정과 관계없이 계획과 지시를 망탕 내려 떨어는 농업성 부상 최영길의 극단한관료주의, 형식주의 그리고 사업에 대한 연구와 자체결심이 없이 위의 지시에 맹종맹동하면서 그것을 아래에 되받아 넘기군 하는 강서군 인민위원회 일군들, 당정책과 자기 사업에 대한 연구가 없이 《오로바이》처럼 낮에는 25개 작업반을 발이 닳도록 돌아치고 저녁에는 작업반장들을 회의에 불러대어 목이 터지게 소리를 치며 밤이면 밤대로 문서를 만드느라 입술까지 갈라지리며 눈코뜰새없이 바빠 돌아가는 관리위원장 장영덕, 하지 못할것을 뻔히 알면서도 관리위원장앞에서 《알았습니다.》, 《하겠습시다.》 하고 빈말로 비위나 맞추며 아첨하는 작

업반장 박진섭, 서리맞은 나무잎모양으로 생기가 없고 물에 빠졌던 사람같이 맥이 빠져 얼떨떨해있는 청산리당위원장 유근재...

이것이 당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이 지배하는 청산리의 한심한 실태였다.

이러한 실태는 농업관리에서 엄중한 결함을 산생시키고있었다.

가장 심중한 결함은 농사일에 힘을 집중하지 않는것이였다.

로력이 없다고 우는소리를 하면서도 농번기에 길따기요 학교건설이요 강습이요 예술소조공연이요 하면서 로력을 함부로 떼내는가 하면 아직은 2~3명이면 될수 있는 기계화작업반에 40명이나 되는 청년로력을 배치하여 건달을 부리게 하였으며 지어는 《풍년축구경기》까지 벌려놓아 농사일에 지장을 주고있었다. 이것은 차두철이와 같이 농사일을 하기 싫어하는 건달군을 낳게 하였으며 기호와 같이 조합재산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하여 팔아먹는 리기주의를 조장하였다.

결함은 사회주의본배원칙을 심히 위반하는데서도 심중히 발로되였다.

모내기나 김매기와 같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보다 공구나 들고다니는 기계화작업반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로력공수를 평가해주었다. 그리하여 로력은 낭비되고 타산없이 세워진 계획은 수행되지 않았다.

참으로 실태는 한심하고 결함은 너무도 엄중하였다.

소설은 이 모든 걸린 문제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어떻게 통쾌하게 해결되여나가는가를 생동한 생활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이 안고있는 종자의 무거운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에 실려졌으며 하여 소설은 응당하게도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조과정에 비낀 수령님의 위인상을 직접적으로 그리는데 형상의 기본을 두고있다.

소설을 구성하고있는 총 45개의 장에서 수령님의 영상을 직접 모신 장이 무려 24개 장이나 된다는 사실을 두고도 그것을 말할수 있다.

참으로 이 력사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의 북단 함경북도의 서수라 한끝에서부터 공화국북반부의 서남쪽 끝인 황해남도 연안의 농촌마을에 이르기까지 조국땅 그 어디인들 찾으시지 않은 곳이 없으며 가시여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용해공, 탄부, 기계공, 어로공, 협동조합원, 학교교원, 기사, 과학자, 인민정권기관의 일군들, 우리인민 모두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으시였다.

청산벌에 계시던 그 나날에는 농민들의 수수한 농가에 들리시여 허물없이 방안에 들어가 보시고 쌀독과 장독도 열어보시였으며 날씨가 싸늘한

새벽이면 찬물에 모를 널 농민들의 수고도 헤아려주신 아버지수령님.

진정 아버지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기초에는 언제나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이 놓여있으며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위인의 사랑이 대하와도 같이 철철 흘러넘치고있다.

소설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특히 강서군당 부부장이상 협의회를 지도하시던 도중 며칠째 앓고계신 감기로 하여 잠시 들리셨던 조춘보로인의 집에서 받아안게 되는 심오한 체험세계, 그로부터 끝없이 펼쳐지게 되는 인민에 대한 사색의 세계에 대한 묘사에서 더없이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이 장면이야말로 소설에서 매우 소박하면서도 가장 빛나게 형상된 인상깊은 장면이다.

로인은 장작불을 때며 구들을 뜨끈하게 덥히고 비단이불을 정히 퍼드린 다음 수령님께 대접해드리라고 산꿀 한병을 내놓고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는 조용히 방에서 나갔다. 이러한 로인을 대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불현듯 북만원정에서 돌아오시다가 축한을 만났던 때 어느 한 깊은 수림속에서 자신을 간호해준 고마운 조력주조인과 최일화에 대한 생각이 문득 떠오르시였다.

어려운 순간에는 언제나 인민들이 그이를 위해 나섰던것이다.

이런 속에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한잠 폭 쉬고나신 수령님께서서는 로인의 지성에 받들려 몸이 거뻐해지는것을 느끼시였다.

온몸에 땀이 폭 나도록 뜨끈하게 달군 구들, 열을 내리게 하는데 특효인 산꿀이 은을 낸것이다.

이때 우리 수령님께서 하시게 되는생각, 만졌을 때 그렇게도 꺼칠하고 투박한 이 집주인 로인의 그 손길이 해방된 그해 모처럼 찾으신 만경대고향집에서 만져보셨던 무명나이, 농사일에 거칠어졌던 할머니의 험한 손길, 그것처럼 이상하게도 부드럽게만 느껴지시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민의 아들된 자신의 행복을 느끼시였다. 그래서 인민! 우리 인민!...하고 마음속으로 뜨겁게 불러보시였다. 그들의 하루하루는 역사를 창조해가는 하루하루라고 생각하시였다.

《... 진흙을 바르고 도배를 한 농가의 담벽냄새, 집안에 배인 구수한 토장내, 부엌아궁이에서 장작이 탁탁 튀는 소리, 생나무의 웅이에서 송진이 끓는 소리...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농가의 독특한 향취》에 한껏 취해보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시는 사색의 세계—명목적인 운동이란 사회주의하에서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당과 수령의 정도는 필연적이며 인민대중을 사회주

의건설에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것이 운명적인 문제로 나선다. 한가정의 운명은 아버지에게 달려있고 사회주의국가의 운명은 수령에게 달려있다. 수령은 한순간도 사색과 탐구와 활동을 멈출 권리가 없다. 인민이 수령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겼기에!...

자랑스럽게 안겨오는 《우리의 농민, 우리의 인민!》의 모습...

이 감동적인 형상에는 작품이 제기한 근본문제, 종자에 대한 더없이 심오하고 생동한 사상에술적해답이 주어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창조하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빛나게 실현되어 마침내 주체49(1960)년 가을에는 최고수확년도인 주체47(1958)년을 통과하는 대풍이 들었다. 황금들판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노래를 조용히 부르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모습은 그 얼마나 거인적인가.

이렇듯 소설은 그대로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사무치게 애가 끌리는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며 인민을 불러일으켜 혁명을 승리해나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한없는 위대성에 대한 영원불멸의 화폭인것이다.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청산벌》이 이룩한 사상에술적성공과는 또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창조과정을 위대한 수령님과 운명적으로 련결된 아름다운 새 인간들의 탄생, 성장과정으로 감명깊게 형상함으로써 작품을 참된 인간학으로 되게 한데 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서 기본은 웃기판이 아래 기판을 도와주고 웃사람이 아래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청산리사람들속에 들어가 이 지도방법을 창조하시는 과정에 인민들과 더 깊은 혈연의 정을 맺고 그들을 참된 혁명가로 키우시는 뜻깊은 생활을 인간학적으로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잊을수 없는 인연을 맺으신 이 사람들속에는 청산리의 모범농민인 리종수와 그의 아버지 리준형, 그의 아들인 1초급당단체위원장 리춘권, 그의 딸인 프락뜨로운전수 리춘심 등 3대일가를 비롯하여 청산리관리위원장 장영덕, 관리부위원장 김명배, 청산리당위원장 유근재, 1작업반장 문영숙, 2작업반장 최인서 등이 있으며 우로는당과 국가앞에 농업을 책임진 일군인 당중앙위원회 농업부장 김만금, 농업상 함의선, 농업성 부상 최영길 등이 있다.

소설은 특히 작품의 주요인물인 리종수와 김만금의 형상을 잘 그리는데 특별한 힘을 기울였다.

작품의 주요인물인 리종수는 일제시기 빈농출신으로 해방후 토지를 분여받고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나라 모범농민의 훌륭한 전형이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가 완성되고 경제건설에서 거대한 전변이 일어나고있던 이 시기의 농민전형을 훌륭히 창조한것은 소설의 큰 성과이다.

청산리협동농장 관리위원인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여러차례 만나뵈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음로당원이며 우리 당의 핵심인 전사자가족으로서 전시생산에 한몸 바쳐 투쟁한 다수확농민이며 협동조합에 선참으로 들어와 언제나 조합일에 앞장섰다.

그가 남 다 자는 깊은 밤 비물에 씻겨 무너져 나간 발귀때기를 남모르게 메꾸고 강냉이포기를 정성껏 떠옮기는 장면, 폭사자가족으로 혼자 사는 강옥숙이네 집에 딸나무를 해다주는 장면 등은 그대로 그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들여다보게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그에게 특별한 애착을 느끼시고 그 일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부어 주시였다.

청산리에 나오시여 누구보다 먼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부터 찾으시여 소박한 방에도 허물없이 들어가 살림현황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 손수 쌀독까지 열어보신 아버지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그가 일을 무리하게 하여 쓰러졌을 때에는 친히 유능한 의사까지 보내시고 병문안까지 하시였으며 그가 완쾌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소겨리반, 품앗이반이 좋다는 그의 의견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가지 농사일도 의논하시였다. 하여 너무도 평범한 농민의 생각과 의견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라는 그 창조에 이바지를 하였던것이다.

소설은 그러한것을 특히 조합의 농사일을 제일처럼 걱정하는 농민에게서만 진심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하시며 주체48(1959)년의 잘되지 않은 농사작황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장면에서 참으로 가슴뜨겁게 그려졌다.

리종수로인은 모든게 다 저희들이 농사군의 본분을 지키지 못했타이라고 하며 너무도 죄송스러워 머리를 들지 못하는데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오히려 《로인님, 진실을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진짜 실농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이러한 리종수로인을 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가슴뜨겁게 하시게 되는 생각.

《…

얼마나 진실하고 절절한 량심의 목소리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슴이 뜨거워나시였다. 이와 같은 농민들이 대지에 두발을 딛고 굳건히 서서 당을 받들어왔기에 전쟁과 전후의 그 어려운 시련도 이겨낼수 있었고 농촌정리의 사회주의적협동화의 력사적승리도 이룩하였다. 올해에 조합이 커진데 맞게 일꾼들이 관리운영사업을 잘 못해 농사를 썩 잘 짓지 못했지만 이처럼 땅에 충실하고 땅처럼 속일줄 모르며 진실하고 성실한 농민들이 있기에 잘못된것은 바로잡히고 우리 농촌의 앞날은 담보되는것이다. …》

이 감동적인 형상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야말로 수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의 응결체, 위대한 《이민위천》의 산아임을 궁지높이 증언하는 동시에 이 나라에서는 위대한 위인의 품속에서 그리도 평범한 수천만의 사람들이 위대한 인간으로 탄생하고 성장하고있다는것을 생동한 현실로 보여주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수령을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에서만 꽃필수 있는 인간만세의 화폭인것이다.

소설에 그려진 당중앙위원회 농업부장(한때 농업상도 겸임.) 김만금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키우신 우리 당 지도일군의 훌륭한 전형이다.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교서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 능숙한 지도능력 등 그가 체현하고있는 성격적특질은 당시는 물론 언제나 지도문제가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오늘날도 커다란 교양적의의를 가진다.

일제때 막돌같은 존재로 《안주싸움군》으로 소문났던 김만금은 해방후부터 아버지수령님의 손길아래 체계적으로 성장한 일꾼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결합도 있고 능력도 부족했던 그를 애지중지 심혈을 기울여 이렇듯 훌륭한 지휘일꾼으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만금이 《풍년축구경기》가 조직된것을 알고도 묵인한 엄중한 결합을 두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겠다고, 동무들이 나의 의도를 받들고 나와 보조를 맞추어 같이 해야지 내가 혼자서 지도할수 있는가고 참으로 가슴아픈 질책을 하시였다.

이처럼 귀한 자식 매로 키우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속에서 그는 인민의 사랑을 받는 인민의 총복으로 자라난것이다.

우리 인민에게 잘 알려진 실재한 원형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이 형상은 더욱 실감있게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새로 탄생한 일꾼들 중에는 긍정인물의 전형들뿐아니라 그 은혜로운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속에 지난날의 엄중한 파오와허물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갱생의 길에 들어서는 농업상 합의선과 농업성 부상 최영길의 교훈적성격도 있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은 송가문학과 백두산전설에서부터 시작되였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수령을 노래한 혁명적인 가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동지들이 이 노래를 짓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토록 사양하고 막으시였으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끝끝내 이 노래를 완성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스스로의 충동과 념원에 의하여 창작되었다면 백두산전설은 인민들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창작되었다. 백두산전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들속에서 창작되고 전해진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유격대에 대한 구전작품이다. 수령님을 형상한 수많은 전설이 창조되어 백두산전설군을 이룬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당시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에 넘치고 열광적이였는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농업상 함의선은 기계타령만 하고 앉아서 기계화가 《엠페에쓰》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사회주의 농촌경리의 발전을 기대할수 없고 큰 규모의 협동경리가 실패할수도 있다고 하면서 당정책에 대해 의심하고 신심을 갖지 못하는 패배주의자, 교조주의자의 전형이다.

그에게는 산이 대다수인 조선의 땅이 낯설었다. 소련에서 농촌경리의 집단화와 공업화를 겪으면서 공부하고 일했던 그의 눈에는 지평선너머로 아득히 사라져간 밭이랑들, 끝간데를 알수 없는 초원들, 그 넓은 전야에서 트랙토르들이 우르렁거리며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콤포비인들이 밭을 수확하고 자동차들이 줄지어 난알을 나르는 꼴호가 늘 눈에 떠올랐다. 그는 지어 논농사를 집어치우고 밭농사를 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그에게 우리의 현실은 30년대의 소련의 실정과도 다르고 오늘의 소련과는 더욱 다르다, 우리의 현실은 자기의력사적구체성을 가지고있다고 엄하게 비판도 하고 일깨워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중요한것은 사람이다, 기계화수준이 낮다 해도 개인농경리나 소규모협동경리보다 우월한 대규모협동경리를 얼마든지 잘 운영해나갈수 있다, 문제는 지도일군들이 어떻게 대중을 조직동원하며 대중이 어떻게 열거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농업성부상 최영길은 혹독한 관료주의자, 형식주의자의 전형이다.

그는 개인농경리가 있을 때에는 개인농이 제멋대로 농사를 지었기때문에 장악통제하기가 어려웠지만 오늘과 같이 협동조합의 규모가 커지고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유일관리제를 하게 된 유리한 조건에서는 강하게 장악통제만 하면 농사일이 다 잘된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아래실정과는 관계없이 할수도 없는 계획을 망탕 내려먹이곤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진하는 길에서 이런 결함을 나타냈다고 하여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였으며 변함없이 넓은 품에 안아 갱생의 길을 열어주

시고 새 인간의 탄생을 불러오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오래동안 이국풍토에 몸을 잠그고있으면서도 때없이 조국을 그리던 함의선의 애국적량심, 특히는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의 참혹한 현실에 부닥쳐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고 진정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고 당의 옳바른 령도가 없으면 강력한 물질기술적수단도 은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물질기술적수단만을 우선시했던 자기의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하는 함의선의 개심, 그것을 그리도 소중히 여기시여 사대주의적인 사고에 빠졌던 함의선이 우리 당의 정책을 정확히 인식한것은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하시며 그의 생활형편을 료해하고 말년을 불편없이 보내도록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최영길이 농촌현실속에 들어가 자기를 혁명적으로 단련하고 로동속에서 결함을 고쳤다라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앞으로 협동경리를 기업적방법으로 지도하는 문제를 자신께서 연구하고있는데 그러자면 농업전문가이며 행정일군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며 그를 소환하여 큰일을 맡기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정녕 아버이수령님의 품은잘난 자식, 못난 자식을 차별하지 않고 병신자식에게 오히려 더 원심을 쓰는 어머니의 품과 같이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그 누구도 가림이 없이 품어주어 개조해주는 위대한 태양의 품이다.

하여 그들의 형상은 오늘도 부분적이기는 하나 패배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일군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뿐아니라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이민위전》리념의 무한대한 힘과 진리성을 힘있게 확인해준다.

참으로 총서 《불멸의 력사》장편소설 《청산벌》은 그 커다란 사상예술적성격과 하여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거창한 창조사, 《이민위전》리념의 승리에 대한 력사의 증견자로, 아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는 기념비적화폭으로 된다.

새해결의묵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글은 인민들을 당의 위업수행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인민들에게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사상적각오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게 하는 정신적량식으로 됩니다. 문필가들은 혁명의 필봉으로 당을 받드는 선군혁명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수령형상문학창조에 정열과 지혜를 다 바치겠다

4. 15 문학창작단 작가 《김일성상》 계관인 리동구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생각이 깊어집니다. 한살 더 불어나는 나이와 더불어 지난해 걸어온 생활로정을 돌이켜보고 새해의 희망과 결의를 새롭게 가다듬는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라 할것입니다. 저와 같이 머리에 백발을 얻은 늙은이들일수록 되새겨보는 지난해의 성과와 교훈, 새로이 품게 되는 희망과결의는 류달리 심각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생을 보다 보람있게 서둘러 살아야 하겠다는 자각이 깊어지기때문입니다. 흔히 달리기선수들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주로의 어느 구간을 달릴 때보다 자기의 있는 힘을 다 낸다고 합니다. 인생의 주로를 달리는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후회없이 한생을 마무리하고싶은것은 로년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이라 할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장정의 길을 마음속으로 걸음걸음 따르면서 창작의 나날을 보람차게 걸어왔습니다.

《김일성상》계관인들인 백보흠, 김삼복, 정기종, 백남룡동무들은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들인 《청산별》, 《불》, 《봄의 서곡》과 강반석어머님을 형상한 장편소설 《새날을 불러》(상)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창작단의 앙양된 분위기에 고무되어 저도 여러 동무들과 지혜를 합쳐 장편소설 《별들은 빛난다》를 창작하였습니다.

지난해의 창작을 돌이켜볼 때 저는 긍지감보다 후회와 아쉬움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저희들이 쓴 소설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어머님께서 해방후 건군위업에 헌신하신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창작을 준비하면서 어머님의 혁명사적을 연구할 때 저는 내처 커다란 흥분에 사로잡혀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새롭게 알게 된 감격적인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연들이 담고있는 어머님의 위인적인 품모에 완전히 매혹되었던것입니다. 그러나 출판에 넘긴 소설의 형상은 실지로 어머님께서 지니신 위인적인 품모의 몇분의 일도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무능을 두고 가슴

을 찔습니다.

지난해 언젠가 혁명렬사릉을 찾아서 김정숙어머님의 반신상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불쑥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서 죄스러운 감정이 치밀어올랐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해방후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으시고 건군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생동하고 훌륭하게 그려내지 못한 이 못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깊이 머리속여 용서를 빌었습니다.

새해에는 참말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새해공동사설을 불타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우리 창작단의 작가들은 올해에도 수령형상문학창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창작단에서는 장편소설들인 《너성의 노래》(이하 가제), 《영원한 별》, 《청춘대학》을 비롯한 여러편의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게 될것입니다.

저는 올해에 장편소설 《성지》(가제)를 완성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이 땅에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영원히 흐르도록 하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지난 시기 몇편의 장편소설들을 써본 경험이 있는 저이지만 이번 작품의 창작은 특별히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목표를 세우고보니 비좁은 가슴에 큰 산을 안은듯 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청춘의 활기를 되찾고 피타는 탐구의 노력으로 재능의 부족을 메꾸면서 기어이 완성해보렵니다. 여러해전부터 창작을 해오던 작품이여서 더는 미룰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창작의 주로를 달리다가 숨이 진다 해도 늙은이 몸의 최후의 기력과 정열을다하였다고 자인할수 있다면 량심의 한됨은 없을것입니다. 아름답고 목표를 세운 저는 지금 비장한 감정에 떠밀리우고있습니다. 달리기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볼 때의 심정으로 새해의 하루하루를 주름잡아 붓을 달릴것입니다. 하여 수령형상문학의 전초선에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시대의 거울로

소설가 정영종

기쁨과 희망, 포부로 맞는것이 새해라지만 나의 경우는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온몸이 팽팽히 켜져있다. 왜냐하면 지난해 인민생활향상에 선차적힘을 넣을데 대한 공동사설을 받들고 어느 한 군인민위원장을 형상한 증편소설 《거울》(가제)을 창작하느라 해가 끝나는 마감날까지 숨가쁜 경주를 한터여서 지칠대로 지쳐버린것이다. 그리고도 당이 바라는 높이의 명작으로 완성 못한 부끄러움때문에 위축감을 물리칠수 없는 상태이기도 했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하여 《삼복철강행군》이라는 눈물겨운 혁명실록까지 남기신 지난해의 헌신의 선군장정길에 내가 창작적열정과 실력이라는 큰 걸음으로 따라서지 못했다는 죄스러운 증거였다.

하다면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강성대국건설의 보다 큰 도약이 이룩될 환희로운 이 새해의 《경주》에서는 내가 과연 성과작 소설창작이라는 《결승테프》를 남먼저 끌어낼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소설문단의 적지 않은 작가들이 지난해에 왕성한 주력으로 독자들의 호평을 받는 성과작 장편소설창작이라는 결승선에 속속 들어섰다. 그런 작품들은 레외없이 현실체험을 깊이 한 작가들의 손에 의하여 씌여졌다. 특히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을 위한 불철주야의 선군장정길에 마음도 걸음도 따라세운 시대의 기수들의 생활에 깊이 침투하여 자신들부터 땅냄새, 기름냄새가 나는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거

울》로 되였었다. 이러한 꾸밈없는 거울속에 벽찬 우리 시대가 그대로 진실하게 투영되지 않을수 없은것이다.

지난해의 나의 숨찬 걸음, 그것이 현실체험이라는 왕성한 《주력》이 딸린데 기인되였다는것은 증편소설 《거울》(초고)의 료독자들이 진실감이 덜하다고 평한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력을 거둬 들여 추고작업을 해왔던가.

공화국창건 60돐이 되는 뜻깊은 새해는 더욱 무겁고 값진 짐을 지고 정력적으로 내달려야 할 험치 않은 경주가 기다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 따라 강성대국의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될 우리 인민에게 정신적자양분이 되고 윤택유가 될 혁명적인 소설을 안겨주어야 할 경주가!

그러므로 웅당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긴장감으로 온 몸을 활시위처럼 팽팽히 다잡아야 할것이다. 하면서도 내 가슴속에서는 의욕이 들끓는다.

잡도리를 단단히 하자, 내가 올해 현실체험지로 정한 어느 한 광산생활에 깊이 몸을 잠그어 원형을 그대로 닮은 《거울》로 자신을 잘 닦아나가자. 하여 선군시대의 선구자를 진실하게 형상한 장편소설을 훌륭히 창작완성하는 성과를 안고 남먼저 승리의 결승선에 들어서자!... 이것이 새해를 맞으며 내가 다지는 결의이며 독자들앞에 하는 무거운 약속이다.

젊어지자, 나의 시여

시인 리연희

《설날이면 제일 먼저 먹는게 무얼가?》
《?》

《한살 더 먹는 나이란다.》 언니가 묻고 대답해주는 수수께끼를 들으며 즐거움게 기다려지던 새해. 그런 소녀시절로부터 어느덧 처녀시절도 지나고 오늘은 내 나이 마흔이 되였다.

이제는 서둘러 찾아오는 새해와 새해를 맞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젊어지야 할 나의 목소리, 나의 시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젊어지고 또 젊어지자!

이것은 누구나가 다 가지는 인생의 욕심이 아니라 창작을 사명으로 하는 시대의 가수로서의 나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새것에 대한 열렬한 지향, 새것에 대한 지칠줄 모르는 탐구, 새것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젊음이 아닐가?!

나는 젊어지고싶다.

오늘도 새로운 소재를 찾아 새로운 내용의 새로운 형식을 찾아 창작의 길을 강행군으로 헤쳐

가고싶은것이 나의 욕심이며 새해의 나의 결심이다.

새것을 찾아 현실속으로, 새것을 찾아 사색과 창작의 낮과 밤으로 이어가야 할 365일.

그날과 달중에는 공화국창건 60돐이 되는 뜻깊은 날도 있다.

어머니조국의 생일에 나는 무엇을 드릴수 있을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선군의 길을 걸으며 천만시련과 고난을 다 헤치여 불타는 혁명의 상상봉우에 선 어머니! 성스런 그 모습에 나는 진정 나의 젊음을 드리고싶다.

소박하나 새로운 진실로, 애국으로 뜨거운 열정을 새로운 운물에 담아 나의 노래, 나의 시를 드리고싶다.

젊어지자, 새해여 나의 시여!

위대한 어머니조국에 바치자, 나의 젊음을!

작품창작을 선도할수 있는 우수한 평론을!

평론가 리창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95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고 선군의 위용이 온 세상에 파시된 지난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고 보니 생각이 저절로 깊어진다.

지난해에 나의 평론창작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부족점은 무엇이였는가. 또 새로운 승리의 신심넘치는 공동사설을 받아안은 새해에는 어떤 평론을 써서 문단에 기여하겠는가. ...

돌이켜보면 60나이 하반기에 이른 나는 《문학신문》지상에 첫 평론을 발표한 때로부터 어언 43년세월을 지내보내면서 적지 않은 평론을 창작하였으나 그중 몇편만이 기억에 생생할뿐 나머지는 창작년대며 똑바른 제목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다. 뒤늦은 뉘우침이라고도 할수 있다. 하지만 신들메를 더 든든히 매고 새해에는 더힘찬 진군을 다그쳐 우리 공화국창건 60돐을 평론창작의 커다란 성과로 뜻깊게 맞이하겠다.

새해에는 작품의 생리와 작가의 창작의도를 더 깊이 파악하고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이론에 근거하여 창작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실리가 있는 평론, 작가들이 공감할수 있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민감한 평론을 쓰는데 보다 큰힘을 돌리겠다. 많이 읽고 깊이 연구하고 작가들과 함께 현실체험도 하면서 내가 쓴 한편한편의 평론이 창작을 선도할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질을 보장한것으로 되게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

계획은 방대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나는 하하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과 의지로 살며 일해나가겠다.

또한 나는 평론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론가들, 작가들과 하나의 작품을 두고서도 논의를 거듭하여 작품평가에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우리 당 문예정책에 톤튼히 의거하여 평론의 당정책대를 확고히 세워나가겠다.

가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외 1 편)

신문호

새벽이슬 헤칠 때도 인민을 위해
깊은 밤길 걸을 때도 인민을 위해
인민들의 살림살이 주인이 되어
구슬땀을 바쳐가는 그런 사람 못 잊어
아 장군님뜻대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기쁜 일이 생기여도 인민들 먼저
힘든 일이 생기며는 자신이 먼저
팔을 걷고 몸 내대는 충복이 되어

이신작척 앞장서는 그런 사람 미더워
아 장군님뜻대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인민들을 꽃방석에 앉히려는 맘
진펄길도 가시밭도 앞서 헤치네
인민 위한 한길에서 락을 찾으며
장군님 났아가는 그런 사람 존경해
아 장군님뜻대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장군님의 선군동지가

동지란 그 이름 다정히 부를 때면
서로의 가슴은 행복에 설렌다네
태양의 꽃으로 한품에 붉게 피는
나는 너 너는 나 신념의 동지라네
아 한맘한뜻 운명 같이할 장군님의 선군동지

동지의 그 사랑 심장에 안고가면
천리도 지척이요 고난도 락이 되네
태양의 전사로 그 뜻만 빛내가는

나는 너 너는 나 열혈의 동지라네
아 한맘한뜻 운명 같이할 장군님의 선군동지

동지의 그 맹세 총처럼 변함없어
선군의 한길에서 위훈을 새겨가네
태양의 위성으로 한생을 빛내가는
나는 너 너는 나 영원한 동지라네
아 한맘한뜻 운명 같이할 장군님의 선군동지

팽이채소리

김경철

오늘은 설날이다.

나는 해마다 그러했듯이 이 아침도 대동강가로 걸음을 옮겼다.

뛰니뛰니해도 볼만 한 설풍경은 아이들의 놀이터에 비껴있는 법이다. 그 모습을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설풍경을 말할수 있겠는가.

홀려간 유년시절이 옛그제같은데 벌써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다시 설기분에 들뜬 아이들속에 휩쓸려보니 마음은 어언 스눈갈이 깨끗한 동심에 잠기는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

해가 퍼지기 바쁘게 곱게 설빔한 아이들이 오구작작 모여들어 팽이치기와 썰매타기에 여념이 없다.

그런가 하면 어디선가 날아온 하얀 연들이 땡기같은 흰 꼬리를 휘저으며 겨금내기로 키돋음을 하여 대동강반은 삼시에 아이들의 유희로 하늘땅이 엇갈려도는것만 같았다.

이 땅, 이 하늘아래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설날의 풍경이다.

문득 귀에 익은 노래소리도 들려온다.

돌아보니 한쪽에서는 팽이치기가 한창 열기를 띠고있다. 웃머리가 고깔모양인 말팽이도 있고 아래우가 다 원추모양으로 생겨 아무쪽으로나 돌릴수 있는 장고팽이도 있다. 또한 팽이허리를 오목오목하게 홈을 내어 곱게 색까지 입힌 줄팽이도 있고 바가지 조각이나 비닐수지를 동그랗게 오려 가운데 구멍을 낸 다음 거기에 나무꼬챙이를 꽂아 만든 바가지팽이도 있다. 어떤 애들은 팽이머리중심에 홈을 내고는 마른 쑥을 꾹꾹 다져넣고 불을 달아 연기를 물물 피워올리며 멋을 내기도 했다. 룡각형이 되게 팽이를 깎아 매 면마다 수자를 써넣은 수자팽이도 보인다.

팽이놀이도 여러가지였다. 편을 갈라 팽이채로 팽이를 몰아가며 이어달리기경기를 하는가 하면 다른쪽에서는 어느 팽이가 넘어지지 않고 오래도는가에 따라 승부를 가르는 놀이도 하고있다.

곳곳에서 울리는 랑랑한 웃음소리, 그속에서 휘둘러대는 갖가지팽이채들은 마치 금방 화원에서 풍겨난 나비떼 같았다.

《팽이치는 풍습은 예이제나 변함이 없군.》

나의 옆에 서있던 이국풍의 한 로인이 허열계

서리불린 눈섭을 습벽이며 뉘게라없이 하는 말이였다.

알고보니 그는 일찌기 조국땅을 떠나 현재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가구업을 하는데 이번에 기업거래차로 조국에 왔다는것이다. 그는 일곱살 잡히던 해 겨울 북해도의 어느 한 탄광에 가있던 아버지가 락반사고로 사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받고 어머니의 치마자락에 매달려 조국과 결별했다고 한다.

《이국땅에 가보니 내 주머니에 남은건 고향에서 가지고 놀던 팽이밖에 없습데다. 그마저 함께 놀 아이가 없어 나는 유년시절과 너무도 때이르게 작별했지요. 하지만 늘 마음속에 울리는 팽이채소리야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유럽으로, 거기서 다시 아메리카주로 지구를 빙 돌면서 살다싶이 했지만 매번 그 소리가 나를 떠밀어 조국에 오군 하지요. ...》

로인은 현현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나에게는 그 말이 무심히 들리지 않았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거쳤을 유년시절의 손에 익고 눈에 익은 민속놀이. 민족이 생겨 수수천년 오랜 세월 년년이 이어와 이 땅에 토착되어 버린 팽이치기를 어떻게 잊을수 있겠는가.

그것은 단순한 유희이기 전에 어린 동심의 흰 눈갈이 깨끗한 가슴속에 심어지는 민족의 소중한 녀과 열인것이다. 하기에 팽이채소리는 세월의 모진 비바람을 타고 만리타향의 거치른 땅에 떨어져 살아도 자기의 고유한 음향을 끊임없이 되 울려주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인지 나에게는 대동강반에서 편이어 울려오는 팽이채소리가 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그 소리는 마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녀을 대를 이어 이 땅에 더 깊이 심어가는 무수한 씨앗들의 휘뿌림소리로 끊임없이 승화되어 들려오는것 같았다.

그 소리를 구가하듯 팽이채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세차게 들려왔다.

참으로생각도 많고 가슴도 뻗듯해지는 설날의 이채로운 풍경이였다.

단편소설



약초

송출언

따르릉...

나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성학규선생님니까, 제 양덕군사람입니다.》

《양덕군? 누구신지?》

《전번달에 사리원에서 만났던... 선생님의 얼굴 색이 좋지 않다고 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우리 고장에 선생님의 건강에 필요한 약초가 있으니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생각나오.》

《그런데 선생님, 이 약초를 어떻게 보낼가요?》
《?!》

뜻밖의 일이라 나 자신도 선뜻 무슨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약초를 가지러 여기 개성에서 양덕까지 가야 하는데 그 먼길을 다녀올 일이 난감했기 때문이다.

《내 받은셈치겠으니 거기서 누가 쓰도록 합시다. 동무의 그 성의를 내 정말 잊지 않겠소.》

《선생님, 섭섭합니다. 병은 미연에 방지해야지 일단 병이 나면 그땐 원상회복하기가 힘들지요. 선생님이 인차 평양에 가실 일은 없습니까? 우리 동무가 며칠내에 평양에 출장가는데 그 인편에 보낼가 합니다. 당장 평양에 가실 일이 없으면 친척집이나 어느 아는 집이라도...》

보통대기가 아니다. 기어코 약초를 보내려고 한다. 그 순간 나의 머리에는 번개치듯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의 성의를 마다하면 안되지.

《평양에 내 친척집은 없는데 우리 웃기관 국장 동무네 집이 있소. 그 집에 가져다놓으면 되긴 하오.》

나는 국장네 집주소를 대주었다.

《가만, 동무 이름이 뭐요?》

그러나 전화는 이미 끊어졌다. 나는 송수화기를 쥔채 한동안 굳어있듯 서있었다.

어느덧 나의 머리속에서는 그때 있었던 일이 우뚝이 떠올랐다.

...교육비품때문에 출장을 갔다오던 나는 얼마 길을 축내지 못한채 어느 농촌마을어귀에 들어섰다. 중복을 앞둔 때라 여간만 덤지 않았다.

해빛이 머리를 따갑게 지쳐대고 땅은 금시 불덩어리가 된듯 확확 열기를 내뿜었다.

등골과 이마로 땀이 줄지어 내렸다.

논둑에 심어놓은 콩들이 데쳐진듯 후줄근히 잎새를 늘어뜨리었다. 그밑에 개구리들이 숨어있다 가 인기척에 놀라 논물에 뛰어든다.

길옆에는 큰 느티나무 하나가 서있었다.

그늘을 찾아든 길손들이 몇명 땀을 들이고있었다. 농립모를 벗어 부채질하는 늙은이, 앞섶을 헤쳐놓고 랑불을 뿔처럼 불구었다가 내뿜으며 숨을 쉬는 젊은이, 이마에 송골송골 내뿜는 땀방울을 하얀 수건으로 꼭꼭 짊어내는 아릿다운 처녀...

가지고있는 짐도 각양각색이다.

《손님도 시내에까지 가는가요?》

로인이 묻는 말이다.

《예. 시내에 가서도 렬차를 타고 개성까지 가야 하지요. 차시간까지 역에 도착하겠는지 원.》

나는 나무아래 풀밭에 엎어질듯 주저앉으며 대답했다. 저절로 한숨이 나갔다.

《손님은 밤차로 내려가는데 낮겠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한것 같은데.》

《?》

구리빛의 퉁퉁한 얼굴에 우람한 몸집을 가진 건장해 보이는 청년의 말에 나는 자못 놀랐다. 나는 지금까지 별로 앓아 본 일이 없었다.

요즘 소화가 잘 안되면서 입맛을 좀 잃긴 했어도 날이 무더우면 그럴수도 있지 않는가.

《얼굴색을 보니 소화기계통이 든든한것 같지 못합니다.》

청년의 말에 옆에 앉아있던 길손들이 저마다 걱정해주며 좋다는 약방문을 내놓는다.

《너무 걱정하실것 없습니다. 내가 사는 고장에

명약이 하나 있습니다. ××라는 약초인데 그 약재를 쓰고 속병이 깨끗이 나은 사람들이 많답니다.》

《원, 저런.》

《나도 한번 써보고싶군.》

저마다 호기심에 동해 이것저것 물어본다.

《예로부터 약이란 건강을 보하고 혈기를 돌구는 것이거늘 사경에 처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약이 아닌가. 이 사람, 그 약재를 꼭 써보라구. 여러 사람들이 효력을 본걸 봐선 귀한 약재가 분명하네.》

로인의 말에 모두가 권고한다.

《한번 오십시오. 아니 오실것없이 내가 약초를 캐서 보내드리지요. 손님의 이름과 집주소를 좀 대주십시오.》

나는 청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중학교 교원이라는 것도 알려주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았다. 길가에서 우연히 잠깐 만난 사람의 그런 넘려만도 고맙게 여겼을 뿐이다. 그래서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다. 더우기 집에 와서부터는 소화도 잘되고 몸상태가 아무런 변화도 없기에 그때 있었던 일은 감감 잊고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참으로 고마운 청년이었다.

×

《민주조선》 기자 유영준은 오늘 미국에서 온 《××타임스》 기자와 동행하게 되어 그를 만나러 고려호텔로 떠났다.

미국에서 왔다는 그 기자는 재미교포였다. 남조선에서 살다가 해외에 건너가서 예리한 문필활동으로 《독수리부리》라는 별명으로 소문을 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몇해전 우리 나라에 와보고 이런 글을 썼었다.

북조선의 붉은기는 계속 날릴 수 있는가?

크레믈리하늘가에 휘날리던 붉은기가 내려지자련이여 내리워진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붉은기, 그때부터 어려해가 지났으나 계속 휘날리는 붉은기가 있으니 그것은 동방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붉은기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제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내리워질것으로 서방은 예측하며 떠돌고있다. 미합중국의 주도하에 여러 나라들에서 벌리는 고립과 압살, 전쟁점경으로 치달는 일촉즉발의 정세, 련속되는 자연재해, 그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이런 형편에서 자기의 존재를 지킨다는 것은 맹렬한 판단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무시할수 없는것이다. ...

이번에 그는 우리 나라의 통일과 관련한 의의 있는 글을 써보겠다고 각 대상들에 대한 취재를

품들여 하고있었다. 오늘 그는 취재대상중의 마지막일정으로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구축해놓은 콩크리트장벽을 보겠다면서 유영준과의 동행을 요청했던것이다.

승용차가 호텔앞에 멎어섰을 때 그가 마침 문밖을 나서고있었다.

키는 별로 크지 않았으나 실하게 생긴 몸집에 회색빛겉옷을 입고 검은 중절모를 쓴 반백의 늙은이였다.

유영준은 그와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랐다.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인 푸른 하늘을 치뿔듯 높이 서있는 고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넓은 도로로 승용차는 나는듯이 질주했다.

궤도전차들이 부지런히 오가고 활기에 넘친 사람들의 물결이 그칠줄 모르는 수도의 거리, 여기 저기 나붙어있는 대형구호판들과 선전화들...

교포기자는 감심한 표정을 지은채 멀리 앞쪽만 내다보고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차창밖 어느 한 곳에 눈길을 주었다.

길옆에 세워져있는 그리 크지 않은 선전판이였다. 《장군님식솔》이라고 써여져있었다.

《한집안식솔이라는 소리데. ...》

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의자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것일까? 혹시 또 그 어떤 뽀족한 흠집을 찾는것은 아닐까?...

갑자기 그가 눈을 번쩍 뜨며 영준에게 말했다.

《유선생, 내가 이번에 조국에 와서 제일 좋다고 생각한것은... 음, 뭐랄까... 참, 고요한 뒤동산 같다는거요.》

고요한 뒤동산이라니? 그가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 와서 받은 인상이라는것이 고작 그것이란 말인가. 그 옛날 우리 민요에 나오군 하던 고요한 동네... 북송아꽃 살구꽃 피는 고장?...

그의 눈에는 왜 우리 조국의 들끓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가. 이미 여러날 체류하는 기간 공장과 농촌들을 찾아다니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들끓는 현실을 직접 보았겠는데...

《참, 좋소. 여기와서 부턴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자거든.》

그는 제깍에 흥겨워 말한다.

영준은 쓴웃음을 다시였다.

이때 거리 한쪽으로 긴 자동차행렬이 지나가고 있었다. 목재, 세멘트, 건설자재들이 가득 실려있었다.

적재함마다 구호판들을 매달았다.

《총대중시》

《모두다 경제강국건설에로!》

《×××발전소 건설을 적극 지원하자!》

교포기자는 자동차행렬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저건 공짜로 바치는건가요?》

《바치는것이 아니라 지원이지요.》

《음,그렇다. ... 가는 길에 우리도 그 발전소를 찾아가보면 좋겠는데. ...》

영준은 마침 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창조로 들끓는 우리 조국의 모습을 보여줄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하지요.》

승용차는 시내를 벗어나 들길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눈길이 모자라게 펼쳐진 푸른 논벌이 끝없이 파도친다.

한참 달리는데 앞에 웬 중년의 남자가 차를 세워달라고 손을 들고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운전사가 그 사람 가까이에서 차를 멈춰세웠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옆에는 판자로 만든 네모난 함통이 놓여있었는데 흙이 차있는 거기에 무슨 풀 같은것이 자라고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영준은 차창을 내다보며 물었다.

《개성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약초를 급히 보낼 일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발전소건설장에 들렀다 가야 합니다. 여기 해외에서 온 기자선생과 함께...》

《아, 그래요. 다른 차편에 부탁해보지요.》

그는 정중히 레의를 표시하고는 인차 물러섰다.

멀어져가는 그를 보며 교포기자가 한마디 했다.

《함통까지 만들어 멀리 가져가는걸 보니 보통 약초가 아닌 모양이구만.》

《글쎄요.》

승용차는 한시간정도 달려서 발전소건설장에도착하였다. 둔중한 기계소리, 용접불꽃이 튀는 언제우로 물동을 나르는 불전기재들, 콩크리트다짐을 하는 건설자들...

맞은켠 산허리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자는 내용의 대형구호판이 서있었다.

어데를 둘러보나 들끓는 모습이다.

양덕에서 시작하여 장장 흘러온 물이 여기에서 흐름을 멈추었다. 수십미터의 높이로 거연히 솟아난 언제가 소용돌이치는 물을 막아 이곳에 큰 《바다》를 만들어놓았다.

《좀 비켜주십시오.》

뒤에서 맞들이를 들고 뛰어오던 청년들의 말이다. 급히 한옆으로 비켜서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경적소리가 울린다.

《허, 이거 안되겠습니다. 저쪽으로 썩 비켜서이지.》

영준은 교포기자를 이끌고 한쪽으로 나섰다.

교포기자는 가까이에서 줄땀을 철철 흘리며 일하는 한 청년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일하면 하루에 얼마만한 돈을 지불받소?》

순간 청년은 의아한 눈길로 그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교포기자는 제격 그의 눈치를 알아챘다.

《아, 나는 미국에서 온 기자요.》

그제야 청년은 서글서글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우린 돈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조국이 부흥해지면 우리도 잘살게 된다는 생각으로 일할뿐이지요.》

청년은 다시 삽질을 시작했다.

교포기자는 알수 없다는듯 머리를 기웃거렸다. ...

그들은 한참후에야 다시 차에 올랐다.

《감상이 어떻습니까?》

영준은 그에게 물었다.

《나라가 들끓는다는 생각이 나오.》

《그런데도 <고요한 뒤동산> 같다구요?》

《음?...》

《그 옛날 목가적인 향취가 풍기는 시대에 비유했으니 말입니다.》

순간 그는 무릎을 탁 쳤다.

《아하— 이거 무엇인가 오해하고있군. 오해 말이지요.》

《오해라니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요. 사실 내가 사는 미국에서는 밤잠을 제대로 잘수가 없소.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네 집에 강도가 뛰어들어 재산을 털어갔대, 누가 총에 맞아 죽었대 하는 소문이 그칠 사이가 없소. 눈을 뜨고 깨어나면 오늘은 다행히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게 미국이란 말이지요. 내 기자생활 20년에 서방나라들을 비롯해서 안 돌아다닌 나라가 거의 없는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요.》

영준은 어지간히 놀랐다.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상상 못할 이야기였다.

그들은 서로 오해한것이 어이가 없어 껄껄거리며 웃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것은...》

교포기자는 자리를 고쳐앉으며 말했다.

《어떻게 되어 북조선사람들은 자기 령도자의 부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는가 하는거요.》

《그건 우리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지요.》

《그걸 모르겠거든. 그 원천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지.》

영준은 생각을 굴렸다. 그것을 어떻게 몇마디의 말로 석연히 리해시킬것인가?...

승용차는 한낮이 기울었을 무렵 강원도방향과 개성방향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 들어섰다. 바람을 좀 쏘이고 가려고 차를 대피선에 가져다 세우는데 앞에서 웬 할머니가 다가왔다.

《개성쪽으로 가는 차가 아니우?》

《예. 읍습니다.》

《마침이구려. 수고스러운대로 이걸 좀 실어다 주어야겠수다.》

명령조다.

《무엇입니까?》

《무슨 약초라고 하는데 저 양덕에서부터 평양, 사리원을 거쳐 오는거라우.》

《약초요?》

영준은 무엇인가 떠오르는 생각에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에 눈길을 돌렸다.

이때 옆에 있던 교포기자가 먼저 말했다.

《저게 평양에서 보았던 그 약초가 분명하오.》

그는 먼저 차문을 열고 나서더니 약초가 자라는 합통에 다가섰다.

《대관절 무슨 약초인지 사연이나 들어봅시다.》

교포기자는 차를 타고오기에 지쳤는지 풀판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이렇게 되어 할머니의 약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국장은 글을 쓰다말고 출입문을 열었다.

순간 그는 어지간히 놀랐다. 웬 젊은이가 큼직한 나무합통을 지고 서있었다.

얼굴이며 잔등이며 온통 땀으로 범벅이 되어있었다.

《국장동지이지시지요?》

《그렇소. 그런데 동문 누구데... 무슨 일로?...》

《양덕군에서 왔습니다. 이걸 약초입니다.》

《약초?... 무슨 약초인데?》

《전화를 못 받았습니까?》

《전화? 난 무슨 일인지 도무지...》

《분명 교육성 국장동지책이라고 했는데. ...》

《교육성 국장? 난 농업성 국장이요. 이 집에서 살던 교육성 국장은 얼마전에 이사를 갔소.》

《예? 어디로 말입니까?》

《동평양 어디라고 했는데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소.》

청년은 맥이 풀리는듯 한숨을 쉬더니 인사하고 돌아섰다. 국장은 방안에 들어와 책상에 놓인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국청사로 떠날 차비를 했다.

오늘중으로 시안의 영농사업과 관련된 협의회를 하고 가까운 지방에서 한창 진행중에 있는 중

요농촌건설대상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부지런히 일을 봐야 저때까지 끝낼수 있었다.

그는 급히 복도를 거쳐 현관을 나섰다.

다음순간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좁전에 찾아왔던 그 청년이 저쪽 공지에 약초함을 앞에 놓고 쭈그리고 앉아있는것이 아닌가.

《동문 아직 안 갔소?》

청년은 머리를 들고 국장을 바라본다.

몹시 피로하고 실망한 표정이다.

《전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동무가 힘들게 채취한 약초인데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당장 XX로 떠나야 한단말입니다.》

청년은 자기의 동무가 어느 길손과 약속했던 약초를 보낸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 무진애를 썼다는것이다. 해빛이 잘 스며들지 않는 골짜기 습한 곳에서 자라는데 그것을 캐자면 골짜기물이 흐르는 바위층을 넘나들어야 한다.

골이 깊다는것은 산이 높다라는것이다. 골짜기는 온통 바위투성인데다가 너무 깊어 어떤 곳은 몇길 잘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로 오르다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수도 있다. 자기의 동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날동안 이 약초를 채취했다고 한다.

청년의 말에 국장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무뎠해졌다. 청년을 도와주고픈 생각이 저절로 났다. 그렇지만...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회의시간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동무, 이렇게 하는게 어떻소? 동무의 사정을 봐선 당장이라두 내 승용차에 싣고 개성까지 가져다주고싶은데 보다싶이 그럴 경황이 없구만. 그래서 우리 청사로 가는 방향에 XX역이있는데 거기에 가서 개성까지 가는 손님에게 부탁하면 안될가?》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청년은 몇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편지봉투를 꺼내주었다.

거기에는 약초를 받게 될 사람의 이름과 집주소, 약초를 날라갈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적혀있었다. 잠시후에 국장은 약초함을 차에 싣고 역전으로 나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열차는 방금 떠났다고 하였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사무실에 싣고 갔다가 집에 가져다놓고 후에 인편이 생기면 보내줄가?

다음순간 도리머리를 저었다. 사람의 건강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 이걸 받게 될 사람은 얼마나

기다릴것인가. 그렇지, 개성방향으로 가는 도로에
나가보자. 그는 차를 그쪽으로 돌렸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렸이 《민주조선》기
자와 미국 《X×타임스》기자가 탄 승용차였던것
이다.

기자들이 탄 승용차를 떠나보낸 후 국장이 맞
다들린 사람은 은정리까지 간다는 처녀였다.

은정리처녀.

평양에서 사리원으로 가는 뺑스는 한창 손님들
을 태우고있었다. 눈이 억실억실하고 몸매가 미
출한 한 처녀가 차에 오르려는데 차장이 물었다.

《다른 짐이 없어요?》

《예. 손가방밖에는...》

《저기 서있는분을 만나보세요.》

《?》

처녀는 어지간히 놀라 차장이 가리킨 곳을 바
라보았다. 뺑스에 오르려는 사람들과는 사이를
두고 뒤짐을 진채 서있는 키쫘이 후리후리하고
점잖아 보이는 중년사나이가 서있었다. 무엇때문
에?...

영문을 모르고그 사람에게 다가가 차장이 보내
서 왔다고 하자 그는 반가움을 표시했다.

《다른게 아니고 좀 도움을 받을가 해서. ...》

그는 약초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물론 이 일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는것입니
다.》

《...》

《사정이 있으면 할수 없지요.》

순간 처녀는 당황하여 급히 말문을 열었다.

《그런게 아니라 저는 개성까지 가지 않아서...
어쨌든 사리원까지 가서 누구에게든 부탁해보겠
습니다.》

《고맙습니다.》

뺑스는 출발하였다. 처녀는호— 하고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은정리까지 가야 했다. 사리
원에서 내려 다시 그쪽방향으로 가는 뺑스를 타
야 하는데 이 뺑스가 도착하는 즉시 그쪽으로 가
는 뺑스가 손님들을 태우고 떠나게 되어있다.

그 뺑스를 놓치면 려관에서 하루밤 자야 한다.

그렇게 되면 래일부터 시작하는 농업부문 일군
강습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다.

어떻게 하나 뺑스를 타야 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십리 밤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어간
에는 높은 고개도 몇개나된다. 그 높은 고개를
혼자서 어떻게 넘어간담.

뺑스가 주차장에 서자 그는 은정리쪽으로 가는
뺑스부터 찾아가보았다. 몇분후에 인차 떠난다고
한다. 처녀의 속은 빠질빠질 타들어갔다.

어떻게 할가. 여기에서 누구에게 말길수는 없
을가.

그렇지만 역전에 가야만 개성방향으로 가는 사
람을 만날수 있다.

처녀는 급히 약초함을 안고 뛰기 시작하였다.

어찌도 무거운지 몇걸음 가지 못한채 내려놓고
말았다. 이번에는 머리에 이어보았다.

그러나 이고서는 뭘수가 없다. 하는수없이 가
방에서 보자기를 꺼내 함통을 싸서 손에 들었다.
한걸 나았다. 역에 도착하니 마침 강원도방향으
로 가는 열차가 도착한 참이었다.

그는 급히 나들문쪽으로 뛰어갔다.

벌써 손님들은 다 나가고 안내원만 서있었다.

열차에 오른 손님들에게 부탁하는 길밖에 없었
다.

《동무, 차표를 봅시다.》

깔끔해보이는 안내원처녀가 물었다.

《저... 이진 약초인데... 개성쪽으로 가는 손님
에게 말기고 난 내리면 됩니다.》

《아니, 차표도 없이 어떻게... 안돼요. 저리 비
켜서라요. 손님이 와요.》

뒤를 돌아보니 머리가 반백이 된 할머니가 자
그마한 보짐을 들고 급히 오고있었다.

《야참, 좀 나가자요. 꼭 가야 할 물건이 돼서
그래요.》

처녀는 너무도 안타까와 두발을 동동 굴렀다.

《이 동무 왜 이래요. 질서를 위반하자는거에
요?》

《이걸 누구에게든 꼭 맡겨야 해서 그래요.》

순간 안내원처녀는 눈이 울롱해졌다.

《뭘라고요? 아무에게나 맡기면 되는 물건이 세
상에 어디 있어요?》

《사실 이진...》

처녀는 약초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어마나, 그 이야기부터 먼저 했어야지요. 빨리
나가세요, 빨리!》

《뽕— 출발을 알리는 기적소리, 호각소리...

《가만 체네, 그 짐을 함께 들고 가자구.》뒤에서
나오던 할머니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들은 짐을 맞잡고 뛰었다.

《이젠 됐네. 이 짐은 내게 맡기라구.》

승강대에 오른 할머니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
다.

《할머니가요?》

처녀는 뜻밖이어서 할머니를 놀라운 눈길로 바
라보았다.

《내 줌전에 안내원에게 하는 얘길 다 들었어.
차가 당장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누구에게 맡긴
단 말인가?》

《그렇지만...》

《왜, 미덥지 못한가?》

《아니, 미안해서... 늙으신분에게...》

《내 이래봐두 농장에서 아직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일을 씩씩 한다네. 딸네 집에 왔다 가는 길이야. 짐도 크게 없어.》

《고마워요, 할머니!》

처녀의 눈가에 눈물이 펴 돌고있었다.

평산할머니

《젊은이, 이걸 저 당반우에 올려놔달라구.》

할머니는 옆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말했다.

청년은 보자기에 쓴 큰 함통을 두손으로 잡더니 그것을 번쩍 쳐들었다.

《아이쿠, 무슨 짐이 이렇게...》

생각외로 무거웠던지라 함통이 당반턱에 부딪쳐 보자기짚으로 흩이 우수수 떨어졌다.

그밑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아부재기를 쳤다.

렬차간에 이런것을 들여왔다고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다.

《미안하네. 그렇지만 이 약초는 말이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놀라서 저마다 구경하느라고 어깨성을 쌓았다.

《야! 이 약초는 산삼에 못지않군요. 그 어떤 값진 약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뜨거운 마음에 받들려 가진 못할거예요.》

《암, 그렇구말구.》

할머니는 흩이 떨어져 형클어진 약초들을 다시 정성들여 싼 손으로 뽐뽐 다졌다.

《누구에게 물이 좀 없겠나? 이 약초는 습기를 많이 요구한다네.》

《자, 할머니, 여기 물이 있습니다.》

한 손님이 물병을 내밀었다.

《자, 여긴 사이다와 사탕물도 있습니다.》

《사탕물도 일없을가?》

《식물도 당분을 좋아하는답니다.》

한 청년이 뒤머리를 긁적거리며 어줍게 말했다.

《나에겐 가시아버지에게 드릴 술밖에 없는데...》

《하, 이 젊은이 모르누만. 식물을 살리는데는 술이 제일 좋다네.》

《그래요? 그럼 이 술도 내놓습니다.》

《허, 그 약초 오늘 꼭 취하기까지 하겠는데. 한잠 자고나면 싱싱해질거우다.》

이때 옆에서 구경하던 로인이 흠족해서 말했다.

《이 약재를 받을 사람은 큰 효험을 볼거네.》

《웁습니다. 병이 툭 떨어질겁니다.》

옆에서 약초함을 거들어주던 한 청년이 제껴받았다.

《헛허허... 내 말뜻은 그게 아닐세. 예로부터 단명은 마음고생에서 온다고 했네. 어느 외국책을 보니까 사람의 인생은 고생하다가 죽는것이라고 썼더군. 사람이 고생중에서 제일 큰 고생은 마음고생인즉 그것은 세상을 잘못 만нан데서 오는 것이야.》

먹을 걱정만큼 급한 고생이 없고 잘 입지 못하는것만큼 업수임을 받는 고생은 없네. 또 병이

나면 그보다 아픈 고생이 어디 있고 자식을 공부시키지못하면 그보다 더 피로운 마음고생이 어디 있겠나.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런 고생이 전혀 없거든. 나라에서 다 보장해주니까.》

옆에서 들던 사람들이 저마다 머리를 끄떡였다.

《거기에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약재를 날라가는데 어찌 큰 효험을 보지 않겠나.》

《웁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100살은 더 살겁니다.》

와—하고 즐겁게 웃었다.

렬차는 경쾌하게 달렸다.

마음이 즐거워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지...

어느새 렬차는 평산역에 도착하였다. 손님들은 약초함을 역나들문까지 들여다주었다.

이렇게 되어 할머니는 개성방향으로 가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던것이다.

《헛참, 꼭 꿈이야기를 듣는것 같군.》

교포기자의 말이였다.

영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 선생은 방금 들은 이야기가 꾸며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평양에서 보았던 이 약초함통이 여기에 나타난걸 보면 사실이긴 한데. ...》

영준은 저도 모르게 껄껄거리며 웃었다.

《인간은 많은 경우 리기적이라고 할가 자기의 리익에 저촉되거나 혹은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것이 오늘의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거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머리를 기웃거리고는 더 말이 없었다.

영준은 할머니의 마디 굵은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이젠 이 물건을 내가 맡읍시다.》

《에그, 고맙기두. 그럼 실수없이 약초임자를 찾아가 전해주시우.》

할머니는 약간 굵은 허리뒤로 두팔을 휘적이며 떠나갔다. 교포기자는 영준에게 눈길을 돌렸다.

《엎어진김에 쉬어간다구 저 강변에 내려가 바람을 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차에 물도 보충하고 청소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랐다.

《저 약초는?》

《그냥 여기에 놔두었다가 떠날 때 실으면 되지요.》

영준은 할머니에게서 넘겨받은 종이를 약초통우에다 놓고 바람에 날려가지 않게 자그마한 돌을 지질러놓았다.

강변에 내려오니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있었다. 바위우로 일매지게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물이 햇빛에 반사되어 구슬알처럼 반짝거린다.

교포기자는 바지가랭이를 걸어올리고 물에 들어섰다. 손에 물을 움켜들더니 머리우로 뿌려올렸다.

공중에 날아오른것이 물보라가 되어 그의 얼굴

이며 몸무에 떨어졌다.

유년시절의 동심이이 순간에 다시 찾아온듯...

낯설은 이국에서 사는 그에게는 우리가 범상하게 보는 모국의 작은 시내물마저도 어머니품처럼 살뜰히 느껴지는것이라.

다시 떠나려고 도로에 올라서자 길옆에 놓았던 약초함통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기저기 찾아보아도 없었다. 일이 참으로 맹랑하게 되었다. 하는수없이 그냥 떠나게 되었다.

교포기자는 등반이에 몸을 기댄채 영준의 눈치를 보고는 인차 눈을 감았다.

《헛참, 주인에게 불 닢이 없게 되었군.》

영준은 난감한 생각이 들었다. 교포기자는 심드렁한 표정을 지은채 맥없이 입을 열었다.

《유선생, 나때문에 약초가 잃어졌군요. 내가 내가에 내려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그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내가 리해되지 않은건 이런 일이 생겼다는 그것입니다.》

《거기에 믿고 안 믿고가 있습니까. 내 이미 말했지요. 인간은 본래의 의미에서 리기적이라구.》

북조선사람들이라고 왜 물건앞에서 그만한 욕망도 없겠습니까. 하물며 그 약초는 주인없이 길가에 놓여있던것인데 그걸 가져갔다고 해서 잘못될것도 없지요.》

《어쨌든 주인에게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넘겨주고 이어받으며 정성들여 날라온것인데... 찾아가서 사죄해야 할것 같습니다. 내 그 약초를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기억하고있습니다.》

《웁습니다. 그러면 나도 마음이 좀 편할것 같군요. 사실 그 물건은 누가 날라온것도 모르는것이니 그냥 스쳐보내도 될 일이지만. ...》

×

손님이 찾아왔다는 안해의 전화를 받고 나는 급히 집으로 왔다.

마당에는 승용차 한대가 서있고 그옆에 남모를 사람 두명이 서성거리고있었다.

《성학규선생이지요?》

《예. 누구신지?》

그들은 자기 소개를 했다.

《귀한 손님들이군요. 어서 들어오시오. 저를 취재할 일은 없겠는데요?》

《사죄하러 왔습니다.》

《사죄요? 무슨 일루...》

나는 두 기사를 방안으로 안내했다.

조금후에 《민주조선》기자가 약초가 잃어진 사연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말머리를 떼고도 갑자르는것이 몹시 미안해하는 기색이다.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돈으로 값을 후하게 지불하자고 합니다. 우리의 부주의로 잃어진 약초보다 더 귀한 약도 얼마든지 살수 있을 돈을 말입니다.》

교포기자는 웃웃 안섶에 손을 넣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만류했다.

《하하... 선생님두. 너무 걱정할건 없습니다. 그

약초는 이미 도착하였습니다.》

《예? 그게 정말입니까?》

교포기자는 놀라서 물었다.

《웬 젊은 운전사가 주소를적은 편지와 함께 길가에 놓여있는걸 가져왔다더군요.》

《그래요? 우린 그런것도 모르고... 그래, 그 약초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이것 참.》

그는 딱한 표정을 지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초는 이미 다른데로 갔습니다.》

《아니 뭐라구요? 어디루요?》

두 기자는 한순간 어리둥절해졌다.

《보다실이 나는 건강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에 로인 한분이 요즘 속달로 애를 먹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를 한번 써보라고 방금 가져다주고 오는 길입니다.》

교포기자는 입을 딱 벌렸다.

《그 약초는 당신이 요구한것이 아닙니까?》

《요구한것이 아니라 양덕의 그 젊은 동무가 스스로 성의껏 마련해 보냈건이지요. 그것을 받게 되자 내가 생각한것이 마을로인에게 드려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

그는 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는 한쪽벽에 걸려있는 족자에 눈길을 보냈다.

《장군님식솔》

그때로부터 한달후 나는 신문을 통해 미국에 사는 교포기자가 쓴 기사를 읽게 되었다.

《영원한 붉은기》라는 표제아래 우리 나라에 와서 목격한 인상기를 상세히 쓰고나서 마지막끝을 이렇게 맺었다.

《...사람이 병이 없이 오래 산다는것은 하나의 큰 행복일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인간계상에는 약이라는것이생겨났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이름난 보약도 당대사회를 잘못 만나면 행복할수도 오래 살수도 없는것이어서 약도 효력을 보지 못하는것이 상례이다.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약이 없는 사회, 빈부귀천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무릉도원을 꿈꾸어왔으며 오늘도 모색하고있다.

그 처방이 무엇이며 어떤 약인가?

나는 그에 대한 대답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찾고싶다. 나는 얼마전에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돌아보는 과정에 사람들의 아름다운 참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 실례의 하나가 약초에 대한 이야기이다. 물론 너무도 작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바다물에 휘여오른 작은 물방울이라고 해야 할가. 하지만 한방울의 물에도 우주가 비끼는 것이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충분한 리해를 주리라고 생각한다.

령도자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뭉친 일심단결된 사회!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영원히 사회주의기치를 들고나가는 불패의 원천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것이다. ...》

고향길

최준경

고향길로 들어서며

그 얼마만인가
 꽃강냉이 몇이삭 싸안고
 청춘시절 싸움터로 떠나
 귀밀머리에 흰서리를 얹고
 다시 찾는 장령의 고향길

위대한 우리 당의 해빛아래
 고향은 무릉도원으로 변했어도
 어린시절 발자취는 그대로 남아있는듯
 장령은 향촌의 아름다운 정서속에
 못 잊을 옛 추억을 더듬어라

저기 물오리떼가 헤엄치는
 버들방천 시내가엔
 보쌈을 놓아 버들치를 잡던
 장난군시절의 애뜻한 화폭이
 상기도 수채화처럼 비껴있는듯

또 저기 동구길엔
 농립모를 흔들며바래주던
 이웃 로인들의 정든 모습도
 녀선생의 밝은 눈동자도 어려있는듯
 장령은 연신 안경을 닦아끼며
 차창밖을 감회깊이 내다본다

그런데 웬일인가
 아직도 고향집뜨락은 멀리 있건만
 문득 생각에서 깨어난 장령
 마음속에 그 무슨 송구함이 깃든듯
 조용히 운전사에게 이르누나

—차를 세워주
 고향길로는 함부로 차를 타고
 들어가는것이 아니지...
 그리고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는 장령
 넓은 마을길을 저 멀리 남기고
 소문없이 발머리 오솔길로 걸어가누나
 술렁이는 강냉이잎도 쓸어보며
 청고운 까치소리도 즐겨이 들으며

귀밀머리 희여진 자식도
 어머니앞에선 철부지심정이라더니
 나서자란 고향앞에선 장령도
 소박한 막내아들의 마음으로 되는것인가

불비속을 헤치던 전사의 그 어깨에
 오늘은 주련이 큰 별을 엮었건만
 고향의 풀 한포기 자개돌 하나가
 소중한 살불이같이 쓸어보고 쥐어보며
 동구밖에 차를 세워놓고
 취한듯이 걸어가느 그 모습

오 고향
 삶의 젖줄기를 물려준 어머니품
 참된 마음을 키워 내세워준
 향토애의 정다운 첫 사립문
 선렬들의 피가 스민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땀으로 일떠세운
 조국애의 성스런 첫 대문이기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도
 함부로 어깨를 높이고 들어서는 곳 아니구나

고향의 박우물

못 잊을 추억을 안고
 고향집뜨락에 들어선 장령
 먼길의 갈증으로 타는 목
 부엌의 수도물로 추겨도 좋으련만
 먼저 박우물터를 찾아 발걸음 옮기여라
 뒤동산기슭의 향나무밑으로

어린시절 잔뼈를 키워준 박우물
 어머니젖같이 단고향의 향수
 장령은 행군의 먼길에서도
 숙영지천막가의 꿈결에서도
 얼마나 못 견디게 그리워했던가

그날의 그리움과 오늘의 반가움속에
향나무향기도 그윽히 풍겨오는 박우물
쫓박으로는 성차지 않을것 같아
장령은 군모를 벗고 허리를 굽히더니
애뜻한 박우물에 정히 입을 대었네
어린시절 어머니젖가슴을 파고들듯
아기를 기다린 어머니마음처럼
박우물은 수정같이 맑은 샘 뿜어올리며
풍만한 가슴을 통채로 맡겨주었네
고향의 단젖을 어서 싹틔마시고 가

나라위해 더 큰 공 세우라고

아 겨울에도 얼지 않고 여름에도 썩한
고향의 박우물 정가론 박우물
그것은 장령의 가슴속에 모금모금 흘러든
정다운 어머니젖 고향의 뉘
그것은 온몸에 용맹의 새힘을 주는
조국애의 마르지 않는 젖줄기여라

장령과 백양나무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는가
어린시절
 시내물 흘러가는 고향집 저 앞뜰에
장령이 심은 백양나무 한그루
오늘은 키높이 자라 설레이며 속삭이며
하많은 추억을 불러주는구나

어제날 젊은 병사 초소로 떠날 땐
땅속에 깊이 뿌리도 못 내린채
애어린 잎새 나풀대며 바래주던 백양나무
그 병사 오늘은 장령이 되어 돌아올 땐
풍치수려한 아름다리 거목이 되어
천만잎새 술령이며 반기누나

그 모습 그림던 고향의 런던이런가
푸르른 백양나무 하도 정다워
장령은 팔벌려 안아보고 쓸어보는데
가지우에 살림편 까치무리도
반갑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듯
쌍쌍이 기쁨 안고 목청을 합치누나

오 고향의 총대아들이 왔다고
하늘높이 춤을 추는 백양나무야
너는 향촌의 풍치 고향의 모습어제와 오늘의
사연깊은 증견자
너 옛 주인을 반겨 끝없이 설레이며
이 고장 청춘들에게도 말하여라

어제날의 병사 오늘의 장령은
백양나무 너의 작은 뿌리와 함께
애국의 큰 뿌리를 고향에 묻고 갔기에
푸른 숲 세월의 년륜을 감고감을 때
초소를 지켜 조국을 지켜
오각별 빛나는 군모에 금줄을 감고왔다고
래일의 후손들에게도 전하여라

조국애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조국애는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뒤동산에서

잔디 푸른 뒤동산은
어린시절 장령이 군사놀이 하던 곳
고향의 모든 땅 밟고싶던 마음
잔디밭의 풀냄새도 잊지 않던 마음
그냥은 스칠수 없어 감회깊이 울랐네

때마침이다
동요시절의 추억을 대신 해주듯
오늘은 조무래기들 한무리
나무총을 휘두르며 뛰고 덩굴며
홍겨운 군사놀이로 한창 신바람났구나

어제날 그리운 소꿉놀이친구들
여기 뒤동산에서 다시 만난듯 한데

얼마나 장한 일이나
오늘은 새 세대가 군사놀이 나무총을 잡고
래일의 꿈과 열망을 키우고있는것은

나이 들면 추억속에 살고싶다더니
어느덧 장령도 어릴적 마음되어
오늘의 조무래기들과 친구가 된듯
군사놀이 나무총도 잡아보고
아이들을 하늘높이 추켜올리며
미래의 총대주인들을 축복하누나

어서 힘을 키우라 아이들아
총대의 다음대는 너희들이다
이름난 영웅들도 군사놀이 이 시절을 거쳐

장군님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충족탄용사로 위훈 떨쳤거니
장령은 여기 뒤동산에서
벌써 래일의 그 모습들을 보고있구나

이제 세월이 흘러 몇해후면
나무총을 잡은 아이들 그 손에

조국수호의 총대가 쥐여지고
어뢰정과 비행기의 조종간이 맡겨지리라

그리고 《나무잎훈장》을 단 그 가슴들엔
영웅의 금별메달이 번쩍이리라
그러면 내 조국은 또 얼마나 강대해질것이라

상봉의 기쁨속에 나는 말

어제날 한부대에서 복무해온
장령과 제대군인관리위원장
벼이삭 설레이는 고향의 포전길에서
뜻밖에 서로 만나 얼싸안았네

당이 맡겨준 초소는 달라졌어도
조국을 지키며 농장벌을 가꾸며
긴긴 세월을 이어온 두 심장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쳐온 두 마음
하고싶은 이야긴들 얼마나 많으랴

오곡의 향기속에 취한듯
두령길에 군모와 농립모를 나란히 벗어놓고
어제날 병사시절이야기
오늘의 농사이야기
상봉의 기쁨속에 나뉘가는데
고향땅이 불러주는 축하의 노래가락인듯
벼바다 설레이며 옷자락을 스치여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향의 모습인가
얼마나 변모된 락원의 선경인가
들에는 난알향기 산에는 과일향기
시내가엔 발전소와 양어장들
배부른 염소떼들 골짜기로 내리는데
즐비하게 늘어선 문화주택창문들도

저녁노을 비껴안고 고운 빛을 뿌리여라

수령님 오셨던 길로 장군님 찾아오서
천지개벽 새 역사를 펼쳐주셨다고
관리위원장은 못 잊을 그날을 전하는데
장령은 가슴 뭉클해 눈굽을 찍어라

가슴마다 새힘 주는 꿈같은 그 이야기
위훈으로 불러주는 고향의 새 전설
저녁들가에서 어이 다 나눌수 있으랴
못다한 이야기 뒤에 남기고
노을비긴 들길에서 일어선 두 사람
고향과 초소의 약속과 같이
군대와 인민의 언약과 같이
군게 손잡고 남긴 말 불처럼 뜨거워라

—군량미는 걱정말게
고향땅에 로적가리를 더 높이 쌓고
쌀로써 선군을 받들겠네

—초소는 넘려말게
선군의 총대가 방선을 지켜 서있는 한
고향땅의 행복은 더 무르익을거네!

추석날의 비분

고향땅을 찾아온 다음날이
때마침 추석날이라
장령도 마을사람들과 어울려
선친들의 산소길을 찾았어라

오랜 세월
초소와 초소로 직무를 옮기며
군사복무로 귀밀머리 희여진 장령
몇번 찾아보지 못한 부모들의 묘소를
오늘다시 찾아 벌초도 하고
술 한잔 부어드리고 싶었어라

생각하면
피덩이 알몸을 치마폭에 싸안은 때로부터
애지중지 정을 다해 키워준 어머니모습
하루일 끝마치고 돌아올 때면
머루 다래 산딸기를 따다주던 아버지모습
그 누가 일찌기 빼앗아갔던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고향땅을 타고났었던 원썬들
장령의 부모들이 열성농민이었다고
한날한시에 느티나무에 묶어놓고
도끼로 젓가슴과 머리를 찍었거니

장령은 무덤가에 이르자
비분의 피눈물로 오열을 터친다
피땀한 그 원한에 사무쳐 사무쳐

허나 그 아무리 땅을 친대도
그날의 비분이 다 가셔지랴
복수는 총창끝에 세워두고
비분을 삭이는 장령
상돌앞에 술 한잔 정히 부어놓고
머리숙여 심중의 말 고이 아뢰여라

—아버지 어머니 이 아들을 용서하시라
아직 다 갚지 못한 피땀한 원한
최후결전의 날 천백배 복수로 갚아드리리라
그날 다시 오리니 기다리시라

장령이 부모들 묘소앞에
복수자의 맹세를 다지고 일어설 때
저녁노을과 함께 향불도 스러진다
장령은 여기 산기슭에 묻힌
수많은 애국자들의 봉분도 바라보며
고향의 그 많은 복수의 부탁도 자각했거니
산을 내리는 그 발걸음 류달리 무거워라

오 고향은 결코
아름다운 추억과 애뜻한 향수만을
가슴가득 안겨주는 곳이 아니라
사랑과 증오를 함께 간직하라고
제급의 더운 피를 끓여주는 열점과도 같아라

첫닭이 우는 소리

아직 동창은 밝지 않고
뒤동산의 새들도 잠을 깨기 전
고요를 깨치며 첫닭이 우는 소리
또 하루 희망찬 새날을 알리는 소리
고향집들창을 랑랑히 흔들여라

새벽잠에서 깨어난 장령
첫닭의 울음소리에 생각을 없네
행군의 긴긴밤을 지새우고
산정에서 남먼저 첫새벽을 맞을 때
마을에서 울려오던 첫닭의 울음소리
병사들 가슴에 얼마나 큰힘을 주었던가

누구나 그 소리 들으며 고향을 생각했고
그 소리 들으며 행군의 보폭을 넓혔거니
그날의 그 소린 마치도
병사들 떠미는 행군나팔소리가 아니었던가

오 첫닭이 우는 소리 첫닭이 우는 소리
오늘은 고향집들창가에서 들어도
장령은 병사시절 행군길에서 듣는듯
이 새벽 마음속의 신들메를 조여매누나
새날의 나팔소리처럼

고향에서 다시 초소로

동구밖에 세워놓은 승용차를 점검하고
운전사는 떠날 시간을 기다리는데
장령은 군복차림 바로잡고
고향집트락앞을 나선다

초소에선 사무치게 그립고
찾아올 땐 정답게 반겨주던 고향길
떠날 때는 왜 또 이리도
석별의 정 자꾸만 젖어드는가

향촌에서 보낸 날은 길지 않았어도
고향은 장령에게 무한대한 힘을 준
소중한 향토애의 시작점
불타는 조국애의 디딤돌로 되였거니

저 멀리 손저어 바래우는 이웃들에게도
사연깊은 백양나무 푸른 숲에도
또저기 설레이는 들판과 뒤동산마루에도
빨간 고추를 따엿은 고향집지붕에도
뜨거운 부탁과 약속의 인사를 담아

장령은 마음의 허리를 정히 굽힌다

자 이젠 떠날 시각이 왔다
찾아올 땐 동구길에 차를 세우고
소문없이 들어섰던 장령의 고향길
초소로 떠날 땐
경적소리 높이 울린들 어떠랴

잘있으라 잘 가라
서로 엇갈리는 작별의 메아리속에
새 임무를 받고 떠날 때처럼
장령은 활력있게 차에 오른다

나서자란 고향의 동구길을
장군님 그어주신 작전도의 화살표따라
저 멀리 초소와 산과 들 넘어
위훈의 한길로 이어가기 위해
장령은 발동소리높이 떠나간다
고향에서 다시 초소로

단편소설



보금자리

리성식

나는 지금 구룡산의 청운사에 와있다.

내앞에는 반백의 늙은 중이 서있다. 이곳 구룡산의 력사유물들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되어 심산오지의 절간에서 살며 민족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한생을 바쳐올수 있었는가고 내가 묻자 그는 신중해서 퇴마루밑을 거닐기만 했다.

한참후에야 대웅전 앞마당의 이끼 덮인 석탑을 추연한 눈길로 바라보며 입을 여는것이였다.

《우리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곳 구룡산아니, 민족력사의 한 단면이라 할가... 아마 작가선생의 취재에 도움이 될겁니다.》

1

남정의 석십한 타령소리가 구룡산의 아침고요를 깨치였다.

어허라 세상천지 변동하여

백성팔자 고쳤으니

어허라 이 내 중도

...

산자드락 오솔길로 머리를 뻑뻑 꺾고 배장삼을 걸친 중년의 남정이 물동이를 들고 흥글흥글 걷고있었다.

청운사의 중 심백이였다.

그는 지금 아침밥을 지을 물을 길으러 샘터로 가는 길이였다.

우리 나라 서북지대 명승지의 하나로 불리우는 이곳 구룡산속에 웅좌를 튼 청운사에는 열댓명의 중들이 시주도 받아들이고 땀기밭농사와 동냥도 하며 살아왔었다. 그러다가 8.15해방이 되어 다들 제갈데로 흩어져가고 심백이만이 홀로 남아 집지기를 해오고있었다.

눈길을 건듯 들어 연보라빛 운무가 서린 동천하늘을 살피기도 하고 한쪽팔을 쭉 내밀어 이슬맺힌 풀이파리를 툭툭 건드리기도 하는 심백의

길쭉한 얼굴에선 노상 미소가 빙글거렸다.

어제 남새밭에 뿌릴 쑥갓씨를 구하러 노루목너머 송암마을에 내려갔던 심백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었다. 해방전에 지주집 머슴을 살고 남의 땅을 소작하던 사람들이 밭머리에 제 이름을 새긴 말뚝을 빼젓이 박아놓고 흥에 겨워 밭갈이를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도 놀라와 한참이나 서서 보다가 땅을 무슨 수로 마련했는가고 물었더니 그들은 웃으며 대답하는것이였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줬다오.》

심백은 야릇한 감정에 젖어 마을을 떠났다. 달라진 바깥세상이 가난뱅이 중한테도 뭔가 좋은 일을 가져다주지 않을까?... 하는 은근한 기대는 애절한 갈망으로 변하여 가슴속에서 꿈틀거렸다. 절간근처의 부침땅을 절간소유로 해주었으면... 절간기물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어떤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그 소박한 녀원이 왜서인지 꼭 실현될것만 같아 심백은 자연히 마음이 부풀었다.

하여 어제 밤 편한 잠을 자고 오늘 이렇게 흥겨이 하루일과를 시작한것이다.

아가위넝쿨이 우거지고 짙레꽃이 망울진 샘터에 이르러 별생각없이 돌계단을 내리던 심백은 몸이 굳어지며 주춤거렸다.

샘물가에 앉아있는 젊은 녀인을 띄여본것이다. 속살이 빨강게 드러날정도로 삭발을 하고 하이얀 모시치마저고리를 입은 그 녀인은 굵새등너머의 아난암자에서 사는 녀중 홍순이였다.

함께 살던 녀자중들이 해방후 제 갈데로 가버렸으나 홍순이만은 여직껏 홀로 남아 암자를 지켜오고있었다.

푸른 산중의 흰나리꽃마냥 함함하면서도 싱그러운 체취를 풍기는 녀인의 자태를 한참 지켜보던 심백은 자기가 부당한짓을 하는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인기척을 느꼈는지 홍순이 몸을 돌렸다. 뒤에 와서있는 심백을 본 그는 바가지를 동이에 넣고 일어 나 고개를 갸웃이 숙였다.

《밤새 무고하셨어요?》

《예. 거기선 일찍 일어났군요.》

심백은 열적게 인사를 받았다.

한해전만 해도 불도의 계륵과 서로 고지식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하여 자주 길을 어기면서도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하던 그들이었다. 그런데 세상을 한바탕 뒤흔든 8.15해방이라는 놀라운 사변과 오래동안 지속되어오는 고독한 생활은 두사람사이에서 계륵의 장벽을 허물고 이성의 돌다리가 생겨나게 했었다. 더구나 인간세상을 떠나 심산속에서 새와 나무를 벗삼아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처지는 서로를 동정하고 위하는 마음을 싹트게 했었다.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동이를 안고 샘터를 떠나던 홍순은 심백 중앙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저... 어제 승이 마을에 내려간새 읍에서 사람이 왔댔어요. 총을 찬 사람인데 사파일날에 있는 일을 캐묻더군요.》

《사파일때의 일요?!!》

어병병해 되묻는 심백의 눈앞에는 한달전인 음력 4월 8일즉 부처의 탄신날에 있었던 일이 피땀 떠올랐다.

... 전날 밤 《3염》에 속한 일체 고기류들과 《5훈》에 지적된 냄새나고 부정라는 음식들을 말끔히 치우고난 심백은 샘물로 목욕재계를 한 후 해가 설천봉우로 얼굴을 내밀기 바쁘게 예식준비를 서둘렀다.

신자들이 불공을 드리려 오기때문이였다.

심백은 바깥세상이 소란하고 산속분위기 또한 어수선하여 사원의 계륵이며 규칙이란것이 흐지부지 된 때였으나 절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중으로서 더구나 이날껏 부처를 신앙해온 교인으로 불공행사를 차마 무시할수가 없었다.

그는 불공장소인 대웅전안의 돛자리를 물결레로 깨끗이 닦은 다음 옷칠을 곱게 한 새 다반을 불상앞에 퍼놓았다. 그리고는 옛 선승의 필체가 새겨진 족자를 벽에 내걸었다. 그다음 불경을 터득하여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이름난 중들의 화상을 보살 량쪽에다가 진렬하고련꽃병풍을 둘러치였다. 마지막으로 오동향로에 향초박을 깎아 넣고나서 늦초대에 초까지 끼워놓았다.

일을 끝낸 심백은 자주빛가사를 꺼내입고 밖에 나와 석탑밑을 거닐었다.

구—구—구—

머리우에서 새소리가 울렸다.

심백은 고개를 들어 그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털색이 희유스름한 산비둘기가 석탑머리에 앉

아 쫓지를 달싹이고있었다. 석탑안에 둥지를 틀고 살아오는 비둘기이다.

심백은 외톨뱅이로 고독한 생활을 하는 자기를 동무해주는 산비둘기가 고맙게 여겨져 매일 좁쌀알을 먹이로 뿌려주며 키우다싶이 했다.

(네가 이곳에 깃을 들이길 잘한것 같구나. 달라진 세상이 이 절에도 좋은 환경을 마련해줄지도 모르니 그러면 너한테도 여기가 영원한 보금자리로 될게 아니냐.)

애뜻한 시선으로 산비둘기를 더듬던 심백은 인츰 자신을 다잡고 대문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중낮이 지나도록 입산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다리느라 지친 정오무렵에야 여러명의 신자들이 풀안입구에 나타났다.

거리가 가까와져 그들의 얼굴이며 차림새를 알아보게 되었을 때 심백은 반갑던 감정이 싹 짖아 들고말았다. 해방전까지만도 읍거리와 린근 촌락들에서 권력과 재부를 휘두르며 거들먹대던자들이였기때문이다.

그들은 불과 반년전의 그 기고만장하던 모습은 다 어디다 췌버리고 초췌한 물골로 겁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절간을 찾아오고있었다.

맨앞에서 너편네를 끼고 어청어청 올라오는 똥똥보는 머슴과 소작농들을 버리지않듯 하던 세상 심보 사나운 송암리의 장지주였고 행렬의 한가운데서 아직은 내가 다 죽지 않았다는듯 량팔을 호기있게 휘두르면서 겁석겁석 걸어오는 장발의 사나이는 권모술수로 백성들의 등을 쳐먹던 팔원면 면서기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얼굴을 알수 없었다.

기분이 잡친 심백은 대문을 후려닫고 승방에 들어와 누워버렸다.

대웅전에선 그들끼리 불공을 드리는지 목탁소리도 나고 향불내도 풍겨왔다. 부처님께 하소연하며 빼앗긴 권세와 재부를 되찾아주기를 애원하는 말소리들이 도간도간 들려왔다.

그저 적당히 그러다가 싫증이 나면 돌아가겠거니 하고 그냥 내버려두었는데 그 귀간지러운 소음은 시간이 지나도록 끝날줄을 몰랐다. 그치킨 커녕 오히려 더 악화소동으로 번쳐가는것이였다. 계집의 《악!—》하는 아츠러운 비명이 울린 후 무엇이 땡가당, 쟁가당 마사치고 우지곤, 똑딱 부러져나가는 소리가 났다. 또 얼마후엔 마루바닥이 꺼질듯 와당탕통탕 뛰여다니는 소리가 울렸다.

심백은 은근히 걱정이 되어 일어나 대웅전으로 향했다.

대웅전앞마당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집재목을 찍으려 산에 올라왔던 송암마을의 차

서방을 비롯한 장정들이 절간에 뛰어들어 장지주네 패거리들을 한창 족쳐대는 판이었다.

해방전 장지주가 자기네 땅을 얻어부치던 차서방이 소작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추운 오동지달에 집을 빼앗고 온 가족을 한지에 내쫓아 어린 두 자식을 얼어죽게 만들었다더니 오늘 맞ادن김에 그 원을 풀려는 모양이었다.

정말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다. 옛날엔 갓은 구박을 당하면서도 머털 폭 수그리고 반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지금은 감히 《지주어른》의 먹살을 움켜잡고 휘둘러대니 말이다.

차서방이 떡메같은 주먹으로 유들유들한 상판을 짓조기자 장지주는 코피를 쏟으며 죽는다고 아우성을 쳤다. 팔원면 면서기와 땅딸보 한놈이 장지주를 돕자고 차서방한테 달려들었다. 그러자 마을장정들이 그들을 한놈씩 붙잡고 움짱달짝 못하게 만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그 어망쳐망한 광경을 가슴이 활랑활랑해서 지켜보던 심백은 황망히 다가가 싸움을 떠맡렸다.

《여긴 석가여래를 모신 사당이요. 제발 그만들 하시우.》

형세가 기울어졌음을 느낀 장지주네 패거리들은 심백이 끼여들어 판이 주춤해진 틈을 리용하여 삼십륙계 줄행랑을 쳤다.

공지가 뺏겨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달아빠는 놈들을 쫓아보던 차서방은 분풀이를 하려는 듯 도끼로 절간기둥을 광광 찍어댔다.

심백은 질겁하여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절간기둥하곤 왜 해보는거요?》

그러자 차서방은 황소숨을 쉴씩 내뿜며 심백을 흘려보았다.

《저런 못된 놈들을 끌어들이는 도깨비소굴은 썩 없애치워야 하오.》

《도깨비소굴이라니?! 부처님을 모신 곳을 두고...》

《부처님은 무슨 말라빠진 부처님이요.》

《여하튼 사람이 사는 집인데 너무하지 않소.》

심백은 억지로 차서방의 손에서 도끼를 빼앗았다. ...

《머칠전 읍거리에서 큰불이 났는데 그날 이곳에 불공드리러 왔던자들이 한짓이라더군요.》

홍순의 말소리에 심백은 상념에서 헤여났다. 그는 기가 차서 혀를 꼰었다.

(그런 끔찍한짓을 다... 그러다 살생을 저지르면 어찌자고? 아, 나무아미타불!)

《승이 그들과 공모를 하지 않았는가 의심하는 눈치인데 아무쪼록 불상사가 없도록 조심하세요. 군에선 이제 끝...》

왜서인지 말꼬리를 흐리며 먼 하늘가로 시선을 보내던 홍순은 시름겨운 한숨을 호— 내긔고는 무거운 걸음으로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잡관림속의 오솔길로 종종 걸음쳐 사라지는 녀승의 늘씬한 뒤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던 심백은 심기가 좋지 않아 마른기침을 켜었다.

(무슨 말을 더 할려했을까? 분명 어떤 심상치 않은 일같은데.)

2

심백은 조반을 가마에 안치고 밖에 나와 뜨락을 쓸기 시작했다.

바람에 날려와 널린 검불을 말끔히 청소한 그가 석탑기단밑의 잡풀을 뜯어낼 때였다.

아래꼴안쪽에서 말발굽소리가 울렸다.

자오룩한 안개발을 헤가르며 가라말 한필이 청운사를 향해 질주해오고있었다.

(?!...)

말은 담장대문앞에서 멈춰섰다.

호호흥—

그 숨가쁜 투레질소리는 왜서인지 심백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은근히 가슴을 조이던 그는 말을 타고온 사람이 자기와 연고가 있는 사람이라는걸 알아보고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말에서 내린 박운섭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싱긋 웃으며 마당안으로 들어섰다.

《그간 무고하셨습니다!》

《원, 이런...》

심백은 짜리비를 내던지고 박운섭을 반겨맞았다.

《위원장어른이 여길 어떻게... 허—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뜰게 아닌가요!》

《불도에 여념이 없는 승한테야 해가 서쪽에서 뜨던 동쪽에서 뜨던 매한가질텐데요. 허허.》

허물없이 반룡조로 심백과 인사를 나누고난 박운섭위원장은 깨끗이 거두어진 절간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러던 그는 가마가 뚫고있는 부엌안을 들여다보며 웃모를 소리를 중얼거리더니 문득 정색해서 심백쪽으로 돌아서는 것이었다.

《머칠내로 절간을 떠나야겠습니다.》《?!》

심백은 아연하여 굳어졌다. 얼마후에야 정신을 가누어잡고 떨리는 소리로 되물었다.

《떠나다니요? 아니, 왜서요?》

놀라는 심백을 보기가 딱한듯 박운섭은 시선을 슬며시 돌리며 뇌었다.

《절간들을 철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달에 이곳 군에 하부지도를 내려왔던 도의한 일군은 군내 주민들이 절간의 중을 찾아가 점도 치고 시주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펄쩍 뛰었다. 때마침 일어난 군당청사방화자들이 깊은 산속 어느 절간에 등지를 틀고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고난

그는 대노하여 박운섭위원장을 질책했었다. 사실 절간이란거야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들이 래세의 극락을 설교하며 백성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던 사당이 아닌가. 해방된 오늘 더구나 계급혁명의 선봉이 몰아치는 이때 불도가 활개치고 도깨비소굴같은 사당이 존재한다는게 어디 될 일인가? 계급성이 없다, 당성이 희박하다. ...

그 호된 추궁이 진정으로 감수되지 않고 어딘가 납득되지 않는 점도 있었으나 박운섭은 상급의 의견이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길성산의 경심사랑 굴암산의 안홍사에랑은 벌써 보름전에 철거령을 내렸는데 이곳 구룡산의 절간들은 승의 면목을 봐서 아직...》

미안하여 말을 잇지 못하는 박운섭위원장의 거동에서 일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심백은 등골이 섰다.

순간 작년 가을 이곳 절간에 얼마간 머물러있다가 남으로 나간 황봉운(해방전 군영림소 소장을 했다.)이 한 말이 생각났다.

《공산당은 친일을 한 사람은 물론 천도, 불도와 같은 교인에 대해서도 야차도 얼굴을 붉힐 정도로 무자비하다오.》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만약 군위원장이 저 박운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 운명은 이미 전에 벌써...)

해방전 읍 철공소에서 일하며 군내 로동조합운동을 지도하던 박운섭은 어느해 여름 경찰의 체포령이 떨어졌을 때 이곳 구룡산에 들어와 두달간 은신생활을 했었다. 그때 설천봉의 외파른 동굴에 은거해있던 그한테 심백 중이 먹을것을 보장해주었었다. 다른 중들의 눈을 속여가며 외부와의 연계도 지어주었었다. 운섭은 때가 되어 산을 떠나면서 심백 중한테 후날 신세를 잊지 않겠노라고 거듭 인사를 했었다. 그러니 열흘이 넘도록 일처리를 미루어온것도 또 총대를 둘러맨 보안서원들이 아니라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자신이 직접 조용히 나타나 량해를 구하며 철퇴를 알리는것도 다 그런 사연이 있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심백은 옛날 일을 턱대고 현생활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릴수가 없었다. 절간철폐며 중청산이며 하는것들이 다 박운섭 일개인의 뜻이 아니라 상부의 조치로 인해 사곳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다.

심백의 반응을 주의깊게 지켜보던 운섭위원장은 망연자실하여 빈손만 주무르며 서있는 그한테로 가까이 다가왔다.

《읍거리에 내려와 사십시오. 그뒤의 일은 내가 책임져줄테니.》

박운섭은 이젠 세상도 변했는데 산에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일

은 잘된셈이니 락심말고 어서 거처를 옮기라며 심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후 안심시키듯 웃음을 남기고 대문을 나섰다.

멀어지는 말발굽소리를 누르며 야단스러운 새 소리가 심백의 귀청을 울렸다.

구—구—구—

낮선 행인의 출현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것을 느낀듯 석탑머리에 앉아 끈지를 떨던 산비둘기가 불안한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심백은 퇴마루에 주저앉아 산비둘기가 오락가락하는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새 사회가 절간과 중을 용납하지 않는 이상 생활을 달리해야 한다는것만은 자명했으나 정작 그러자고보니 당장 옮겨야 할 거처가 문제였다. 박운섭위원장의 말대로 읍거리에 내려가 살자니 자기의 래력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동냥중이라고 멸시하며 따돌릴 것 같았고 청산대상인 중을 비호한것으로 하여 위원장의 립장만 딱하게 만들것 같아 흥심이 동하질 않았다. 그래 이제는 기억에서 삭막해지고 서글픈 추억만이 기다리는 고장이긴 하지만 고향이랍시고 충주로 가자 하니 분계선이 가로막혀있었다. 그렇다고 또 어방대고 친척도 아무런 면식도 없는 낯설은 고장에 가서 발을 붙인다는것도 막연한 노릇이라 선뜻 결심이 내려지질 않았다. 더구나 심백의 흔들리는 마음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것은 산생활에 대한 미련이었다. 아니 그것은 미련이라기보다 애착이라 해야 옳은것이였다. 인간세상의 고아로 버림받고 천대받던 자기를 품안아 먹여자래운 절간, 30년나마 생의 것을 틀고 살림을 벌려온 집! 하지만 그 정든 곳을 버려야 한다. 세상이 그럴것을 강요하고있으니...

심백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뒹박힌 상념에 휩싸여 시간만 보냈다. 다음날도 또 그다음날도... 그러느라니 자신의 인생이 허망하게 여겨져 절로 한숨이 쏟아져나왔다. 아, 전생에 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생이 이다지도 고달프냐? 이래가지고서야 후생은 뭐이 그리 즐거우랴... 세상의 버림을 당한 서퍽짜리 목숨을 떨시와 고뇌속에 근근히 이어가느니 차라리 끊어버려 죽어 복을 누린다는 극락세계에로나 가고픈 충동이 저도 모르게 일어났다.

저 하늘 어데선가 인간세상을 굽어살핀다는 부처가 한 중생의 불쌍한 처지를 슬피 여겨 흘리는 눈물인양 철 이른 봄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던 날 심백은 폭포속에 몸을 던지자고 절간을 나섰다.

산등을 휘적휘적 톱아올라 룡운폭포우의 바위 코숭이에 나서던 심백은 주춤 한자리에 굳어졌다. 산아래 마을쪽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발목이 잡혔던것이다. 제땅에 새생활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서 행복의 줄기를 움틔우던 농군들이 밭머리

에 나앉아 쿵당쿵당 바가지장단을 이어가며 널리야 어깨춤을 흥겨이 취대는 소리였다. 그 소리에 모질게 도사려먹었던 마음이 흔들리었다. 내가 비록 중노릇을 해왔을지언정 백성의 자손이고 또한 그 백성들한테 손톱끝만 한 해를 준 일도 없으니 백성이 주인이 되어 활개치는 그곳에 내가 살아가느라면 뭔가 앞길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미련이 불쑥 살아났다.

용단을 못 내리고 주뭇거리던 심백의 시선이 폭포건너편 산등에 못박혔다.

그곳에선 배장삼을 비웃삼아 걸치고 샷갓을 우산마냥 눌러쓴 홍순이 나물을 뜯고있었다. 오미자덤불과 칙렁쿨을 능란하게 헤치며 바구니에 두릅순을 열심히 따넣는다.

너승의 이모뻘 얼굴에서 피어난 미소가 물안개를 걷히며 빛발쳐와 눈을 시그럽히고 청맑은 노래소리가 부산스런 비소리, 바람소리, 폭포소리를 누르며 들려오는 순간 심백은 가슴이 쿵 울리는 것을 느꼈다.

홍순이가 엿그제 아침 샘터에서 채 하지 못한 말이 절간철폐와 관련한 말이었음이 비로소 깨달아졌다.

심백은 홍순이 저렇게 천연스레 나물을 뜯으며 노래가락까지 뽑고있으나 지금 그의 마음속에선 슬픔의 눈물이 진하게 흐르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다. 홍순은 여섯살때 벌써 남의 집 아이보개로 인생의 설움을 맛본 불행한 녀자였다. 가난에 쪼들리던 부모들이 병으로 비명횡사를 한 후 병신자식을 둔 부자집에 민머느리로 팔려가 온갖 고역을 치르었다. 명색이 시아버지라는 늙은 주인은 병신아들이 죽은 후 점차 꽃망울처럼 부풀어나는 머느리의 육체에 눈독을 들이다가 끝내 어느날 밤엔가 홍순이 자는 방으로 뛰어들었다. 홍순은 있는 힘을 다해 뿌리치고 맨발로 밖으로 달려나와 우물에 몸을 던졌다가 이웃들에 의해 구원되었다.

주인령감은 제 죄행이 탄로날까봐 먼저 군청과 이웃들한테 홍순이가 밤에 약을 쳐 병신남편을 죽였으며 그것이 드러나게 되자 자살을 기도했다고 고발을 했다. 법에서는 홍순을 징역살이시키겠다고 옥박질렀고 이웃들은 악마같은 녀자라며 그를 괴롭혔다. 생활에 환멸을 느낀 홍순은 한많은 세상을 저주하며 산에 들어와 것처럼 탐스럽던 머리태를 잘라버리고 중이 됐다. 해방이 되어 다른 녀중들은 산을 내려오니 그는 《남편을 독살한 악처》, 《뽕뽕대거리 동양중》이라는 비난을 받기가 싫어 민가로 내려가기를 주저하고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싫든좋든 절간에서 나와 어데론가 가야 할,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그 서

글픈 생활의 보금자리마저도 빼앗기고 졸지에 한지로 나앉아야 할 처지에 놓인것이다. 그런데도 비관과 절망을 모르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듯 혼연히 생활을 펴나가는 홍순을 보느라니 심백은 남자인 자기가 지내 웅졸하고 나약했다는 뉘우침이 들어 얼굴이 뜨거워났다.

그래, 목숨만 붙어있으면 생활은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젠 저 바깥세상도 옛날같지 않으니 아무데곤 나가 발만 붙이면 무슨 마련이 나질것이 아닌가. 그러니 살아야 한다.

심백은 부지중 자신의 나이를 세여보았다. 마흔한살... 버리기엔 너무도 아까운 생이었다.

마음을 돌려먹은 심백은 절간으로 되내려왔다.

이튿날 늦은아침 심백 중은 피나리보짐을 메고 퇴마루에 나섰다.

방문을 닫던 그는 그지간 정들여온 승방을, 이제 떠나가면 다시는 영영 보지 못할 절간을, 곧 천조각 만조각의 파편이 되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수도 있는 아까운 건물의 구석구석을 기억속이라도 남겨두자고 점도록 더듬었다. 그러다가 문수보살이며 관세음보살을 거느리고 태연히 앉아있는 청동불상에 이르러 시선이 못박혔다. 자기가 서른해라는 오랜 나날 운명을 의탁해온 《거룩하신 부처님》이었다. 부처님은 운명의 파멸을 당한 한 신자를 무표정히 굽어보기만 한다. 가부좌를 틀고앉은 불상앞으로 다가간 심백은 따지는듯 한 눈으로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목에서 백팔념주를 벗겨 부처의 목에 걸어주었다. ...

하늘공중 떠오른 둥근해는 아무런 근심도 없는 듯 삼라만상을 굽어보며 쟁글쟁글 웃기만 한다. 봄별이 자글거리는 골안에선 아지랑이가 눈시그럽도록 피어오르고있었다.

산속 어데선가 술에 젖고 흥에 뜬 남정의 타령소리가 울려왔다.

고와 보니 고사리고

말아 보니 마타리요

돌아 보니 도라질세

여보 여보 그만뜯고

어서 어서 술쪼주소

...

해방덕에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 산놀이요 뭐요 하며 생활을 즐길 때 자기는 이 좋은 명산과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 다시금 기약할수 없는 운명의 길에 나섰다고 생각하니 심백은 가슴이 미어지고 발길이 선뜻 멀어지질 않았다.

구—구—구?...

산비둘기가 심백 중을 뒤쫓아오다가 동지가 있는 석탑머리로 날아갔다. 그랬다가는 다시금 따라오며 머리우에서 구슬픈 울음을 터뜨렸다.

젖어질듯 날개를 퍼덕이며 목갈린 소리를 지르는 그놈을 애모뻔 여겨보던 심백은 길랑식으로 공저넣었던 좁쌀을 몇웅큼 퍼내 석탑밑에 뿌려주었다.

(식걸 먹고 너도 어디론가 가거라. 너야 아무데서나 살수 있는 날짐승이니 뭐라니. 제몸뚱이 하나 건사할곳 없는 중놈이니 평시에 귀해하던 날새의 보금자리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심백은 젖어드는 눈시울을 습벅이다가 석탑걸을 떠났다.

그가 절간마당을 터벌터벌 벗어날 때였다.

행색이 류다른 남정 여럿이 줄레줄레 대문안으로 들어왔다.

앞에서 걸어오던 농군차림의 사나이가 심백 중의 어깨를 툭 치며반색을 했다.

《그새 무사했구려, 심승!》

《아니?!》

심백은 입이 항 벌어졌다. 그는 어제날의 군영림소장 황봉운이였기 때문이다. 심백은 죽을 모퉁이에서 동무를 만난것만 같았다. 황봉운은 심백 중 아니 이곳 청운사와 연고가 깊은 인간이였다. 그는 군내 림지중에서도 제일 노란자위인 구룡산덕에 자기 팔자가 펴이고 가문도 번창해졌다며 구룡산수호신인 청운사 부처님을 뵈질나게 찾아와 치성을 드리군 했다. 멀지 않아 자기가 도청의 큰 관리가된다고 위세를 뽐내더니 해방이 되자 권세도 가산도 없는 빈털털이로 절간에 나타났다. 대웅전 불상앞에 꿇어앉아 두손을 비비며 행운의 기회를 내려달라고, 저를 알거지로 만든 공산당과 피를 물고 해보겠다고 버러다가 남으로 홀 나간 후 행적이 없었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듯 갑자기?》

《허허 놀랄건 없소. 올만 한 사정이 있어 온거니까.》

심백을 안심시키며 그의 차림새를 훑어보던 황봉운은 불시에 분개한 표정을 지었다.

《오다가 이곳소식을 들었소. 보오, 그때 내 뭐라던가. 공산당은 불도에 대해서도 무자비하다질 않았소. 하지만 이젠 격정안해도 되오. 이 순간부터 청운사는 하느님의 보살핌속에 들테니까. 아울러 심승은 이 사원의 변함없는 주지승이 될것이고.》

《예?!》

심백은 황봉운이 무슨 소릴 하는지 리해가 안되어 고개를 기웃거렸다.

《우리가 마음 놓고 살 그런 세상이 여기 북에도 불원간에 곧 올거요. 하느님의 사도인 미군어른들이 저쪽에서 벌써 군정을 시작했으니까. 그분들의 뜻을 받들고 내가 온것이고 자, 알고 지내오. 나의 동료들이요.》

황봉운은 함께 온 사람들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그가 소개하는 동행자들을 살피던 심백은 맨뒤에 엉겨주춤 서있는 남정을 보다가 흠칫했다. 사파일날 이 곳에 와 소동을 일으켰던 팔원면 면서기였기 때문이다.

불쾌하여 낫색이 달라지는 심백을 본 황봉운은 얼른 그의 어깨에서 피나리보짐을 내리우며 그를 방안으로 이끌었다.

《들어가 다시 보금자리를 펴기요.》

방안에들어선 황봉운은 불상을 위주로 하여 규모있게 갖추어진 비품들을 야릇한 눈매로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불상의 목에 걸린 백팔념주를 벗겨 심백의 목에 씌워주었다.

《심승이 다시 착용하오. 이제부턴 하느님을 위한 념불을 외워야겠소. 부처님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저 미국나라의 하나님은 이 절과 모든 중생들을 따듯이 품안아 영원불멸하도록 보살펴줄것이요.》

무슨 뜻인지 통 알수가 없었으나 여하튼 절간이 무사하고 자기도 그냥 그곳에서 살수 있다가에 심백은 그의 말을 들었다.

3

급작스러운 운명의 회리바람에 휘말린 심백은 한바탕 꿈을 꾸는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황봉운의 출현으로 하여 청운사가 다시금 보금자리로 락착되고 예전과 같은 생활이 흘러갔으나 그는 좀처럼 서먹서먹한 감정에서 헤어날수 없었다. 날이 갈수록 심기가 불안하고 구룡산의 공기가 답답하게만 여겨졌다. 낮에 아래골안쪽에서 켜 날아오르는 소리만 나도 읍에서 총을 멘 보안서원들이 오지 않나 하여 속이 두근거렸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는 누가 자기 목을 비틀어대는 환각이 살아나 식은땀을 흘렸다.

불안감에 시달리던 심백은 어느날 대웅전에서 거처하는 황봉운을 조용히 만났다.

《아무래도 읍에 나가 군어른들한테 사정애기를 하는게 좋을것 같군요.》

그러자 황봉운의 붕어눈이 사납게 치며졌다.

《건 무슨 소리요?》

《이 산도 군에 속하는 산이고 이 절간도 군에서 관할하는 건물이니 군의 허락을 받는게...》

《어리석구려, 심승.》

황봉운은 코방귀를 톡 끼었다.

《그들한테 우리 사정이 통할것 같소? 흥, 천만 부당한 것이지. 우린 청산대상이란 말이요. 이미 우리가 등을 돌려댄 세상이니 끝까지 외면하고 뺏치는게 상책인줄 아오.》

《외면한다구요?! 우리가 먹는 낱알도 그 세상

의 땅에서 나는 낱알이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그 세상의 하늘에서 흐르는 공기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 세상의 산에서 솟는 샘물인데 어떻게 그걸 외면하고 산단 말이웁까.》

이러며 심백이 머리를 젓자 황봉운은 뜻밖에도 반가운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웁소. 외면해서야 안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바로잡자고 왔단 말이요.》

바로잡다니?! 무얼 바로잡는단 말인가?... 어제 날의 천대꾸러기인 가난뱅이들한테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집을 지어준 세상! 근로하는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활개치는 세상! 그게 어쨌다고?

심백은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과도에 밀리우던 사공이 배를 기대일 섬을 만난듯 반갑게 여겼던 황봉운에 대한 좋은 감정은 모래밭의 물처럼 잦아들고 불신과 의혹이 불쑥 살아났다.

(그러니 네놈이 바깥세상과 해보자고 다시 나타났구나.)

그날부터 심백은 황봉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그는 바짝 긴장되어 황봉운의 동향을 눈여겨 살폈다. 황봉운은 함께 온 패거리들을 대웅전에 불러들여 무슨 쑥덕공론을 벌리다가는 절간에서 금하게 된 술내, 고기비린내를 풍기며 먹자판을 펼쳐놓기도 했다.

또 어떤 날엔 절간 뒤울안에서 총쏘는 법, 칼쓰는 법을 익히기도 했다. 그것들이 당장 어떤 사달을 일으킬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위구와 불안에 휩싸인 심백은 어쩌야 좋겠는지 갈피를 못 잡고 날만 보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심백은 노루골안의 폐기발에 조씨를 뿌리기 위해 중당무렵 곱새등을 넘어갔다.

그가 녀승들이 살던 아난암앞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암자안에서 녀인의 찌지는듯 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어 마루우를 우당탕통탕 뛰어다니는 발자국소리가 나고 외지끈 쿵당 무엇인가 엎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심백이 의아하여 멈춰서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홍순이 어푸러지듯 뛰쳐나왔다. 모시치마저고리는 찢겨져 바람에 너풀거렸고 속옷도 누군가의 우악진 손아귀에 의해 만나마 벗겨진 상태였다.

심백을 떠어본 홍순은 본능적으로 젖가슴을 드러내며 바들바들 떨었다.

심백이 무안하여 눈길을 돌리는데 안에서 바지 피춤을 붙잡은 사나이가 나왔다. 《면서기》였다.

《쌍년, 그 잘난 몸뚱아리가 돈보다 더 귀하냐? 돈은 왜 뿌려던져?》

게거품을 물고 씩씩거리던 《면서기》는 홍순을

되마루에다 돌리메치더니 발로 쿵쿵 내리밟았다.

심백은 보다못해 달려가 그놈을 밀쳐버렸다.

《시퍼런 대낮에 이게 무슨짓이요? 사당의 녀승을...》

《당신은 제일이나 할거지 웬 참견질이요?》

《면서기》는 오히려 제편에서 성을 내었다. 그러다가 속이 썩기는지 방바닥에 널려진 돈을 주어가지고 슬금슬금 뽕무니를 사렸다.

심백은 가슴이 활랑거리고 손에 일이 잡히질 않아 씨뿌리기를 단념하고 청운사로 되내려오고 말았다. 호미를 던지고 그길로 황봉운을 찾아들어갔다. 아난암에서 벌어진 사태를 말하며 동료들을 좀 통제해달라고 사정했다.

끝까지 듣고난 황봉운은 허파에 바람찬 사람처럼 실없이 키득거렸다.

《일은 제대로 됐구려. 녀승이 긴긴 나날 독수공방 외로운 생을 보내더니 이제사 이성의 단맛을 보게 됐으니 말이요.》

《?!》

너무 억이 막혀 심백은 말이 다 안 나왔다.

그러는 그를 못마땅히 흘겨보던 황봉운은 담배물주리로 재털이를 탁탁 두드리었다.

《심승도 남잔데 그만한것 하나 리해못해 소동을 피우면서 그러오? 인간을 극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불도의 리념일진대 그래, 녀승의 시들어가는 청춘을 애무해주고 쾌락을 안겨준것이 뭘 잘못했다는거요?》

황봉운의 밋광스러운 상판에 눈총을 쏘던 심백은 입이 쓰거워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말았다.

기분이 잡친 그는 승방에 돌아와 누워버렸다. 팔베개를 한채 얼룩문양의 천정만 뚫어지도록 올려다보는 그의 눈앞으로는 황봉운의 해방전 생활이 주마등처럼 흘러지났다. 왜놈군수를 등에 업고 채벌권을 휘두르며 제노라고 흔들대던 일, 산관수호신인 부처한테 불공을 드린다, 시주를 한다 하며 영림소직원들의 돈을 걷어모아서 절반나마 떼먹군 했다면 일, 립지조사를 구실로 산에 들어박혀서는 절간에 치성드리러 온 젊은 녀자들을 꼬드겨 수육을 채우던 일...

(그래서 새세상은 너를 용납하지 않았구나. 재산을 몰수하고 내쫓기만 한것도 너그러운 처산줄 알거라. 나같은 네놈의 등껍질을 벗겨냈을거다. 이단자 같은 놈.)

심백은 황봉운이 같은자한테 일시나마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의탁했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후회와 허무감에 빠져 자기를 잊고있던 그는 어슬무렵에야 저녁밥 지을 생각이 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에 나와보니 절간이 여느때없이 조용했다. 안에도 밖에도 사람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대웅전쪽에서 울리곤 하던 황봉운의 그 특이한 코맹맹이 기침소리도 나질 않았다. 며칠낮, 며칠 밤을 모여앉아 누굴 죽인다, 무얼 불태우겠다 하면서 떠들더니 그걸 실행하려고 어디론가 다들 떠나간 모양이었다.

영문모를 불안이 심백을 압박했다.

그는 애써 자신을 진정하며 물동이를 안고 쟈터로 향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소나무밭 오솔길을 지나다가 심백은 《앗!》하고 놀란 소리를 내며 우뚝 굳어졌다. 울가미를 목에 걸고 나무밑에서있는 너인을 보았던것이다.

이미 실성하여 머리를 늘어뜨리고 중얼중얼 세상을 하직하는 녀불을 외우는 그 너인은 흥순이었다.

심백은 황급히 달려가 그를 붙들었다.

바오래기를 벗기고 안아내려보니 벌써 너인은 빈사지경이었다.

《어허허... 녀승은 모질기도 하구려.》

심백은 의식이 없는 흥순을 급히 아난암에로 업고 갔다. 너인을 아래목에 눕히고 아궁안에 불을 지피다가 저도 모르게 흐느꼈다.

(자신의 생을 짓밟은 인간세상에 침을 뱉고 산중에서 고달픈 수도를 하더니 오늘 또 이런 불행을 당했구나. 어쩌면 이다지도 운명이 기구하담.)

그러던 심백은 이발을 우드득 갈았다.

《그놈들때문에 녀승이... 불탄당같은 놈들... 기름가마에 태워죽일 놈들.》

심백은 분한 감정을 누를길 없어 장작개비를 들고 뛰쳐일어나 청운사로 내려왔다. 무엇이나 막 들부시고픈 심정을 억제할수 없어 집안팎을 들락날락 하던 그는 불상앞에서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가부좌를 틀고 태연히 앉은 부처님은 인자한 표정으로 심백을 굽어보고있었다.

문득 머리를 깎고 중이 되던 날 자기를 앞에 꿇어앉히고 훈계하던 주지의 말이 귀가에 되살아났다.

《너의 량친이 비명에 횡사하고 또한 네가 일찌기 바깥세상의 버림을 받은것은 다 전세에 지은 죄때문이니라. 현세의 모든 고통을 참으며 불도에 충실하느라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은 래세에 복을 가져다줄것이로다.》

그때 심백은 당돌한 질문을 했었다.

《부처님이란 누구이며 어디서 사시나이까?》

《속세에서 허덕이는 모든 중생의 어버이신 부처님은 저 하늘의 극락세계에 계시니라.》

그날 처음 알게 된 불가의 교리는 아편처럼 어린 녀를 유혹하였다. 7살때 부모를 잃고 험난한 세파에 몸을 맡긴 소년한테는 당장 몸을 의지하고 거처할 곳이 필요하던 때였다. 인생의 고진감래에 대한 설교며 래세에서 열라대왕의 판결을 받고 지옥과 극락으로 갈라진다는 여러가지 경론들과 교리들은 심백의 혼을 흡진기처럼 빨아냈었

다. 더구나 그의 심정을 울린것은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그 슬픔을 못이겨 왕궁을 뛰쳐나가 한생을 방랑했다는 부처(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래 더욱 석가여래를 모신 절간에 마음이 끌렸었다. 너무도 일찌기 인정과 사랑이 어떤것인가를 체념한 심백이었기에 자비의 화신인 부처의 교리를 받들어 불쌍한 인생들을 동정하고 위해주었었다.

하기에 그는 동굴에 숨어 굶기를 밥먹듯 하는 박운섭의 처지가 몹시 가궁해 백성들을 잘살게 하자고 운동에 나섰던 저 어진 사나이를 구원하고 살인마인 경찰놈들을 징벌해달라고 부처님한테 빌었었다. 후날 무사하여 거리를 활보하는 운섭을 만난 심백은 기뻐서 큰소리로 웃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주었구려. 하하.》

심백은 《수리수리마하수리...》를 뇌이며 동냥과 시주받으러 다닐 때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처에 의해 이 세상의 불쌍한 중생들이 모두 행복해질것이라고 믿었었다. 했건만 그 부처님은 어느 한 생명한테도 실제적인 행복을 가져다준적이 없었으며 지어는 한 중의 파멸에 처한 운명조차 건져주지 못하는것이 아닌가?!

(기만이다, 기만... 모든것이 거짓이다. 거짓이 가득 찬 집...)

순간 사과일날에 한 차서방의 말이 드르릉 귀안에서 공명을 일으켰다.

《이런 도깨비소굴은 없애치워야 한단 말이요—》

《옳은 소리였지. 인간에게 행복을 주inker령 오히려 불행만 강요하고 온갖 비행이 빚어지는 이런 집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따위것을 지키는 중은 또 해서 뭘하고.》

실성하여 중얼거리던 심백은 장삼을 벗어 활췌던졌다. 그 서슬에 불상이 모재비로 광 넘어갔다. 심백은 목에 걸고 다니며 애용하던 그 백팔보리수열매넙주를 벗겨 마당으로 뿌려던졌다.

울분이 북받친 그는 땀나무단을 안아다 경당에 산더미처럼 쌓았다.

구—구—구—

밤잠을 깬 산비둘기가 석탑머리에서 화다닥 날아올랐다. 불길한 사태를 예감한듯 숨넘어가는 소리를 지르며 절간상공을 빙빙 돌았다.

(용서해다오. 여긴 우리가 깃을 내리고 한생을 보낼 보금자리가 못되는구나.)

보금자리란 무엇이더냐? 그건 한몸을 근심없이 잠그고 생활을 만족스레 누려나갈수 있는 곳, 때로는 목숨을 내대고서라도 지키고싶고 빛내여가고싶은 그러한 곳이 아니더냐? 하건만...

산비둘기가 멀리 날아나도록 막대기를 내저은 다음 부시를 꺼내 치던 심백은 헉—하고 흐느낌

을 터쳤다. 천여년의 유구한 력사와 하많은 사연을 간직한 청운사! 와보는 사람마다 그 건축술과 장식법을 놓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 절간!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어려있는 유물! 아, 아깝구나— 절통하여 가슴을 두드리다가 설레설레 도리를 저었다. 하지만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이상… 우선 나부터가 너를 용납하고싶질 았구나.

심백은 강심을 먹고 부시를 찼다.

그가 막 불을 질렀을 때였다.

대문밖에서 숨가쁜 말울음소리가 울리었다.

호오웅?…

이어 누군가의 다급한 웨침소리가 날아왔다.

《불을 끄시오!—》

4

촉망히 달려와 불이 당긴 나무단들을 마당으로 내던지고 후—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은 박운섭위원장이었다.

반정신이 나간 심백은 멍해서 그를 보기만 했다.

박운섭은 화재가 일지 못하도록 불씨들을 간간히 긁어모아 발로 밟아죽이고나서 심백 중한테로 다가섰다.

《내 승한테 사죄를 하러 왔습시다.》

(?!…)

뜨아해서 박운섭을 마주보던 심백은 고개를 막 없이 떨구며 중얼거렸다.

《내가 가면 뭘텐데 무슨… 이제야 미련가질것 두 없는걸요. 불을 지르든 폭파를 하든 허물어가든 맘대루 하시오.》

그러자 박운섭위원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불에 끄슬린 심백의 손을 잡아흔들었다.

《승이 이곳에 그냥 놀러앉아 살아도 됩니다. 청운사도 영구보존되교요.》

《?!》 어안이 병병해 굳어진 심백 중을 한참 안심시키고난 박운섭은 전후사연을 이야기했다.

… 청운사에 가 첩폐령을 내리고 온 운섭은 마음이 개운칠 았았다. 30년나마 살아온 집을 버리고 떠나기 피로와할 중, 주인을 잃고 못쓰게될 아까운 건물… 뭔가 죄를 지은 심정이였다.

그 번거로움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벌써 첩폐가 시작된 다른 절간들에서 소요가 일어났다. 도끼를 휘두르며 보안서원한테 달려드는 중, 군에 찾아내려와 설분을 토하는 중, 장마당뒤구석에서 암거래로 사고팔리우는 금불상들…

그무렵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의 보물고적명승 천연물보존령이 공포됐다.

(이게 뭐냐!)

운섭은 환성을 질렀다.

그러다가 머리를 기웃거렸다.

(도의 지시는 왜 다를까?)

뭐가된지 알수가 없어하던 박운섭위원장은 직접 중앙에 올라가 의견을 받아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용단을 내려 평양에 가 북조선공산당중앙 조직위원회를 찾아들어갔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사업을 보좌하는 한 항일투사를 만나 보물고적명승천연물보존령이 공포되게 된 사연을 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얼마전 고산군의 석왕사와 묘향산의 보현사를 찾으셨다고 한다. 장군님께서서는 절간을 돌아보시고나서 건물의 생김새와 건축술을 두고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은 참으로 세상에 자랑할만한 것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았으셨다고 한다.

그러시다가 비바람에 고삭고 사람들손에 뜯기워 못쓰게 된 건물을 보시고서는 노하시여 일군들을 추궁하셨다고 한다. 전국각지의 산속에 있는 절간건물들을 나라의 문화유물로 정하고 영구 보존할데 대한 말씀을 하시였다고 한다.

또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늙은 중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하시고 절간에 남아있는 중들의 생활형편을 료해하신 후 나라에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봐주도록 대책을 취하셨다고 한다.

박운섭은 비로소 도일군의 지시가 옳지 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군에 내려와 해당한 조치를 취한 후 심백 중이 마음에 걸려 말을 몰아 달려왔던것이 다.

《나라에서는 현재 절간에 남아있는 중들한테 문화유물관리원직제를 주어 그들이 국가로부터 식량과 생활비를 받으면서 절간들을 돌보게끔 했습니다. 또한 절간근처의 밭을 관리원들한테 주어 그곳에 약초와 농토산물을 심어가꾸어 생활수입금도 높이도록 하교요.》

꿈같은 소식이었다.

땅이 깨어져 바다가 되고 하늘이 무너져 산이 된것만 같아 심백은 입이 항 벌어졌다.

흉벽을 세차게 치는 충격을 이길수 없어 목적없이 몇걸음 옮기던 그는 갑자기 현훈증이 일어나 비칠거렸다. 경당기둥에 두팔을 짚고 가까스로 자신을 지탱했다.

심백은 기둥에 의지하여 편히 상반신을 눕히고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달빛, 별빛이 사이좋게 어울리며 금실은실로 부서져내리는 검푸른 숲속에 합각지봉을 학의 날개마냥 번듯이 추겨들고 았은 절간건물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안겨왔다.

(정녕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구룡산과 청운사를 내 삶의 보금자리로 되게 하여주신 운명의 성인이지!)

걱정에 잠겨있는 심백을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던 박운섭위원장이 조용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없었다.

《그러니 마음을 안착시키고 새생활을 떠나가도록 하십시오. 참, 그 아난암의 녀승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한테도 소식을 전하고 해당한 수속을 하도록 해야겠는데.》

《그는… 그 녀인은…》

복받치는 비감과 걱정으로 하여 말을 잊지 못하던 심백은 얼마후에야 진정하고 그시간 구룡산에서 벌어진 일들을 이야기했다.

박운섭은 불시에 분개한 표정을 지었다.

《나쁜 놈들!》

어서 녀승한테 가보자며 박운섭은 자리를 털고 나섰다.

심백은 당황하여 그의 앞을 막았다.

《그곳은 위원장어른이 행차할데가 못됩니다.》

《왜요?》

《저…》

《그러지 말고 어서 갑시다.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뭘 이것저것생각할게 있습니까.》

박운섭은 제 먼저 대문을 열고 나갔다.

두사람은 말을 앞세우고 아난암으로 향했다.

홍순은 승방에 나른해 누워있었다.

심백이 꼴을 풀어 먹이고 급소를 문질러놓은 덕에 혼미하게 의식은 차렸으나 심리적타격과 육체적부담이 너무 지나쳤는지라 그때까지도 빈사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있었다.

녀승의 상태를 관찰하던 박운섭은 병원치료를 받아야지 안되겠다며 그를 말에 싣도록 했다.

박운섭위원장은 심백한테 구룡산의 절간들을 잘 돌봐달라는 당부를 남긴 후 홍순을 실은 말을 몰고 산을 내렸다.

5

다음날 오후 황봉운네 패거리들이 청운사에 다시 나타났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꼬이 험상했고 눈에선 살기가 번뜩거렸다.

놈들이 심백을 대하는 태도도 전갈지 않았다.

물그릇을 들고 청소를 하자고 대웅전으로 가던 심백은 퇴마루에 올라서다가 주춤거렸다.

황봉운의 건방진 말소리가 창호지를 드르릉 흔들며 울려나왔던것이다.

《공산당이 이젠 부처님의 극락세계에까지 붉은 마수를 뻗치려한단 말이지? 흥, 어렵도 없어. 그들이 그 어떤 수를 쓴대도 우리 마음속의 극락세계만은 어찌지 못할걸.》

심백은 문밖으로 얼핏 안을 들여다보았다. 일여덟명의 남정들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 한창 무슨 공궁이를 벌리고있었다.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리는지라 그 내용은 잘 알수는 없었으나

토막토막 들려오는 말마디들을 보니 그들이 지금 바깥세상과 크게 해볼 음모를 꾸민다는걸 짐작됐다.

심백이 물그릇을 내려놓고 돌아설 때였다.

《면서기》의 야멸찬 목소리가 귀등을 치며 들려왔다.

《영보, 넌 래일 량민으로 둔갑하여 읍에 내려가 우리가 절간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걸 알려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들이 절간을 구원하자고 올것이다.》

상서롭지 못한 예감이 심백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황봉운네가 당장 무슨 불상사를 일으킬것 같아 그들의 동태를 눈여겨 살폈다.

점차 놈들이 노는 꼴이 심상칠 않았다. 절꼭거리며 총을 뜯어 닦는 놈, 참외알만 한 시꺼먼 쇠덩어리를 트렁크에서 꺼내 피춤에 찌르는 놈, 토방돌에다 칼을 썩썩 가는 놈…

어느 한 방에 들어갔던 심백은 짐보파리를 쫓지며 머물거리는 《면서기》를 보았다. 보파리안에는 절간의 귀물인 금불상, 향로, 그림불이들이 들어있었다.

심백은 얼른 다가가 보파리를 빼앗았다.

《이 귀중한것들을 왜 횡취하려는거요?》

《귀중한거기때문에 절간에 두고 썩일수가 없어 그러는거요. 돈으로 전환시켜 유용하게…》

《이보시오, 이젠 우리 절간의 귀물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젠 나라의 재산이란 말이요!》

그러고는 짐보파리를 안고와 자기 방에 든든히 건사했다.

심백이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한놈이 화약꾸레미를 안고 석탑쪽으로 갔다.

놈은 석탑밑을 파더니 화약을 다저넣는것이였다.

심백은 소스라치듯 놀랐다. 그는 황망히 달려가 그자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이 말못하는 돌탑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거기다 남포질을 하려는거요?》 그러자 놈은 《공산당을 천당에로 보내는 징검돌로 쓰자고 그러오.》하더니 더 간참하면 죽여치우겠다며 권총을 내들었다.

심백은 놈들이 군일군들과 보안서원들을 절간으로 유인해다가 건물도 사람도 동시에 없애치우려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구—구—구—

석탑밑에 묻히는 화약꾸레미를 본 산비둘기가 질겁하여 어데론가 날아가버린다.

끔찍스런 참변이 당장 눈앞에 펼쳐질것 같아 온밤 잠을 못 이루고 몸을 떨던 심백은 이른날 아침 박운섭위원장한테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절간을 나섰다.

그가 절간주변을 벗어나 골안길에 막 내려설 때였다.

황봉운이 불쑥 나타나 앞을 막았다.

심백의 일거일동을 감시하고있다가 김새를 채고 길을 앞지른것이였다.

《심승, 어딜 가오? 손님들의 부조덕에 량식은 넉넉한지라 예전처럼 아침동냥질은 안해도 될텐데.》

《...》

황봉운의 얄미운 상통을 원망에 찬 눈으로 쏘아보던 심백은 속에서 울꺼져리는것을 쏟아놓고 말았다.

《당신은 어이하여 새세상과 피를 물고 해보는 거요?》

그러자 황봉운은 쓰겁게 웃으며 뇌까렸다.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한다는 그들의 리념이란 싫단 말이요. 당신네 불가의 세계에도 맨우에 부처님이 존재하고 그밑으로 성인의 경지에 이른 보살들, 고행에서 해탈한 도사, 열반상태에 있는 신자, 고행을 겪고있는 중생이 있듯이 사회란것도 갈단 말이요.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제 능력과 재간, 타고난 팔자에 따라 해당하는 계층에서 살게 돼먹었거던. 그건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야. 모두가 잘살고 모두가 량반이면 일은 누가 하고 관리는 누가 하겠소.》

(바로 그래서였구나!)

패섬한 감정에 이를 갈던 심백은 《난 나같은 천대꾸러기 가난뱅이들을 위해주는 이 세상이 중단 말이요.》하고 웨치며 황봉운을 지나쳤다.

그러자 머루넝쿨뒤에서 체통이 황소같은 놈이 쑥 나오더니 심백의 뒤덜미를 움켜잡았다.

놈들은 발버둥치는 중을 질질 끌고 마당안으로 들어갔다. 그를 석탑에 기대세우고 바오래기로 꽂꽂 묶었다.

황봉운이 총끝으로 심백의 여윈 볼을 툭툭 건드리며 물었다.

《허공에 한줌 먼지로 뿌려질 이 석탑과 운명을 같이하겠소. 아니면 우리와 뜻을 함께 해 재부와 권세를 얻겠소?》

심백은 그놈의 얼굴에 침을 뱉고말았다.

그때 산등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차서방이였다. 봄농사에 쓸 후치감을 찍으러 갔다가 놀라운 사태를 목격한것이였다.

차서방은 사람들에게 알려자고 뛰쳐내려갔다.

그가 골안을 벗어나는데 앞쪽에서 말을 탄 여러명의 사람들이 질주해왔다. 박운섭위원장과 군보안서원들이였다.

선두에서 말을 몰아오던 박운섭이 차서방을 보고 말을 세웠다.

《반동놈들이 절간에 불을 지른다는게 사실입니까?》

차서방한테서 지금 청운사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해들은 박운섭은 촉급히 말고삐를 잡아챘다.

《위험하우다, 위원장어른!》

《우리 한목숨 위험한거야 뭐랍니까. 나라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위험에 처하고 새 나라의 주인이 되여야 할 한 인간이 죽게 된게 더 큰일이지. 자, 동무들 빨리!》

기마행렬은 황토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골안길을 치달아올랐다. ...

심백은 흥미한 의식속에서 쿵뽉뽉하는 총소리와 광광 수류탄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

소요가 잦아들고 피이한 정적이 흐를 때에야 정신을 차렸다.

악당들의 시체가 널린 마당에 보안서원들이 비감에 잠겨 빙 둘러서있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박운섭위원장이 왼쪽어깨를 부여잡은채 주저앉아있었다.

심백은 박운섭한테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이 어찌된 일이슈? 위원장어른!—》

그 소리에 박운섭이 무겁게 고개를 돌렸다.

심백을 알아본 그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심승, 이젠 맘놓고 이곳에 생활의 보금자리를 퍼십시오.》

상처가 몹시 아파나는지 박운섭은 말을 채이지 못하고 고개를 맥없이 돌렸다. 심백은 미더운 인간의 후더운 가슴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구—구—구—

어데론가 날아갔던 산비둘기가 등지가 있는 석탑에 다시 돌아와 절간마당을 굽어보며 날아왔다. ...

탄부의 말

김영택

애국!
한없이 고귀한 말
땅밑의 탄을 캐며
나는 조용히 마음속에 외워본다

석탄!
수수만년 땅속에 고이 묻혀
오랜 세월 캐고 또 캐왔건만
오늘처럼 너를 쥐고
그리도 자랑스레 외워본적 있었던가

강성대국건설의 돌격선에서
그이름도 금지높은 석탄전선
탄벽을 마주한 탄부 나의 심장은
너를 안고 불붙는다 세차게 뛴다

총이 없는 병사를 생각할수 없듯
네가 있어서가 아니었더냐
새해 첫아침 땅밑으로 더 깊이 가는
탄부의 길을 조국이 아는것은
내 쌓아올리는 석탄산에 받들려
강성대국 새아침이 더 빨리 밝아오는것을

탄부 나의 심장은

너를 위해 뛴다
나의 가슴은 너를 안으려 넓다
지칠줄 모르는 나의 열정도
투쟁과 생활과 품고있는 희망도
너를 안고 시대와 나는 이야기한다

석탄!
너는 이 땅의 열이며 빛
네가 불붙어 타번지는 주홍빛 화광에서
나는 본다 듣는다
행복이 넘치는 불밝은 창가와
인민의 얼굴마다 피어나는 꽃같은 웃음을
두줄기 궤도우에 울리는 우렁찬 기적소리를

흐뭇하기만 하구나
큼직한 탄발을 타고왔는데
이 아침의 기쁨만도 크나큰데
이 탄이 세상을 향해 소리쳐 불려올
밝은 래일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가

마음의 신들메를 든든히 조이며
서둘러 산갈은 탄벽을 밀며
자신에게 말하듯 탄에게 다 새겨넣는다
너는 탄부의 애국이고 량심이라고

×

우리 두사람은 구룡산등판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소나무숲 울창한 산기슭에 자리잡은 청운사가 한눈에 안겨오는 곳이었다.

우리의 눈길은 한낮의 해별에 푸른 광채를 반사하는 청기와지붕에서 좀처럼 떨어질줄을 몰랐다.

청운사!... 세월의 언덕을 넘어 다시금 행운을 받아안은 집이다.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얼마전 깊은 산속의 이름없던 절간을 찾아주시셨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날 국가의 혜택속에 행복한 후반생을 보낸 심백, 홍순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부모의 뒤를 이어 수십년간 심심산중에서 살며 력사유물을 돌보아온 구룡산문화유적관리원에 대한 소행도 료해하시고 그를 선군시대의

공로자로 내세워주시였다.

아울러 청운사를 보다 훌륭히 개건확장하고 도로와 휴식각을 새로 건설하도록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그 전설같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자고 나도 청운사를 찾아왔었고.

좌— 좌아!—

건설자들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는 골안쪽에서 서늘한 산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에 무성한 수림이 파도친다. 새소리, 폭포소리가 바람소리와 어울리며 산등과 골안마다에서 요란스런 울림을 일으킨다. 좌—아—아—아—

그 울림소리는 마치도구룡산의 목메인 웨침소리 같기도 했다.

이 땅, 이 민족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이 과연 어느 뉘들이었더냐! 하는...

청춘의 심장은 겨울을 몰라

김남호

또 한해를 달음쳐 살자
청춘의 더운 가슴 뚫게 하는 새해여
네 아무리 사나운 눈보라 몰아와도
종구나
청춘의 심장은 겨울을 몰라

언땅을 까며 팽이날엔 불꽃 튀고
번개같은 거름삽질 성수가 났다
눈이불 함뿍 쓰고 잠든 대지에
봄맛이 가자 소리치듯
어여썬 눈보라속 나는듯 내달려
그득그득 거름을 퍼나가니

겨울이 겨울답게 얼곤 대지는
배미배미 거름옷 갈아입으며
심장이 더웁힌 봄기운인양
훈훈한 뜬김냄새 피워올린다

포전머리의 경쟁도표는
어느새 하루계획 치달아오르고
속보원 순회는 감탄에 바쁘다
이 기세면
한해농사 하루에 지을가부라고

하나 이쯤에랴
우리는 숨웃을 벗어내친다
보라 눈보라여
달음치는 영철이 저 이마에
땀으로 녹아내리는 겨울을

비록 걸음은 오늘에 새겨도
또다시 주공전선으로 우리를 불러준
공동사설이 피를 끓이고
마음은 벌써 한해를 다 안고
새해의 첫자욱을 찍는 우리거니
문지 말라
봄은 어디바루 왔는지
가을은 얼마나 먼지

인생의 봄시절 조국을 위하여
억제 못할 삶의 열정에 북받쳐 달리는
청춘의 심장은 겨울을 몰라
눈보라를 녹이고 겨울을 휘잡으며
이 땅 가득히 봄빛을 엮어간다

아 조국이 준 피끓는 심장을 바쳐
우리는 조국의 젊음을 가꾼다

세계작가일화

축하시를 받은 물리학자

단마르크의 이름있는 작가 안데르센은 전기가 흐르는 도선의 주위에 자기마당이 생긴다는것을 밝힌 단마르크의 물리학자 와르스테드의 공로를 찬양하여 이런 시를 남기였다.

당신의 마음에
번개와 같은 착상이 번쩍일 때면
과학의 왕국은 그 빛으로
당신이 가리킨 진리의 보석에
아름다운 자태를 빛내여주었도다

세계적인 아동작가로부터 이런 축시를 받은 물리학자 와르스테드는 뮌헨하브대학에서 교수로 일하였다. 1820년 어느날 아침 강의하러 가는도중 기발한 착상이 떠올라 강의실로 달려와 곧 실험준비를 서둘렀다.

강의받으러 들어선 학생들은 영문을 몰라 지켜보고있는데 교수는 그것도 모르고 볼따전지에 전기를 늘이고 라침관을 가져다놓은 후 전지의 극을 바꾸어보며 자기 실험에만 몰두하였다.

강의가 끝나는 종소리가 나자 혼자서 기뻐서

미소를 짓는 교수를 보고 학생들은 선생이 너무 연구에 몰두하다나니 정신이상이가 생긴것이 아닌가 하고 근심하며 조용히 물러났다. 그러나 그 시간에 와르스테드가 세계적인 의의를 가지는 전기와 자기의 호상관계에 대한 위대한 발견을 진행한데 대해서는 누구도 몰랐다.

와르스테드는 그해에 자기의 발견을 써서 학술잡지 《물리화학년보》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이 나가자 유럽의 이름있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달라붙어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직류발전기가 개발되고 전기문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와르스테드는 마음이 어질고 인정이 많은 학자여서 작가 안데르센을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었는데 자식이 없었던 안데르센은 죽으면서 와르스테드의 자식들에게 자기가 쓴 동화원고의 전부를 넘겨준다는 유언과 함께 그 시를 남기였다고 한다.

향토애의 정서가 짙게 풍기는 특색있는 형상

-단편소설 《왜가리떼 날아들 때》에 대하여-

김봉매

우리 문학이 내세우는 인간문제는 선군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형상을 통하여서만 옳게 밝혀진다.

매일을 더 사랑하는 우리 선군시대의 아름다운 인간들은 그 어떤 대가나 명예를 바랄이 없이 조국강토를 더 훌륭한 낙원으로 가꾸기 위하여 참된 사랑과 열정을 이 땅에 쏟아붓고있다. 이렇게 하는것을 의무로, 삶의 전부로 간주하고있으며 또 이렇게 사는것은 오늘 선군시대 사람들의 생활신조로 되고있다.

이런 시대적흐름속에서 우리 시대 고상한 인간들의 아름다운 생활이 펼쳐지고있으며 우리 문학은 이 아름다운 선군현실속에서 종자를 찾아내고 특색있는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그 사상정서적감화력을 더욱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의 심장에 창조의 불씨를 지퍼주고 창조적열정을 불려일으키며 정서적체험세계에로 이끌여주고 창조적현상의 나래를 달아주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여야 문학의 종자로 될수 있다.》

단편소설 《왜가리떼 날아들 때》(김영희 작)는 선열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을 새 세대들이 피보다 더 진한것을 묻고 가꿔나가야 한다는 심오한 종자를 가지고 향토애가 짙은 정서적인 화폭을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을 읽거나면 소설을 읽었다기보다 한편의 서정시를 읽은것만 같다.

그만큼 작품이 강렬한 정서적여운을 주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의 형상이 향토애에 폭 젖은 인물로 감동깊게 형상되었기때문이다.

주인공의 이름보다도 《왜가리령감》이라는 그 별칭부터 벌써 향토애가 진하게 풍기고있다.

《왜가리령감》의 한생은 왜가리를 위해 바친 생이라고 말할수 있을 정도로 왜가리와 깊은 《정》을 맺고있다. 예로부터 동자동마을의 제일 멋스러운 풍경은 왜가리떼였다. 그런 왜가리떼가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의 맹폭격으로 이 고장을 뜯은 후로는 다시 날아들지 않았다. 이를 제일 가슴아프게 여긴것은 《왜가리령감》이었다.

그는 고향의 그 아름다운 풍치를 기어이 마련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며 그 길에서 순직한다. 하다면 《왜가리령감》의 그 뜨거운 향토애의 바탕에는 무엇이 젖어있었는가!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없는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마음이었다.

해방직후 고향 동자동마을을 떠나 남포로 이사를 가려고 작정한 수봉이(《왜가리령감》의 아들) 아버지는 뜻밖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게 되

었다. 그때 수행하던 사람들이 강물우에 솟구치는 잉어를 사냥총으로 잡으려고 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저지시키시면서 저기 강물우에서 노니는 왜가리떼를 좀 보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강산을 다시 찾자고 얼마나 험난한 길을 헤쳐왔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이 풍경을 보기만 해도 그동안 쌓인 피로가 다 가셔진다고, 잡수시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날의 우리 수령님의 모습은 수봉이 아버지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일생을 《왜가리령감》으로 살게 하였던것이다.

《왜가리령감》은 고향땅의 재부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는 현상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가차없이 추궁하는 동리에서 가장 《센》 사람이다. 우로는 농장일군들과 아래로는 마을조무래기들에 이르기까지 《왜가리령감》의 지청구를 듣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기에 김익준할아버지(《왜가리령감》의 이름)라면 다 몰라도 《왜가리령감》이라면 온 마을이 알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속에는 아름다운 왜가리떼와 함께 《왜가리령감》이라는 별칭으로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향토애에 젖어있는 인간!

주인공의 이러한 형상은 작품의 종자해명에서 중요한 몫을 안고있다.

작품은 다음으로 생활을 한쪽의 그림마냥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다.

작품은 우선 자연묘사, 환경묘사 등이 너무나도 생동하고 현실감이 나는것으로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저절로 작품의 세계로 끌려들게 하고있다.

작품의 첫 부분에서의 동자동마을의 전경묘사에서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빙 둘러싼 아늑한 곳에 자리잡은 마을과 그 마을을 에돌아싼 파란 비단필인듯 한 남강 그리고 해맞이산의 동자바위전설과 그 아근에서 깃을 치며 노니는 왜가리떼 등은 그야말로 한쪽의 산수화를 감상하는듯싶다.

작품에서는 장난꾸러기들이 개구리 같은 동물들을 망탕 잡아 《왜가리령감》의 육을 먹고 그후부터는 그 애들의 별명이 《떡장구》, 《까투리》로 되는 이야기그리고 하루일을 끝마친 농장의 처녀총각들이 파원속에서 손풍금을 타며 《황금나무 등금나무 산에 심었소》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 농장마을에서만 볼수 있는 정서적인 생활화폭을 펼쳐고있다.

이러한 형상은 소설에서도 시와 같은 서정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은 또한 단편소설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립체적인 구성조직을 한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있다.

우선 작품은 《나》의 시점에서 회상식으로 주

인공의 긴 한생과 그 후대들의 생활까지 감칠맛 있게 형상하였다.

작품은 《나》의 할머니를 통한 《왜가리령감》의 과거생활과 《나》의 철부지소년시절, 중학시절생활을 《왜가리령감》과의 직접적인 관계속에서 두 세대에 걸치는 비교적 긴 생활내용을 단편 소설이라는 작은 형식에 담아 잘 형상하였다.

작품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며 인물관계가 복잡하게 맺어지는데 맞게 구성이 립체적으로 조직되어있다.

《왜가리령감》을 중심으로 《나》와 봄순이, 판리위원장인 《나》의 아버지와 진료소의사인 《나》의 어머니, 옛날 《왜가리령감》과 오랍누이로 지내며 자랐다는 《나》의 할머니와 그리고 기차선생을 비롯한 성격화된 인물은 물론이고 마을청년들과 《떡장구》, 《까투리》와 같은 장난꾸러기들, 뽕술을 만들어 팔자는 군식료공장 지배인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사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는 생활을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립체적으로,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다양하게 펼쳐지고있다.

이것은 하나의 주제를 제기하고 해명하는 단편 소설에서는 인물관계도 그만큼 단순해야 한다는 도식에서 벗어난 작가개성의 발현이다.

물론 작품에 일련의 부족점들이 있다.

작품에서 마을청년들이 아름다운 과원속에서 그야말로 향토애가 흘러넘치는노래를 부르고있는 부분은 독자들에게 큰 정서적감흥을 주며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런데 불현듯 《왜가리령감》이 나타나 청년들이 소란을 피워 왜가리가 날아들지 못한다고 욕을 한다. 왜서 청년들이 왜가리들이 둥지를군 하던 바로 그 파수막에서 퐁퐁퐁퐁 떠들썩 노래를 부르게 하였는가? 여기에는 왜가리를 강조하려는 작가의 주관적의도가 지내 앞선것 같다.

그리고 전쟁시기 최후결전을 앞두고 《왜가리령감》의 아들 수봉이가 보낸 편지에서 고향의 왜가리를 위하여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치겠다고 한데서도 왜가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작가의 주관이 로출되고있다.

이러한 부족점들을 극복하였더라면 더 훌륭한 작품으로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외국작가소개

네크라소브,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츠

로씨야의 이름있는 작가였던 네크라소브, 니콜라이 알렉세예비츠(1821.12.10~1878.1.8)는 불가강류역 야로슬라브현 네미로브시의 대귀족지주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무지막지하고 잔혹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고 한다. 령지에서 벌어지는 아버지의 가혹한 행위와 족쇄를 차고 끌려가는 류형수들, 불가강에서 힘겹게 배를 끄는 인부들의 모습에서 불행과 고통을 당하는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깊은 동정, 억압에 대한 반항심이 생겨났다.

장차시인이 될 희망을 품고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은채 중학교를 중퇴하고는 1837년에 빼제르부르그에 가서 고학생이 되었다. 아버지는 자기 의사를 따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이 패썹하여 한푼의 방조도 주지 않았으므로 한조각의 빵과 푼전을 벌기 위해 필사, 교정, 대필, 가정교사를 하면서 빼제르부르그종합대학의 청강생이 되었다. 잉크가 없어 장화에 발랐던 구두약을 굵어 물에 타서 썼으며 하숙비를 물지 못하여 쫓겨나서는 거리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거지들이 거처하는 다리밑에 있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층민들과 똑같은 이러한 생활체험과 벨린스끼, 체르니웬스끼 등의 영향밑에 직업적시인으로 자라나면서 혁명적민주주의사상에 공명해나섰고 전제제도를 반대하며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보적립장에 서게 되었다.

당시 로씨야문학운동의 중심이었던 잡지 《현대인》, 《조국잡보》의 동인으로 있으면서 진보적

문학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처녀작시집 《소원과 음향》에서 실패한 후 새로운 힘을 기울여 《정원사》, 《뜨로이까》, 《고향》, 《어두운 밤거리로》, 《정문앞에서의 묵상》, 《아이들의 울음》을 비롯한 서정시들을 썼다. 1863년에 서사시 《눈보라》, 1864년에 《철길》을 창작하여 인민들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고 압박자들의 죄행을 폭로하였으며 인민의 힘을 긍정하고 훌륭한 미래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그들을 호소하였다. 1870년에 창작한 서사시 《할아버지》, 1866년~1876년사이에 창작한 《로씨야에서는 누가 살기 좋은가》등에서 이러한 사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서정시 《내집이 가장 좋다》, 《떠나가는 사람에게》, 《젤로니 숲》, 서사시 《정적》과 같은 애국주의적주제의 작품들, 서정시 《시인과 공민》, 《애가》, 《도브롤류보브를 추억하여》, 《엔. 게. 체르니웬스끼》와 같은 시와 문학의 사명, 선진적인 작가들에 대하여 노래한 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네크라소브는 제한된 민주주의사상의 테두리안에서 불합리한 사회로부터의 출로를 제시하지 못한 부족점이 있으나 인민적인 새로운 시가형식과 시어를 탐구하고 진실성과 소박성, 민요적인 운율을 창조하여 시가를 인민생활과 접근시킴으로써 뽀슈킨과 레르몬토프의 뒤를 이어 로씨야의 사실주의시문학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올해 1월은 작가가 사망한지 130돛이 되는 때이다.

전류가 흐른다

김춘길

함박눈 내려쌓인 구내길에
우리는 새해의 첫 자욱을 새긴다
또다시 총진군으로 부르는
공동시설의 구절을 선서처럼 외우며

불붙는 화실의 온도보다 더 뜨거운
발전소로동계급 우리의 심장을 굳게 믿어
우리 당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
승리의 화살표로 그어진 이 진군길

전기 전기가 것처럼 귀중하기에
한밤을 지새며 타빈을 지켜온
발전기운전공도 지배인도 당비서도
지칠줄 모르는 새힘을 더하며
이해의 첫 진군길에 펼쳐나선 대동력기지어

전기 전기가 많아야
온 나라 공장의 기대마다 만부하 걸어
집집의 밝은 웃음을 더해줄수 있고
질 좋은 제품이 폭포처럼 쏟아질수 있거니
더 아름다워질 우리 생활 우리의 행복 위해
우리는 새해의 첫 자욱 신심높이 내짚는다

이 한몫 바쳐 열밤을 새워도
더 일하고싶은 새해의 진군길이어
보아라 세찬 불길이 타번지고있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자욱 어린

보이라며 타빈발전기마다
만부하 만가동의 동음소리 높이 울려
전력증산의 새 기적이 창조되거니

화실에서 타는것은 석탄만이 아니다
타빈발전기는 증기로만 돌지 않는다
애국에 불타는 우리의 마음
장군님 따르는 하나의 신념이
거세찬 동음소리로 전기되어 흐르거니

흐르는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은빛송전선이여 너는 우리 마음 안고
장군님 손들어 가리키시는
공장과 농촌 그 어디에든 달려가리라
달려가 기대의 벅찬 동음으로
선군길 가시는 우리 장군님 기쁨이 되리

아 우릴 믿어 더 큰걸음 내짚을 조국아
경제강국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 네 모습 그리
며

이 하루처럼 한해 또 달리리라
장군님 결사옹위 전조선 대동력기지에
전류가 흐른다
새해의 불타는 신념과 맹세가
온 나라에 뜨겁게 흐른다

조선속담

가정, 자식

- 자식의 잘못을 꾸짖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기
가 벌을 받는다
- 부모를 존경해야 아들이 존경을 받는다
- 부모들이 바르면 자식들도 바르고 부모들이
빼뺏어지면 자식들도 빼뺏어진다
- 수수를 심었으면 종대를 다치지 말고 아이를
가르치려면 자존심을 꺾지 말아야 한다

유모아

기술적진보

한 이름난 기술자가 유명한 너배우에게 기술적
진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식시키고있었다.
《아가씨, 100년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전화를
결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돌리면 되
는 단순한건데...》

한삼 더 담아주오

리동수

삼자루가 부러지도록
폭폭 떠담아주오
기름이 철철 흐르는 이 거름
내 걱정일랑 말고
한삼 더 담아주오

지금은 한겨울
논과 밭은 눈속에 묻혔어도
흰김 물물 피어나는 거름더미
포전마다에 듬뿍이 쌓아가오

올해에도 주공전선으로 불러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믿음
공동시설의 힘찬 글밭
한가슴 가득히 안고나선
농민의 일육심에 불을 나누나

더 한삼 더—
누구나 하는 그 한마디
이 말속엔 깃들어있소
철을 앞당겨 봄에 사는 마음
푸른 들을 펼쳐가는 마음

후덥게 피어나는 흰 김속에
잘 영근 이삭들이 어려오고
물결쳐 설레이는 들판마다에서
가을바람에 흐르는 구수한 난알향기
한껏 들이켜보오

무거울가 주저 말고
한삼 더 담아주오
그 한삼 한삼에
땅을 가꾸는 순결한 마음
우리 량심의 무게를 엮는 심정으로

농민의 애국심은
벌가득 높이 쌓는 쌀날가리에 있어
무겁게 실리는 그 한삼 한삼에
마음은 가벼워만 지오

오늘에 너와 나
더 지는 그 한삼에
우리 장군님 이 땅에 불러오신
강성대국의 려명은 더 밝아지고
저저마다 하는 그 한마디에
이 땅엔 행복이 더 무겁게 실리오

외국작품소개

《로저 액클로이드의 살인사건》

《현대추리소설의 너왕》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영국의 녀류작가 크리스티 (1890.7~1976.1)가 1926년에 창작한 장편추리소설 《로저 액클로이드의 살인사건》은 황금을 노린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상속문제와 애정문제를 교차시키면서 사건을 전개해나가다가 현명한 탐정에 의하여 살인사건의 진모가 밝혀지고 살인자를 적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영국의 킹즈 애버트마을에서 살던 액클로이드라는 차륜공장경영자가 자기 집에서 누군가에 의하여 살해되는사건이 일어난다. 그의 시체는 무기명전화를 받고 온 셰파드의사에 의하여 발견된다.

그리하여 이웃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살인사건의 혐의자로 되며 특히 액클로이드의 양자 펠프에게 의혹이 집중된다. 이때 액클로이드의 조카 플로가 자기 삼촌의 살인사건의 내막을 해명하여 줄것을 셰파드의사의 옆집에서 사는 벨지끄의 개인형사 헤르킬 빠로에게 의뢰한다. 빠로는 셰파드에게 자기의 조수가 되어 살인사건해명에 협력

해줄것을 부탁한다. 빠로는 살인혐의자들과 사건 현장에 나타난 사소한 흔적까지도 놓치지 않고 세밀히 조사해나간다. 이 과정에 그는 살인혐의자들이 액클로이드를 죽인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조수인 셰파드의사가 진짜 살인자라는것을 움직일수 없는 사실자료들과 증거를 가지고 밝혀낸다.

소설은 셰파드의 관찰과 사색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묘사하고있으며 궁극에 가서는 그 의사자신이 살인범이라는것을 놀라운 창작수법으로 까밝히고있다. 저자는 마지막까지도 살인자가 누구인가를 전혀 짐작할수 없게 작품을 구성함으로써 흥미를 한층 더 돋구고있다.

작품은 황금을 위해서라면 살인까지도 서슴치 않는 자본주의사회의 인간을 비판하였으며 형식과 구성에서 다른 추리소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나의 부모님들은 건설자였다.
아버지는 운천군건설사업소 지배인을 하다가 전쟁시기에 입은 상처의 후환으로 일찌기 돌아가시었고 어머니는 처녀시절부터 아버지가 지배인으로 사업하던 건설사업소에서 년로보장나이가 지나도록 미장공으로 일을 하였다. 이제는 어머니의 머리에 흰서리가 다복이 내리었다.

내가 건설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들이 일하시던 건설사업소에서 직장장으로 일하다가 지배인으로 임명되었을 때 어머니는 나의 손을 어루스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었다.

그날 어머니는 내앞에 빨간 비로도천으로 정히 싼것을 꺼내놓았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무심중 풀어보았다. 그것은 다 닳아져 식칼처럼 보이는 미장칼이었다.

이제는 다 닳아져 쓸모가 별로 없어보이는 미장칼이었으나 자르르 흐르는 은백색광택은 퍼그나 소중한 간수했던것이라는 느낌을 다분히 안겨주었다.

《아버지가 한뼘 쓰시던 미장칼이다. …》

미장칼을 정깊게 살펴보는 어머니의 추연한 눈빛에는 저 멀리 흘러간 세월의 추억이 어려왔다.
...

1

전쟁의 폐허우에도 예나 다름없이 봄은 찾아왔다. 조국해방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끝난 이듬해 봄이었다.

전상자병원에서 퇴원한 리범수는 부상당한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한채 전우의 고향부터 찾았다.

그가 운천에 도착했을때는 서쪽하늘가를 감빛 노을이 짙게 물들이는 저녁무렵이었다. 그는 전우의 고향땅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크지 않은 열두개의 봉우리가 성벽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그 한가운데를 꿰질러 비류강이 유정히 흐른다. 강 량쪽대안에는 폭격에 허리가 부러지고 소이탄에 꺼멍게 그슬린 버드나무들이 드문드문 보

였는데 그래도 봄기운을 받아 가지마다 파릇한 잎을 피워올리고있었다.

(저 나무들도 전쟁의 상처를 입었구나.)

리범수는 버드나무가 줄지어 서있는 강변을 아픈 눈길로 바라보았다. 축축히 물기가 내뻗 리범수의 눈가에는 짙만 있으면 고향자랑을 하던 림선준의 모습이 떠올랐다.

《범수! 우리 고향은 향선루로 유명한 운천땅일세. 경치는 참 볼만 하오. 그 향선루에 올라 밑을 굽어보면 비류강이 유유히 흐르지. 또 강변에는 100년은 실히 자랐을 버드나무가지들이 너인들의 머리태마냥 실실이 늘어져 바람에 흐느적이는 모습은 참말로 장관일세. 그런데 미국놈들이 그 소중한것들을 파괴하려고 줄폭탄을 퍼부었다더군. …》

마디마디 사랑과 증오로 응어리진 분대장 림선준의 뜨직뜨직한 목소리...

(분대장동무, 그 버드나무가지들이 허리가 부러지고 불에 그슬렸소. 하지만 죽지 않고 새싹이 움텄소.)

리범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의 고향은 서울이었다.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하였을 때 의용군으로 입대한 그는 조국이 여전히 돌로 갈라지는통에 고향으로 갈수 없게 되었다.

림선준은 전투의 여가마다 고향자랑끝에는 의례히 범수에게 전쟁이 끝나면 자기의 고향에 함께 가보자고 진정을 담아 이야기하곤 하였다.

그런데 리범수만이 이렇게 림선준의 고향으로 찾아온것이다.

리범수는 부상당한 다리를 불원하게 옮기며 마을쪽으로 한걸음한걸음 내걸었다.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소리가 났다.

리범수는 얼굴을 돌렸다.

《허, 보아하니 영예군인이로구만. 그래 고향엘 돌아왔나?》

다가온 사람은 나이가 퍼그나 많아보이는 아바이었다. 눈언저리엔 잔주름이 부채살처럼 퍼져갔고 이마에는 발고랑같은 두줄기의 주름이 깊이 패여있었다. 손에는 의외에도 미장칼이 쥐여져있었다. 순간 리범수의 머리속에는 전투의 여가시간에 분대장 림선준이 만들었던 미장칼이 편상되면서 부지불식간에 친근감이 느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아바인 미장공입니까?》

《그렇네. 배낭을 인주게. 저쪽.. . 마을로 가는 길이라면 내가 메다주지.》

아바이는 오랜 지기처럼 허물없이 리범수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냈다.

《그래 뉘집 자손인가?》

《전 이 고장이 처음입니다.》

《...》

아바이는 색날은 군복차림의 병색질은 리범수의 얼굴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고향엘 안 가고 어떻게 여길 오나?》

《저의 고향은 남조선입니다. 그래서 전우의 고향에... 저 아버님은 이 고장에서 오래 사셨습니까?》

리범수는 기대어린 눈길로 아바이를 바라보았다.

《그렇네. 여기서 나서자라 잔뼈가 굵었지.》

《그렇습니까? 그럼 전쟁전 읍거리에서 한다하는 미장공이었다는 림공태아버님을 아시겠군요. ...》

《림공태?...》

아바이는 흠칫 몸을 떨며 새삼스러운 눈길로 범수를 돌아보았다.

《아바이! 전 림공태아바이 아들 림선준의 전우입니다.》

《그래?!... 그럼 선준인 안 돌아오나?》아바이는 재촉하듯 물었다.

《림선준동지는 전승의 날을 얼마 앞두고 그만... 그래 제가 그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뉘라구 선준이가?...》

아바이는 긴 황소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두어깨를 쳐뜨리며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어깨에 멘 범수의 배낭을 취울리었다.

《자,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집으로 가세. 날 조아바이라고 부르게. 선준의 녀동생도 나와 한작업반에서 일을 하네.》

《?...》

리범수는 아바이가 끄는대로 따라섰다.

조아바이네 집은 십이봉마을 한끝에 자리잡고있었다. 폭풍에 기울어져 꺾질벗어진 통나무로 한쪽벽을 뻗친 낡은 집이었다.

촉수 낮은 전등불밑에 두사람은 무거운 심중을 안고 마주앉았다. 아주머니가 크지 않은 비상미자루에 뽕뽕 싸놓았던 쌀을 꺼내여 밥을 지어놓았다. 인정이 후한 내외였다.

조아바이는 군건설대에서 미장공으로 일한다고 했다. 선옥이네 작업반 세포위원장이기도 했다.

구수한 밥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지만 누구도 선뜻 술을 들념을 안했다.무거운 한숨소리만이 상우를 오갈뿐이었다.

《자네가 찾아온 림공태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일세. 왜정때 로친네를 잃었었는데...》

《예?!...》

리범수는 귀가 멍멍해짐을 느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람, 진정하게. 그제 아마 작년 겨울이었던지... 미군놈들의 폭격에 그만... 잘못됐다네. 선옥이마저 전선원호대로 집에 없던 참이었는데... 쓸쓸하기란 참... 선준일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끝내 그 엘 못 보고 간다면서... 이제 선옥이가 오빠소식을 들으면 또 가슴이 미여질거네. 그렇지 않아두 저 길주에 사는 이모가 함께 모여살 자구 몇번이나 편지가 왔겠는지 모른다네. 그런 걸 전선에 나간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지금껏 참아왔는데...》

《...》

리범수는머리를 수그리고 굳어진듯 앉아있었다.

《로친이 선옥이를 데리러 갔으니 인츰 올거네.》

무거운 정적이 또다시 마음을 짓눌렀다.

문소리가 났다. 선옥이를 데리러 갔던 아주머니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선옥아! 어서 들어가자.》

아주머니는 방문을 열고 선옥이의 손을 잡아끌며 들어왔다.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리범수를 조아바이가 굳이 만류했다.

《그냥 앉아있게. 애 선옥아, 인사해라. 오빠와 함께 싸운 전우다.》

선옥이는 살쾅이 고개를 숙이었다.

리범수도 성한 한쪽무릎을 세우며 어줍은 자세로 인사를 받았다.

《게 앉아라. 그래 저녁은 먹었느냐?》

일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밀어내며 조아바이가 다심한 어조로 물었다.

《가보니 불도 때지 않은 썰렁한 방에 홀로 앉아있더군요. ... 내 얼른 국 한그릇 떠오겠수다.》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내려가 김이 문문 나는 국사발을 들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선옥의 곁에 앉았다. 림선옥은 고개를 숙이고 한쪽손으로 두

무릎을 감싼 치마자락을 만지작거렸다. 내리칸 두눈길은 터실터실한 노전바닥에 지긋게 박혀있었다. 그의 파리하게 질린 얼굴을 마주한 리범수의 가슴은 떨리었다.

(아,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있는 저 처녀가 오빠의 소식을 들으면...)

순간 미제야수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다시금 온몸에 치솟았다. 원썬들은 우리의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과 자연뿐 아니라 마음속에도 깊은 상처를 입히었다.

입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다.

덤덤히 앉아있던 조아바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옥아... 마음을 크게 먹어라. 너의 오빠는 전승을... 얼마 앞두고 그만... 전사했다더구나.》

《네?! 우리 오빠가 어떻게 되었...》

선옥이의 입술은 파들파들 떨리었고 눈은 빛을 잃고 흐리멍텅해졌다.

리범수는 가슴이 찢기는듯 한 아픔을 누르며 배낭속에서 미장칼을 꺼내놓았다.

조아바이는 눈이 휘둥그레져 미장칼을 바라보았다. 리범수는 미장칼을 소중히 어루쓸었다. 립선준분대장의 체온이 온몸에 전류처럼 짜릿하게 흘러드는듯싶었다. 순간 부리부리한 눈가에 핑그르르 눈물이 고여올랐다. 전우가 남긴 유물을 전쟁을 이겨낸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늘한점없이 발랄한 선옥이에게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으랴. ...

리범수의 손은 떨리었다.

《선옥동무! 이 미장칼은 오빠가 남기고 간 것이요. 오빠한 자기대신 그 미장칼로 미제놈들이 파괴한 고향땅을 더 훌륭하게 꾸려줄것을 부탁했소.》

리범수는 목이 꺾 메이였다.

미장칼은 조아바이의 손을 거쳐 선옥에게 전해졌다.

《아— 오빠!》

미장칼을 받아든 선옥은 몸부림쳤다. 애오라지 전선에서 돌아올 오빠를 기다려 외로움을 이겨내며 날을 보낸 선옥이었다.

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얼마나 애타게 오빠를 기다려왔던가. 단풍이 진 가을이 가고 눈오는 겨울도 지나 이제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는데 그 소생의 봄날에 날아든 오빠의 소식은 선옥이에게 너무도 비통한것이였다.

(선옥동무, 실컷 우오. 그리고 용기를 내여 일어서주오!)

리범수는 마음속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선옥이가 오빠의 낫이 깃든 미장칼을 안고 힘을 내여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윽고 방안에 떠도는 무거운 정적을 가시려는 듯 조아바이의 목소리가 방안에 울렸다.

《그 미장칼을 보니 선옥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구만. ... 그게 왜놈들이 보천보에서 되게 얻어맞았다던 해였으니까 아마 37년 여름이었던가봐. 그때 나와 저 애 아버지 왜놈의 군청보수공사에 내몰렸었는데... 왜놈기술자밑에서 조력공노릇을 했었지.》

그러던 어느날엔가 저 선옥이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함바로 왔는데 알고보니 글썽 미장기술을 배우려고 그 왜놈의 미장칼을 잠간 써본게 <죄> 로 되어 그 지경이 되도록 때렸다질 않나. 그때 저 애 아버지가 하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네그러. <형님, 왜놈들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데... 내 이제 내 힘으로 미장기술을 꼭 배워 그놈들이 보란듯이 이 온천땅을 번듯하게 일떠세우겠습니다. > 라고 울면서 말했었지.》

조아바이는 옷소매로 눈굽을 훔쳐내며 흐느껴 울고있는 선옥이쪽을 바라보았다.

《선옥아, 이제 눈물을 그쳐라.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한다. ...》 어느새 구름에 가리워졌던 달이 박달령우에 빠끔히 머리를 내밀었다.

피창가로 달빛이 흘러들었다.

머리를 떨구고있던 조아바이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자넨 어쩔셈인가?》

리범수는 납덩이를 안은것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

《전 래일 떠나겠습니다. 평양으로 가던 길에 들렀던것입니다.》

《불잡지는 않겠네만 선옥이를 봐서라도 하루이를 묵어가게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2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려고 했던 리범수는 조아바이의 말을 듣지 않을수가 없었다. 오빠가 전사한 소식을 듣고 수심에 싸여있을 선옥이가 격정스러웠던것이다. 그가 마음을 다잡고 일터로 나갈 때까지는 떠날수 없는 몸이 되였다. 그것은 자기가 전우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고 범수는 생각했다.

리범수는 여러가지 착잡한 생각에 다물리우며 조아바이네 집에 가만히 앉아있자니 갑갑증이 났다. 선옥이네 집에 가불가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혼자 처녀의 집에 찾아간다는것이 멋적게 생각되어 망설이고있는데 출근했던 조아바이가 황급히 집으로 들어섰다.

《일이 났네. 아침에 일을 나오지 않았길래 집에 찾아가니 글썽 선옥이가 집을 나가지 않았겠나. 자네에게 이 편지를 남겨두고...》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향을 영 떠났단 말일세.》

《네?...》

리범수는 조아바이가 내미는 편지를 받아들였다. 한자한자 정히 박아쓴 편지의 글줄들이 눈아프게 안겨왔다. 점점이 눈물자국이 찍힌 편지였다.

《..이렇게 글로 피로운 마음을 터놓는 저를 용서해주시시오. 저는 많은 생각끝에 고향을 떠나길주 이모네 집으로 갈것을 결심했습니다.

정작 고향과 작별하자니 눈앞이 캄캄해합니다.

오빠까지 전사했으니 제 이제 누굴 믿고... 동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밥 한그릇 제 손으로 지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자니 가슴은... 먼길을 오신 동지에게 이런 편지만을 남기고 떠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제 어디가든 불편한 몸으로 저의 집을 찾아와 오빠의 소식과 미장칼을 전해준 동지를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의 마지막글줄까지 읽고난 리범수는 맥없이 주저앉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선옥이에 대한 못마땅한 감정이 솟았다. 그렇듯 떠나지 말라는 이웃들의 당부들 헛신짜버리듯 하더니...

《아바이, 선옥동무가 언제 떠난것 같습니까?》

《딱히는 모르겠네만 북쪽으로 가는 림시렬차가 오후 2시경에 있으니 아직 역에 있을걸세. 그런데 무슨 수로 그를 붙잡을텐가. 참...》

《아바이, 제 역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리범수는 선옥이를 찾아 역으로 걸음을 옮겼다. 후둑후둑 조심스럽게 내리던 봄비가 어느새 길가 집들의 처마밑으로 락수가 되어 떨어지며 제법 소란스러운 소리를 냈다.

도로는 질퍽질퍽했다. 그러나 리범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직수직 걸었다. 하늘은 낮게 드리웠다.

비발사이로 역사건물의 룬팍이 눈에 안겨들었다.

먼발치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안개비속에 뿌옇하니 보였다. 우산도 쓰지 않고 비속을 걸어가는 그 형체를 자세히 보니 흰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받쳐입은 처녀였다.

(선옥이가 아닐가?)

리범수는 그를 불렀다. 그러나 처녀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내쳐 걸어갔다.

리범수는 다리의 아픔도 잊고 허둥지둥 처녀를 뒤따랐다. 처녀의 어깨에 물먹은 쌍태머리가 차분히 드리워져있었다. 처녀의 한쪽손에는 트렁크가 들리워져있었다.

선옥이었다. 리범수는 은연중 반가움이 앞서 두손을 입에 모아 그를 불렀다.

《선옥동무!—》

순간 처녀는 흠칫 몸을 떨며 멈추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인지

비물인지 모를 물이 즐벌하게 흘러내리고있었다.

리범수는 선옥이에게로 다가가 그의 앞에 장승처럼 버티고섰다.

《선옥동무! 어딜 가오... 난 동무가 이렇게 고향을 떠날줄은 몰랐소. 그래 그 마음속 피로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무마저 고향을 버리면 오빠의 부탁은 누가 지키겠소?》

준절히 울리는 그의 말마디는 선옥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용서하세요. 전 어쩔수 없는 몸이에요. 흑흑—》

《서시오.》

리범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처녀는 우뚝 멈추어섰다. 그리고 돌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저를 붙잡지 말아주시시오. 오빠도 없는 고향에... 있었대야 부모님들과 오빠생각만 더 날것 같아...》

선옥이의 목소리는 절망에 젖어있었다.

《뭐라구?! 그래도 동무의 오빠는 고향땅을 지켜 목숨까지 바쳤는데... 동무가 떠나면 되겠소?》

처녀는 고집스레 머리를 흔들었다.

리범수는 갑자기 격해지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함마로 바위를 부시듯 웨쳤다.

《가더라도 그 미장칼을 놓고 가시오. 동무는 오빠의 넋이 깃든 미장칼을 받을 자격이 없소. 동무의 오빠는 미국놈들이 파괴한 고향땅을 보란듯이 꾸러볼 뜻을 안고 전투의 여가시간마다 그 미장칼을 만들었소.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그 미장칼로 고향땅을 더 잘 꾸러달라는 부탁을 남겼소. 그런데 동무는... 미제야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행의 씨앗을 뿌려놓았소. 미제놈들은 우리 조국의 산천과 거리와 마을, 공장과 어촌들을 깡그리 파괴해버렸을뿐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까지 아픈 상처를 남겨놓았소. 전쟁은 이겼지만 원수들과의 싸움은 계속되오. 그런데 가슴속의 모든 피로움과 슬픔을 박차고 일어날 대신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다니?!... 그래 고향을 뜨면 어디 가선들 마음이 편할것 같소? 자, 가겠으면 그 미장칼을 내놓고 가시오.》

리범수의 격한 음성은 비소리를 누르며 선옥의 심장속에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의 머리가 서서히 숙여졌다.

휘익— 비바람이 불어쳤다. 버드나무가지들이 와스스 몸을 떨며 물방울을 휘뿌렸다.

선옥은 몸군형을 잃고 쉽게 흐느꼈다.

《아— 범수동지, 난 어쩌면 좋아요?》

어깨를 떠는 처녀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들으며 범수는 속으로 끝없이 속삭였다.

(선옥동무, 고향을 버리면 안되오. 힘을 내어 그 미장칼을 잡고 오빠의 뜻을 이어야 하오.)

그러나 그의 간절한 호소와는 달리 처녀는 운명의 벼랑끝에 선듯 한 절망어린 시선을 들더니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를 열고 미장칼을 꺼내들었다.

리범수의 심장은 쿵— 하고 소리를 내며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그는 금시 무너질듯 한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처녀를 노려보았다.

《중소. 갈테면 가오. 그러나 전사한 동무 오빠의 뜻은 꼭 이루어지고야말거요.》

범수는 씹어뱉듯 마지막말을 힘겹게 남기며 처녀에게서 돌아섰다.

선옥이와 헤어져 돌아온 리범수는 조아바이와 함께 선옥이가 살던 집으로 갔다. 전우의 집은 십이봉 가운데봉우리밑에 자리잡고있었다.

《이 집을 〈버드나무집〉 이라고 불렀네.》

집앞에 두아름이 실히 될 큰 버드나무가 후줄근히 가지들을 쳐드리우고 묵묵히 서있었다. 집도 버드나무도 전쟁의 상처를 흑심하게 입었다. 토끼로 쌓았던 울타리는 폭격에 무너졌고 집 한쪽벽은 흩이 떨어져 방안이 들여다보일듯 하였다.

주인없는 집안은 싸늘했다.

《그래, 정말로 이 집에서 혼자 살텐가?》

《예, 이젠 이 집의 주인은 접니다. 저까지 떠나면 림선준동지는 아마 저를...》

리범수는 배낭을 방안에 놓고 밖으로 나와 말없이 진흙을 이겼다. 그리고 미장칼을 꺼내들고 상처입은 집벽에 진흙을 바르기 시작했다. 미장칼을 든 그의 손이 떨렸다.

언제인가 림선준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범수, 내 자라다가 아버지한테 따귀를 맞은적이 한번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 미장칼때문이였어. 그때가 바로 해방된 이듬해였지. ... 읍거리에서 학교 교사건설을 할 때였는데 그때 난 학생이였어. 어느날 공사에 떨쳐나선 부모들을 도우려고 우리들도 공사장에 나갔었는데... 일을 다 끝내고 저녁무렵에 개울가에 나가 몸을 씻다가 글썽 내가 아버지의 미장칼을 내버린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어. 물론 우정 그런것은 아니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버지가 흔들어 깨우더란 말이야. 미장칼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데 거짓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그만 깜박 잊어버리고 왔다고 하자 아버지가 성이 나서 귀뺨을 후려치는데... 난 그렇게 성난 아버지를 처음 보았어.

〈이 자식아, 그걸 팽개치고 들어와서도 잠이와. 당장 가서 가져오지 못할가?〉

〈아, 아버지... 래일 아침 날 밝은 다음에...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을걸...〉

〈뭐라구?! 이너석아, 제 집 하나 번번한게 없어 왜놈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받으며 자라던 때를 벌써 잊었나?... 미장칼은 우리 건설자들에게 손발이나 같은게야. 손발이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냐.〉

그날 밤 횃불을 켜들고 개울가에 나가 아버지와 함께 미장칼을 찾아들고 돌아오면서도 나는 아버지의 그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는 알지 못했었지. 이 전쟁판에 나와보니 아버지가 그때 어째서 그토록 절절하게 말했던가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것 같네. 자, 보라구. 얼마나 멋진 미장칼이 돼가나...》

림선준은 벽돌가루로 형태가 잡혀가기 시작한 미장칼을 닦으면서 노상 즐거운 웃음을 지었다. ...

그렇다. 그 웃음이 바로 승리한 오늘을 내다본 웃음이 아니였겠는가!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낸 이 땅의 모든것이 움쭉움쭉 태동한다. 공장이 복구되고 학교가 일떠서고... 집들도 일떠설것이다. ...

벽은 말끔히 손질되었다. 눈길에 마당 가녁에 있는 버드나무로 갔다. 파편에 속살이 허영게 패인 곳으로 진액이 흘러내렸다. 그는 미장칼 끝으로 파편조각을 파냈다. 그리고 상처입은 곳에 진흙을 발랐다.

잠간사이에 모든것이 깨끗이 정리되었다.

리범수는 열려져있는 부엌문을 꼭 닫고 한동안 정짙은 눈길로 마당 구석구석을 바라보았다. 고향집과 다름없는 집이었다. 이제는 이 집이 자기의 영원한 보금자리라고 생각되었다.

《허참, 주인들은 다 떠나고 나그네가 주인이 되었으니 이게 어디 될번이나 한 일인가.》

조아바이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조아바이, 감시다.》

《아니 어디로?》

《건설장에 말입니다.》

리범수는 혼연히 말했다.

《자네 정신 있나? 그 몸으로 어델 가려구. 안되네. 자넬 꽃방석에 앉혀놓아도 시원치 않을 우린데... 그 몸으로... 안되네. 안돼.》

조아바이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머리를 저었다. 《아바이, 고맙습니다. 저를 그렇게 생각해주시니... 하지만 전 얼마든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두손과 한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몸에 맞게 일을 하겠으니 마음놓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인구실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우리 미국놈들이 파괴하고 간 마을을 보란듯이 꾸리잔 말입니다.》

리범수의 목소리는 절절했다. 그는 먼저 걸음을 옮겼다.

《원, 성미두 불같다구야... 그러니 미국놈들과

싸워이겼지.》

조아바이는 허를 차며 리범수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한창 건설중에 있는 군문화회관 건설장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직은 제 집조차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그들은 회관건설로부터 복구건설의 첫삽을 박았다. 하루빨리 회관을 번듯하게 지어놓고 웅변도 하고 노래춤도 펼칠 그날을 그리며 건설자들은 기초공사를 시작한지 한 달만에 벽체쌓기를 끝냈다고 조아바이가 말했다. 하지만 건설장은 웬일인지 한적해 보였다.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고 기중기도 서있었다.

《엇그제부터 철근이 보장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됐다네.》

조아바이의 입에서는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방도를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막막하네. 요즘 어디서나 요구되는것이 철근이다보니...》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는것이였으나 리범수에게는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팔짱을 끼고 나앉아있을수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었다.

(무슨 방도가 없을가?...)

그날 리범수는 조아바이와 함께 여러 군데나 되는 읍내 여러 건설장들을 돌아보았다. 어느 공사장에서나 사정은 거의 비슷했다. 단층주택건설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설장들에서 철근때문에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있는 형편이였다.

저녁에 자기 집으로 가자고 이끄는 조아바이의 권고를 마다하고 리범수는 선옥이가 살던집으로 돌아왔다.

전우의 체취가 스며있는 집을 비워둘수가 없었던 것이다.

리범수는 선옥이네 집 아래목에 누워 온밤 잠들지 못했다.

이리뒤척 저리뒤척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은 산란했다.

(선옥이가 떠났을가? 정신적허탈상태에 빠진 그가 고향을 뜬다고 마음이 편할수 없지.)

별의별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철근을 어떻게 하든 해결하여 중단된 공사를 계속할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물리우다나니 철근무지속에 파묻히우는 환영속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였다. 문득 길거리에서 본 무너진 2층집 생각이 났다. 깨어진 콘크리트속에 데루데루 달려있던 철근, 바닥에는 깨어진 다공판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리범수의 머리속에는 불현듯 비행기사냥군조의 명중탄에 맞아 불타버린 미군놈비행기의 잔해가 떠올랐다. 그의 마음은 흥분으로 끓어올랐다.

비행기잔해속에서 철관을 뜯어내던 림선준동지!

(그렇다. 림선준동지처럼 파괴된 콘크리트속에 서 철근을 뜯어내자!)

리범수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금시 달려나가 다공판에 함마를 내리치고싶었다. 그러나 문을 열고보니 밖은 어둠속에 잠겨있었다.

3

리범수는 동녘하늘이 어스름히 밝아오기 시작하자 조아바이의 집으로 갔다. 조아바이는 새벽에 웬일인가 놀라며 리범수를 맞이했다.

《아바이, 간밤에 철근을 해결할 방도를 찾았습니까.》

《아니, 철근을 해결할 방도를 찾았다구?》

조아바이의 내리드리웠던 눈까풀이 금시 번쩍 띄어졌다. 이윽고 미간에 내천자가 새겨지면서 리범수의 싱글벙글 웃는 모양을 쫓아내려진 눈으로 살펴보았다. 간밤에 남의 빈집에서 혼자 자고나더니 혼맹이가 나가진 않았는가?... 새벽에 찾아온것도 그렇고 철근을 해결할수 있다니 이거야 지금 형편에서 하늘의 별을 따올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걸 누가 믿을텐가.

《아바이, 제 여기로 오면서 보니 읍거리에 무너진 건물들이 많더군요. 그 건물들의 파괴된 콘크리트속에 있는 철근을 회수하자는겁니다. 콘크리트만 깨내면 철근을 얻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만, 그거 정말 귀맛이 동하는군. 콘크리트속에 있는 철근을 뽑아내잔 말이지.》

여전히 싱글벙글거리는 리범수를 바라보던 조아바이는 그만에야 번쩍 정신이 드는지 머리를 끄추 세우며 환회에 가까운 소리로 반문했다.

그렇듯 했다. 심본 가능한 일이였다.

《이보게, 자네 정말 하늘의 별도 따올 사람이네. 그런걸 난 자네가 정신이...하하하.》

《하하하!... 사실 림선준동지가 아니였더라면... 이 미장칼소재를 어디서 뜯어냈는지 아십니까?》

리범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미장칼에 깃든 사연을 이야기했다.

.. .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우리 인민군대의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으로 넘어가던 때였다. 림선준과 리범수가 속한 중대에서는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널리 벌리라고 하신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저격무기로 적비행기를 쏘떨구기 위한 운동을 힘있게 벌렸다.

그러던 어느날 림선준과 리범수의 전우들이 잡채인 협동사격으로 적비행기 한대를 쏘떨구었다.

하늘의 제왕처럼 으시대며 날아들던 적비행기는 공중재주라도 부리듯 모재비로 공회전하며 산기슭에 곤두박혔다. 두사람은 맨먼저 만세를 부르며 떨어진 미군놈비행기로 달려갔다.

불모양없이 우그러들고 불에 꺼렇게 그슬린 적비행기잔해로 다가가며 리범수는 통쾌하게 웃었

다.

《분대장동지! 사진기라도 있었으면 멋들어지게 한장 찍겠는데...》

리범수는 군화발로 비행기의 동체를 쿵쿵 두들겨댔다. 그런데 범수보다 한발 먼저 달려온 림선준은 싱글벙글하며 비행기잔해를 돌아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동체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동체속에 들어가 안간힘을 쓰고있는 그를 보며 범수가 물었다.

《분대장동지! 그속에서 뭘 합니까?》

《응, 멋진걸 뜯는중이야.》

《?!...》

얼마후 림선준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가지고 비행기동체속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크지 않은 철판이 쥐여져있었다.

《범수, 이것 보라구. 미군놈들이 나에게 아주 귀한걸 가져다 바쳤거든. 좀 무겁기는 하나 미장칼소재로는 이만한게 없거든.》

림선준은 정말로 보물을 얻은 사람처럼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리범수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었다. 언젠가 그는 고향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다.

《범수! 이건 자랑은 아니네만 난 말이야, 미장공들은 모두 예술가들이라고 보네. 아, 조각가들은 여러가지의 칼로 석고덩이를 떼고붙이고 하면서 예술품을 만들지만 우리 미장공들은 미장칼 하나로 별의별 재간을 다 부리거든. 우리가 한바탕 미장을 할 땐 그 활달한 룰동을 보고 무용가들도 입을 벌린다네.》

그날부터 림선준은 그 철판을 쓸고닦고 하여 미장칼을 만들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미장칼의 형태가 거의 잡혔다.

《자, 보라구. 이제 여기서 참나무손잡이만 척 끼워넣으면... 어때?》

림선준은 전쟁관에 어디 그런것에 신경 쓸 여유가 있느냐며 항상 시답지 않게 여기던 범수에게 편찬이라도 주듯 자랑삼아 미장칼을 내보였다.

리범수는 어딘가 어린애다운 직심이 엿보이는 그의 마음에 어느 정도 감심되어 그가 내보이는 미장칼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

그날 저녁 리범수가 숙한 분대는 앞산에 있는 적포진지습격전투에 나가게 되었다. 야음을 타고 움직이는 정황에서 범수는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분대장인 림선준의 뒤를 바짝 따랐다. 적들도 인민군대의 습격을 예견하였던지 경계가 이만저만 삼엄하지 않았다. 수시로 비쳐대는 탐조등, 꺼지기 바쁘게 쏘아대는 조명탄들...

포진지를 습격하자면 어쨌든 가까이 접근해야 하겠는데 아무리 기회를 살피도 발불일 틈이 보이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한동안 무엇인가 생

각하던 림선준분대장이 가까이에 었드려있는 부분대장과 리범수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안되겠소. 나와 범수동무가 적들의 시선을 판데로 끌겠으니 그 틈에 부분대장동무가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하시오.》

《안됩니다. 제가 적들을 유인하겠습니다.》

부분대장이 만류했으나 림선준은 명령대로 하라고 말하고는 범수에게 고개짓을 하며 저쪽 산릉선아래로 내려갔다. 범수도 민첩한 동작으로 림선준의 뒤를 따랐다. 얼마쯤 내려가던 림선준이 적탐조등에다 대고 몰사격을 퍼부었다. 범수도 적병들을 향해 총을 휘둘렀다. 순간 적진에서 싸이렌소리와 함께 놈들의 악청이 들려왔다. 적들의 사격이 두사람에게 집중되었다. 림선준과 리범수는 산릉선을 에돌면서 련속 적들에게 자동총사격과 수류탄벼락을 들씌웠다.

그들이 적들을 유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적포진지들에서 폭음이 울리고 산지사방으로 날아나는 포들의 잔해가 충천하는 화광속에 안겨왔다.

습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것이라고 범수가 마음속으로 탄성을 지르려는 순간 《아!》하는 림선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분대장동지!》

리범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림선준의 곁으로 갔다. 어둠속에서 림선준의 몸을 안아일으키는 범수의 손에 피가 즐겁하게 묻었다. 적탄이 복부를 관통한것 같았다.

《범수, 이제... 우리 동무들이... 성공한것... 갈구만. 난 안되겠어.》

《무슨 소리 합니까?》범수는 다짜고짜 림선준을 등에 업었다. 있는 힘을 다해 적들의 사격권내를 벗어나 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등에 업은 림선준을 내려놓았다.

《분대장동지, 이제 거의다 왔습니다. 맥을 놓지 마십시오.》

《응.. . 범수, 안되겠어... 난... 한가지 부탁이 있네. 내 배낭에 채 다들지 못한 미장칼이 있는데 전쟁이 끝나면 우리 집에 전해주게. ... 내 전쟁이 끝나면 그 미장칼로 본때있게 집을 지어보려했는데...》

림선준은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분대장동지!》

범수는 림선준을 부둥켜안고 오열에 몸을 떨었다. ...

《그런데 림선준동지는 이 미장칼에 몰탈을 묻혀보지 못하고...》

리범수는 두눈을 습벽이었다.

조아바이도 한일자로 입을 꼭 다물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후 둘은 서로 손들을 뜨겁게

맞잡았다.

4

얼마후 그들은 함마와 정대를 메고 전쟁전 농민은행이 자리를 잡았던 파괴된 건물로 갔다.

2층으로 된 건물은 반나마 무너진 상태였다.

건물안에도 먼지와 벽체가 무너져내린 잔해들로 발을 옮겨디디기조차 힘들었다.

조아바이와 함께 함마를 메고 건물안으로 들어선 리범수는 크기가 맞춤해보이는 콘크리트잔해앞으로 다가가 함마로 툭툭 건드려보았다.

이윽고 리범수는 함마를 천 팔목에 힘을 모아 콘크리트를 부시기 시작했다.

《광— 광—》

암팡지게 내려치는 함마질에 콘크리트는 유리조각처럼 부서져나갔다. 잠깐사이에 손가락굵기의 철근 수십메터를 얻어냈다.

《자네 그 영근 함마숨씨를 어디서 배웠나?》

《전선에서 배웠습니다.》

그랬다. 리범수는 전선에서 갱도전법을 받기하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정대와 함마로 그 어떤 폭격에도 끄떡없는 요새화된 갱도를 건설하는데 참가했었다. 전선용사들은 명령 그 하나면 못해내는 일이 없었다. 야장간도 자체로 꾸렸고 파괴된 적땅크의 무한케도를 끊어 정대도 버렸다.

한바탕 기운차게 메질을 한 리범수는 얼굴에 줄줄이 흘러내리는 땀을 문질렀다. 다리가 띠끔 띠끔 쏘아났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조아바이가 리범수의 얼굴색을 살폈다.

《이 사람, 쉬라구. 성한 몸도 아닌데. 그러다 쓰러지겠네. 어디 다리를 좀 보세나.》

《일없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말게.》

조아바이는 무릎을 꿇고 리범수의 의족한 다리의 면내의를 걷어올렸다. 의족한 부위의 살이 뽕결게 피부가 벗겨져있었다. 이런 다리를 해가지고... 얼마나 쓰리고 아플텐가. 그는 투박한 손으로 의족한 리범수의 다리를 쓸며 눈을 습벅이였다.

《안되겠네. 내가 미련한 놈이지. 아무리 철근이 귀하기로서니 자네하고 바꿀텐가. 이젠 가만히 앉아만 있게. 내 사람들을 데리고 올테니.》

조아바이는 얻어낸 철근을 끌고 건설장으로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아바이가 끝끝한 젊은이 일여덟명을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

《이 사람들아, 저 사람이 자네들처럼 팔다리가 성성한 사람인줄 아나? 미군놈들과의 싸움에서 한다리를 상한 사람이란 말일세. ... 바로 저 사람이 이 좋은 생각을 해냈단 말이네. 자, 불이 번쩍

나게 함마질을 해서 철근을...》

아바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젊은이들은 벌써 함마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조용하던 건설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리범수의 발기로 시작된 이 일로 하여 회관건설장에서는 하루동안에 수백키로그램의 철근을 얻어낼수 있었다.

총막치기전투가 시작되었다.

한쪽에서는 탕탕 구부러진 철근을 바로 펴 조립했고 멎어있던 혼합기도 기운차게 돌아갔다.

호각소리, 물탈을 재촉하는 타입공들의 웨침소리...

벽찬 건설장을 바라보는 리범수의 마음은 기뻐중에서도 왜 그런지 허전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누구보다 먼저 이 거센 흐름에 몸을 잠그어야 할 림선옥이 없는것이였다.

그럴수록 리범수는 더 억세게 함마자루를 틀어쥐곤 했다. 그에게는 건설일이 힘에 부쳤다. 성한 사람들에게도 얼마 못 가서 헉헉 단숨을 뿔게 하는 일이 바로 함마질이였다.

그는 쓰러져서는 안된다는 의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갔다. 그러나 이튿날 끝내 그는 함마질을 하다가 정신이 아찔해지면서 모재비로 넘어졌다.

《범수, 이 사람 정신차리게.》 조아바이가 범수를 안아일으키며 부르짖었다.

리범수는 조용히 눈을 폈다. 그리고 해쓱해진 얼굴에 미소를 담았다.

《아바이, 일없습니다. 함마를 빗때리다보니 그만...》

리범수는 혼연히 말하며 일어나려고 애를 썼다.

《그냥 있게. 좀 안정하라구. 자, 일들을 계속하라구. 오늘 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내야 하네. 알겠나.》

조아바이가 둘러선 젊은이들에게 일렀다.

《아무래도 집에 가 누워있어야 할것 같네.》

《일없습니다. 전투가 한창인데 전호속을 떠나다니요.》

조아바이는 눈굽이 뜨거워올라 눈만 습벅이였다.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조아바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서 리범수는 자기가 생각과는 달리 용케 하루를 견디여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지의 힘이얼마나 강한가를 그는 다시금 체험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쑤셔오는 동통으로 발을 옮겨질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찌르는듯 한 아픔은 두다리를 뻗쳐 머리까지 들쭉시는듯 했다. 그는 몸의 균형을 잃었다.

《이 사람, 왜 그러나?》

조아바이가 그를 부축하며 물었다. 리범수의 이마에 팔알같은 식은땀이 내뿜었다. 그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던 조아바이는 흠칫 놀랐다. 그의 몸이 불덩어리 같았던 것이다.

조아바이는 리범수를 들쳐업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생각했다가 건설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선옥이네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우선 빈집이라도 환자를 눕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들이 토끼울타리밖 버드나무앞에 거의 이르렀을 때였다. 무심결에 집쪽을 바라보던 조아바이가 그 자리에 굳어져버렸다. 집통마루우로 뒤발되게 서있는 굴퓏에서 꾸역꾸역 연기가 솟아오르고있었던 것이다.

《이보게 범수, 저 굴퓏에서 나는 연기를 좀 보게. 혹시 선옥이가 돌아온게 아닐까?》

조아바이는 환희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무렵 선옥이는 부엌아궁에 불을 지펴놓고 치마폭으로 감싸안은 무릎우에 고개를 떨군채 너울너울 춤추며 타는 불길을 지긋게 바라보고있었다.

앵두알처럼 빨갭게 익은 두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방울방울 눈물이 치마폭을 다 적신대도 선옥이의 마음을 맑게 개이게는 해줄수 없는 것이었다.

...미장칼을 범수에게 넘겨준 선옥은 키높이 자란 역사마당의 황철나무를 그러안고 씩씩 울었다.

그러면서 어떤 결심과 의지를 안은듯 결연한 자세로 걸어가는 범수의 뒤모습을 보면서 고집스럽게 머리를 흔들었다.

(범수동지, 절 이해해주시고 어서 떠나주세요.)

《뻑—》 절망에 찬 선옥이의 가슴을 뒤흔들며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흠칫 몸을 떨며 기적소리가 울려오는 역사쪽으로 돌아섰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증기기관차가 출발을 재촉하고있었다. 화물방통들과 객차를 함께 단 혼성열차다. 이제 저 객차에 오르면 선옥은 멀리로 떠나갈 것이며 선옥이를 실어간객차는 며칠후에 다시 아무일 없었던듯이 여기로 돌아올것이다. 허나 몸은 망두석처럼 굳어져있을뿐이었다.

또 한번 기적소리가 울렸다. 그 기적소리와 함께 퇴성마냥 웨치던 범수의 준절한 목소리가 선옥의 마음을 두드린다.

가슴허비는 아픔과 망설임속에 바재이는 사이 증기기관차는 지친듯 둔중한 기적소리를 몇번 울리며 십이봉쪽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비뿔은 뒤의 찬바람은 방향없이 길을 쓸고있었다. 선옥은 으시시 추위를 느끼며 실신한 걸음으로 텅 빈 역기다림칸안으로 들어갔다.

기다림칸안의 제일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은 선옥은 눈을 꼭 감고 결상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만약 그가 나를 대신하여 여기에 남을 생각을 한다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선옥은 소스라치듯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아니, 그래선 안돼. 그는 바쁜 걸음중에 여기에 들린 사람이야. ...)

선옥의 가슴속에서는 집으로 되돌아가 그의 등을 떠밀고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방금전 무섭게 성이 났던 그의 모습이 상기되자 자신심을 잃고말았다.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정불지 않고 온기없는 썰렁한 방에서 무서움을 안고 밤을 샌다는것도 이겨낼수 없는 고통이었다.

어디선가 밤새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반쯤 열려진 기다림칸 창문으로 흘러들었다. 그 소리에 마음은 더욱 서글퍼졌다.

선옥은 꿈쩍 않고 뜬눈으로 밤을 밝혔다.

그렇게 또 하루 낮과 밤을 무거운 상념속에 맞고 보내었다.

(아니, 그러지 말구 범수동지가 여길 떠날 때까지만이라도 집에 가있자. 그런 다음...)

선옥은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올 무렵 휘청거리는 걸음을 옮겨 집으로 향했다. 아직은 이른아침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적었다. 버드나무가 서있는 집앞에 이르니 마음은 알수 없는 애수로 축축히 젖어올랐다. 버드나무가 예전처럼 흐느적이며 어서 오라 반겨주는것만 같았다.

추운한 눈길로 집둘레를 바라보던 선옥은 흠칫 몸을 떨었다.

집이 새 모양을 하고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무너졌던 울타리도 일매지게 쌓여져있고 여기저기 험상궂게 떨어졌던 토벽도 말끔히 손질되어있었다.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부엌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금시 누가 자고 일어난듯 방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떠돌았다.

선옥은 겁먹은 눈으로 방안을 두릿두릿 살폈다. 그러던 선옥은 방안벽 옷걸이못에 걸려져있는 낡은 배낭을 보았다.

(그러니 범수동지가?...)

순간 코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솟구쳤다. 온 몸을 포근히 감싸주듯 애뜻한 정이 그의 가슴속으로 스며어들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그의 가슴에 따스히 온기가 퍼지며 두볼과 손등이 발기우리 달아올랐다. 아궁에 한아름 장작불을 지펴놓고 자기를 기다렸을 리범수의 모습이 후덥게

떠올랐다.

한동안 잘 정리된 집안을 정갈게 둘러보던 선옥은 검불처럼 느껴지는 자기의 존재를 스스로 인정하며 맥없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부엌문이 벌컥 열리었다.

제 생각에 움해 앓아있던 선옥은 흠칫 놀라며 일어섰다. 뜻밖에 조아바이가 리범수를 엮고 들어서는것이였다.

《아니, 선옥이 아닌가! 돌아왔구만, 돌아왔어. 이보게 범수, 선옥이가 왔네. 선옥이가 왔어.》

조아바이는 등에 엮은 범수에게 웨치듯 말했다. 그러나 리범수는 가물거리는 의식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아바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선옥은 조아바이를 도와 리범수를 방안에 들어 다눴었다.

《빨리 찬물을 떠오라구.》

조아바이는 대답대신 호령에 가까운 소리로 말했다. 선옥은 더 서성거릴새 없이 대야를 들고 버들천 샘물터에 나가 물을 떠들고 들어왔다.

《자, 여기 앉아 이마에 찬물찜질을 해주라구. 이 사람 몸이 불덩이갈애.》

선옥은 트렁크속에서 흰 수건을 꺼내 물에 적셨다.

가슴은 호돌호돌 떨렸다.

《정말 불같은 사람이지. 전우가 남기고간 뜻을 잊겠다고... 그몸으로 온 하루 메질을 했으니...》

《네?...》

선옥은 금시 한방망이 얻어맞은 사람처럼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선옥아! 이걸 봐라.》

조아바이는 선옥이앞에 네겹으로 접은 종이를 꺼내놓았다.

《이건 범수의 옷웃주머니에서 나온것인데... 아까 그를 들춰업다 떨어진걸 주었더니 글썄...》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다.

(아! 이게 웬일인가?)

선옥은 너무도 뜻밖의 사실앞에 온몸이 전류에 닿은듯 흠칫 떨었다.

그것은 평양중앙병원으로 파송되어가는 파송장이였다.

(아! 그가 나때문에...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담...)

《선옥인 잘못 생각했어. 이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 범수는 당장 중앙병원으로 가야 할 몸이지만 선옥이때문에 전우의 고향에 남을 생각을 했던거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라. 네가 그러면 전사한 너의 오빠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돼. ...》

나직하나 준절히 들려오는 조아바이의 말마디

들은 선옥의 가슴에 비수마냥 날아와 박혔다.

선옥의 두볼로는 자책의 눈물이 쏟아져내렸다.

《참, 내 이럴새가 없지. 내 얼른 좀 다녀와야겠다. 약이랑 산꼴을 얻어와야겠다.》

조아바이는 선옥에게 리범수를 맡기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리범수는 두눈을 무겁게 감고 입을 반쯤 벌리고 그린듯이 누워있었다. 가끔 벌려진 그의 입에서 신음소리와 함께 더운 입김이 새어나왔다.

구리빛갈던 그의 얼굴이 고열로 벌겋게 달아올라있었다.

선옥은 조심조심 그의 이마에 수건을 올려놓았다. 리범수의 눈섭이 파들파들 떨렸다.

(아, 난 나쁜 녀자야. 나때문에 범수동지가...)

선옥은 피가 나도록 아래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선옥은 그 몇번 리범수의 이마며 목언저리에 찬물찜질을 해주며 약을 얻으러 간 조아바이를 기다렸다.

5

조아바이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20리길이나 넘는 밤길을 걸어 군당과 군병원의 도움으로 해열제와 산꼴을 얻어가지고 돌아왔다.

선옥이와 조아바이의 극진한 간호에 리범수는 새벽녘에야 열이 내려 혼곤히 잠들었다.

문창호지로 한줄금 해빛이 스며드는 늦은 아침에야 리범수는 깨어났다.

《이 사람 누워있게.》

《아바인 저때문에 밤을 꼬박 밝혔군요.》

《원, 열밤을 밝힌을 나야 일이 있지. 자네가 걱정일뿐이야. 참, 선옥이가 돌아왔네.》

《선옥동무가요?...》

리범수는 놀람과 반가움이 한데 섞인 표정으로 조아바이를 바라보았다.

《그래, 금방 물을 길러 샘터로 나갔네. 어제 밤 자네 머리맡에서 잤지.》

한동안 벽에 기대어 앓아있던 리범수는 가까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왜 일어서나?》

《아바이! 오늘부터 외부미장을 한다는데...》

《자네 제정신인가? 그 몸 가지고선 안돼. 그러다 영영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면 어쩔려구.》

조아바이는 한길이나 뛰며 리범수를 붙잡았다.

리범수는 조아바이의 손을 잡고 절절히 말했다.

《아바이! 전 쓰러지지 않습니다.》

리범수는 시렁우에 놓여있는 미장칼을 집어들었다.

이때 방문이 열리면서 선옥이가 들어왔다.

놀람과 반색이 어린 두눈빛이 평국 허공에서

부딪쳤다. 이어 선옥이의 눈길은 아래로 떨어졌고 리범수도 머리를 외로 틀었다.

리범수는 선옥이가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보고바랐다. 그리고 믿었던것이다. 허나 정작 그와 마주서고보니 고맙고 기쁜 마음보다 울컥 고까운 감정이 앞섰던것이다.

《어떻게 왔소? 영 돌아올것 같지 않더니...》

리범수는 통명스럽게 툭 내쏘았다. 그리고는 이내 후회를 했다. 마음속에 꺼렇게 재티가 앉았을 그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은 못해줄망정...

선옥은 고개를 떨구고 저고리웃고름만 만지작거렸다. 입안에서는 무수한 말마디들이 맴돌았으나 종시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동안 바재이던 선옥이는 힘겹게 말을 했다.

《동지가 무슨 말을 한대도 전 할 소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 몸으로는 절대로 일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혹...》

림선옥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다.

《이보라구 범수! 자, 앉게나. 그러지 말고 오늘만은 좀 쉬게. 선옥아! 이 사람을 꼭 붙들어 놓아라. ... 그럼 난 좀 나가보겠네.》

조아바이는 의미있게 머리를 끄떡이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두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만이 넓지 않은 방안을 배회했다.

리범수는 미장칼을 가슴가까이에 가져다대고 두손으로 소중히 어루쓸었다. 금시 림선준의 체온이 미쳐오는듯싶었다.

《선옥동무! 내 언제든지 꼭 말해주려고 했소. 동무의 오빠는 전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적포진지습격전투에서 희생됐소. 오빠는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 나에게 이 미장칼을 쥐여주며 자기 고향에 가져든 동생에게 미장칼을 전하고 오빠의 몫까지 합쳐 고향을 꾸러달라고 절절히 당부했소. 선옥동무! 이 미장칼을 받소.》

리범수는 선옥에게 미장칼을 내밀었다.

선옥은 선뜻 미장칼을 받을수가 없었다.

자기는 그 소중한 미장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오빠가 생전에 바라던 녀원이 무엇이었던가를 선옥은 푹푹히 알게 되었던것이다. 그래서 쉽게 받아안을수 없었던것이다.

선옥은 뜨거운 눈길을 들어 리범수를 바라보았다. 불타는듯 이글거리는 범수의 눈길은 싸늘히 식어가던 연약한 처녀의 몸에 세찬 불길을 지퍼주는듯 했다.

(아— 고마운 사람!)

림선옥의 마음은 참대처럼 곧고 억세게 살도록 자기를 깨우쳐준 리범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끓어넘쳤다.

리범수는 숫저운듯 슬며시 눈길을 돌리는 그의 손을 잡아끌어 미장칼을 쥐여주었다.

《선옥동무! 이렇게 돌아온 동무를 보니 기쁘구만. 자, 이 미장칼을 놓지 말고 힘껏 일해주요.》

리범수는 림선옥의 손을 굳게 잡아 흔들어주었다.

《범수동지! 절 용서해주세요. 전 너무도 무력한 인간이었어요. 제 오빠의 당부를 심장에 굳게 간직하고 새롭게 살아가겠어요. 절 믿어주십시오.》

선옥이의 두눈에는 결연한 빛이 넘쳐흘렀다. 가슴은 새로운 각오와 용기로 부풀어올랐다. ... 이윽하여 리범수를 대신하여 림선옥은 미장칼을 굳게 잡고 건설장으로 나갔다.

리범수는 까만 작업복을 가뜩히 입고 생의 활력에 넘쳐 건설장으로 나가는 림선옥을 뜨거운 마음으로 배려했다.

(선준동지! 기뻐하십시오. 선옥동무가 고향땅에 뿌리를 내리고 힘차게 건설장으로 나갔습니다.)

리범수는 방문을 활짝 열어제겼다.

한껏 무르익은 봄기운이 그의 가슴에 꽃향기를 함뿍 안겨주었다. 마당가의 버드나무가 작은 잎새를 펼치고 봄바람에 하느적이다. 미구하여 버드나무는 더욱 푸르려 설레이것이다. 이 땅의 모든것이 바야흐로 전쟁의 상처를 털고 더 굳세게, 더 아름답게 일어서는것이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 리범수는 지팡이를 찾아 짚고 선옥이의 뒤를 따라 봄빛이 찬연한 읍거리로 나섰다. ...

×

그때로부터 세월은 이 땅위에 반세기 가까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새기며 전진하여왔다.

나는 창문을 열어제끼고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진 읍거리를 부감한다. 십이봉을 감돌아 흐르는 비류강을 따라 다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섰고 토끼재둔덕에는 군문화회관이 독특한 건축미(근간에 개건되었다.)를 자랑하며 서있다.

전쟁의 포화를 느끼지 못한 행복동이들의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진 유치원과 학교, 공원의 곱조각에도 나의 부모들의 땀이 습배여있다.

어머니는 나에게 뒤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나의 심장에 정으로 쫓아박듯 새겨진 철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들이 모든 마음속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고 이 땅위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운 1950년대의 불굴의 투쟁정신, 그 정신을 어제도 그러했지만 선군의 기상이 나래치는 오늘에도 또 래일에도 영원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철의 진리이다. 부모들의 손때가 묻은 다 닳아진 미장칼을 나는 다시금 가슴에 안아본다.

창밖의 버드나무는 미풍에 설레이며 한껏 자기의 운치를 뽐내며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7 천만이며,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

김만영

겨레여
불러 목메이는
사랑하는 7천만 우리 동포여
우리 잠시 귀를 기울이자
삼천리강토
하늘땅 산천초목이
몸부림치며 웨치는
저 소리를 들어보자

새해가 또 왔다고
이 땅이 갈라져서
이제는 60년이 넘었다고
피를 쏟으며 뼈를 에이며
절규하는 저 소리를

분별 60여년!
입에 울리기조차
몸서리쳐지고
외우기조차 수치스러운
이 나라 내 조국의 가슴아픈 분별이여

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는
단 하나뿐인
분별의 고통을 두고
이루지 못한 통일을 두고
나날이 년년이
생각하지 않은적이 없었던만

이 시각
이 몸을 사정없이 채찍질하는
갈라진 땅
갈라진 혈육의 60여년의 그 비극

아 분별에
동족분별에 60여년이 웬 말이나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피줄이 갈라져
이만큼 세월이 지나도록
겨레여 동포여
나는 무엇을 했고
너는 무엇을 했고
우리모두는 무엇을 했단 말이나
손이 없어 잡지를 못했거나
발이 없어 가지를 못했거나

피가 다르고 났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
한집에서 살아야 할 한집안사람들이
남이 되어 판판 남이 되어
헤어져 살았거나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기 그지없구나
입으로는 수없이 통일을 외웠건만
60여년이 넘는 이 분별을 두고—

이것이 분별이 아니고
조국과 민족이
경사로이 맞는 환희의 세월이라면
내 얼마나 지금
가슴 울렁이며 설레이며
그날에 바칠 시어를 고르고있으랴

허나
분별은 60년을 넘어섰거니
아니다
절대로 그런 시를 쓸수 없다
그런 시를 써야 한다면
내 한생 소중히 여기는 이 붓을 꺾으리

어떻게
내 어떻게 이 아픔을 적어 력사에 남기는
그런 시인이 될수 있단 말이나

그릴수 없다
시인도 그런 시인이 될수 없고
정견과 신앙을 가진
그 어떤 인사도
그릴 권리가 없다

내 오늘 새해에 들어서서
이처럼 억울한 심정을 터치는것은
지금까지의 분별로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당해온 그 아픔이
한꺼번에 폭발하기때문이어라

그렇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분별은 7천만 우리 매 가슴에
고통만을 쌓아주며 사정없이 흐르거니

물노니
겨레여
7천만 우리동포여
분별이 60년을 넘어
70년으로 치닫는 이 시각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

하나의 피줄을 끊어놓은 미제가
60년을 넘긴것도 모자라
아직도 분별의 낡은 보따리를 불안고있는 이때
미군축감의 그 막뒤에서
무서운 동족상쟁의 참화를 준비하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제집일은
제 집안 사람들끼리 의논하여
풀어나가야 하건만
한줌도 못되는 매국노역적들이
미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미군이 이 땅에 있어달라고
아직도 애원하고있는 이때

정의와 량심앞에
시대와 력사앞에
대답하라
겨레여 동포여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말아 수행해야 하는것
통일은 피를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민족이 기어이 해야 할
력사의 과제

우리 장군님
6.15북남공동선언에
몸소 붓을 들어 서명하실 때
우리는 조국통일이
너와 나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있음을
피타게 절감했거니

누구나 통일을 원하는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려오는
저 장엄한 메아리를 듣자

련련히 뻗어내린
백두대산줄기의 밀림이
설레이며 웨치누나
다도해의 물결이 기슭을 치며 웨치누나

7천만겨레의 가슴과 가슴들이 터치누나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아, 이 땅에 통일의 새아침을 불러오며
치욕스런 분별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시려
우리의 **김정일**장군
민족의 머리우에 높이 드신
민족운명의 기치
위대한 선군의 기치

통일을 방해하는
온갖 분렬주의자들의 책동과 꾀변
그 어떤 도발도 짓부셔버리는
선군은 이 세상 가장 억세고
이 세상 가장 강대하고 위력하거니

선군만이
분별의 세월을 멈추어세울수 있고
선군만이 아리랑민족을
슬기롭고 용감한 자주통일민족으로
세상앞에 떳떳이 내세워주려니

통일은 안중에도 없는 분렬주의자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날뿔수록
우리는 뜨거운 심장을 안고 선군을 생각한다
통일의 원쑤 미제놈들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올수록
우리는 만만한 투지를 안고 선군을 생각한다

우리도 세계도
다 보고
다 듣지 않았느냐
선군의 기치아래 울려퍼진
6.15북남공동선언을
우리 민족끼리
민족대단결의 대화가 격류하며
굽이치는 소리를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 민족이면
누구나 절감했거니
이제 우리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세상은 다 안다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언어를 쓰며 사는 민족이
60년이 넘도록 헤어져 사는것은
바로 저 미제놈들때문이란것을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우리 조국 남녘땅에서
미제놈들을 내쫓자
미군기지 그 등지채들어
대양건너에 쥐여뿌리자

미제놈들때문에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췌 미제국주의자들때문에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가
아직도 모자란단 말이나
외세에 의해 강요당한
우리 민족의 수치와 모멸이
아직도 적단 말이나

우리가 통일만 되면
세상에서 강대국으로 솟아올라
우리 민족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기에
기를 쓰고
우리의 통일을 막아나서는 미제

우리의 통일을
온갖 모략과 발악으로
방해하다 방해하다
그것이 모자라면
이 땅에서 전쟁도 서슴지 않을 놈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기에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할바를
하나하나 착실히 해놓았거니

만약 미제가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넣으며
이 땅우에 또다시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선군의 기치아래 준비된
우리 민족의 전쟁억제력을
순간에 폭발시키리라

폭발시켜도
우리는 정면타격으로
미제의 숨통을 끊어놓으리라
그 침략의 아성에
해가 없게 하리라
공기가 없게 하리라

내여쫓자

너도나도 우리 단결하고 또단결해서
민족의 힘으로 내여쫓자
마지막미군기지에서
마지막미제 한놈까지
마지막으로 남녘땅에서 내여쫓을 때
그날에야 그날에야
이 땅우에 통일의 아침은 밝아올것이니

그날은
통일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통일유훈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은
오, 그날은
그 어느 한시도
우리 겨레를 잊지 못하시여
하루밤에도 마음속으로
남녘땅 곳곳을 다 찾으시고
바다건너 대양건너
동포들을 다 찾아 만나시는
우리 장군님의 위업이 성취되는 날

그날을 가슴에 안고살며
그날을 꿈속에서도 부르며
겨레여
동포여
우리는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하느냐

통일은 꿈도 아니다
통일은 먼먼 래일의것도 아니다
통일이 외세의 통략물로 되어
우롱당하던 때는 영영 지나갔거니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을 안고
선군조국의 공민된 당당한 존엄으로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조국통일을 선언한다

통일은 나의것
너의것
우리 겨레
우리 민족 모두의 것

오, 조국통일은
우리 겨레의 소원
우리 동포의 목숨
우리 민족의 운명
하기에
통일로 가는 길에서
쉬여서는 안되리

그 누구에게나
휴식할 권리가 없거니

절대로 벗어나지 말자
이미 6.15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끼리 힘차게 옮긴 걸음
온 민족이 한덩어리가 되어
힘차게 발맞춰나가자
강철의 흐름이 되어
불의 대하가 되어

우리 가는 길에
력사의 반동들
분렬주의자들이 막아서면
강철의 흐름으로 쳐갈기자
불의 대하로 태워버리자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다시는 앞을 막아서지 못하게

그리고 그 불길을 높이 들어
삼천리강토우에
그 이름도 환희로운
통일의 해로 새기자
통일의 아침을 안아오자

아 그러면
후세들은 불러주리라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분렬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은 우리 세대를
통일의 세대로 자랑높이 불러주리라
겨레여
불러 목메이는
사랑하는 7천만 우리 동포여

작가일화

최자가 격찬한 시의 모범

김구(1211—1278)가 제주관판으로 가있을 때였다. 하루는 서울(그때 도읍지는 개성이었다.)에서 한 관원이 내려왔다. 그 사람은 과거시험장에서의 부(시형식의 하나)를 짓는 제목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그 제목의 내용은 옛날에 온나라안이 싸움으로 소란스러운 때 한개 소국의 통치자가 험한 조건에서도 정치를 능숙하게 하여 천하를 다스렸다는것을 가지고 시를 지으라는것이였다. 우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야 알수 있는 그다지 유명한이야기도 아니였고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통일고려의 현실과 결부시켜 주장할 문제점을 똑바로 잡아쥐기도 어려웠으며 그런 내용에 맞게 형상을 시적으로 다듬기도 쉽지 않았다. 최자가 그 제목을 보고 시짓기가 어렵다는것을 느끼고 옆에 앉아있는 김구를 얼핏 결눈질해보았다. 김구는 그 제목을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앉아있었다. 배심이 든든해서일가? 아니면 제목이 시시해서일가?

최자는 야릇한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이 김구라는 젊은이가 과거시험장에서부터 명성을 냈는데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의 시솜씨를 한번 시험해보는것도 괜찮아.)

《여보게, 내 보기에는 이 제목을 가지고 시를 짓기란 여간 어렵지 않을것 같네. 자네가 어디 한번 나의 이 의혹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 제목으로 시를 하나 지어주게나.》

김구는 그 청에 웃음으로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러면서도 년장자에 대한 레절을 지키며 얼른 붓을 들고 시짓기에 달라붙는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여 마감을 지은 다음에야 글을 써내려갔다. 단박질로 다 쓴 시를 최자에게 내놓으면서 《갑자기 짓다나니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하고 미안쩍게 웃었다.

김구가 내놓은 종이장을 들여다보던 최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다. 그는 자기의 무릎을 손바닥으로 탁 쳤다.

《참으로 훌륭하오. 점 하나, 아니 반점도 덧볼 일것이 없네. 내가 이 시를 기념으로 가지겠소.》

그는 김구의 동의를 얻어나마나 하다는 태도로 그 종이를 건사하였다. 얼마후 최자는 아들에게 이 종이를 내주면서 신신당부하였다.

《이 시는 그저 잘된 시라고만 해서는 불충분하다. 이것은 시의 교범이다, 교범! 그러니 너는 이것을 공손히 받들어 잘 간직해두어라.》

큰 학자이고 작가인 최자가 자기의 아들 나이인 젊은 시인 김구가 즉흥적으로 지은 시에 대하여 높이 평가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김구의 비상한 시재능에 다시한번 감탄하는 동시에 후대시인에 대한 최자의 뜨거운 사랑과 소탈한 태도에 감탄하였다.

김구는 대표작으로 한자시 《리원정을 찬양함》, 《떨어진 배꽃》을 남기였다.

《떨어진 배꽃》

꽃잎이 펄펄펄
날아가고 날아오네
피였던 그 가지에
다시 올라보려는듯
아차, 한잎이
거미줄에 걸렸구나
거미가 기여오네
나빈줄만 알았던지...

나는 시가의 붓을 놓을수 없다 (외 1 편)

진춘근

미제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생각만 해도 심장이 뚫어
잠결에도 꿈결에도
나는 시가의 붓을
멸적의 총대처럼 틀어진다

전화의 그날
너털웃음치며 피부는 미제의 줄폭탄은
교정에 차넘치던 글소리 노래소리 웃음소리를
너무도 무참하게 뚫어버렸다
너무도 억울하게 짓몽개버렸다
누나처럼 탁구선수가 되겠다던
나의 두손도 그렇게 앓아갔다

아름이 파편처럼 박힌 이 땅에서
상처입은 부모들과 아이들의 마음을
눈물로 위안하고 말로 달래서
풀어야 할 원한이 아니기에
나의 얼굴엔 한점의 그늘도 비끼지 않았다

상처의 동통이 못 견디게 도질 때면
숨지여도 눈을 뜬채 적비행기를 가리키던
담임선생님의 령혼이 눈앞에 어려와
뿌드득—
이를 갈며 목새기던 낮과 밤은

과연 짚았던지 길었던지
아, 그런 날 그런 밤들에
마르지 않는 그 원한의 피 방울방울이
이 몸에 뜨겁게 흘러들어
나이보다 때일찍 어린 복수자로
야수중의 야수인 승냥이 미제를
눈에서 불이 일도록 증오할줄 알았다
앞마울 철이네 아버지 쌍지팽이에서도
뒤마울 분이네 온 가족 무덤가에서도...
그때문이여라, 오 그때문이여라
세월은
나의 상처자욱을 가셔주었어도
마음속 상처의 아픔과 고통만은 가셔줄수 없나
니

내 어찌 이 시가의 붓으로
백년속적 미제의 죄행을
만천하에 날날이 고발하지 않으랴

아, 지금도 그때처럼 피묻은 발톱을 뽑아 들고
재침을 노리며 미쳐날뛰고있거니
복수로 만탄창된 이 가슴
분노의 화약으로 장약된 이 증오의 마음 터쳐
철천지원쭈 미제를 복수하기 전에는
세월속에 다져진 이 분노의 총대
나는 시가의 붓을 놓을수 없다!

불같이 달아오른 이 마음은...

보기만 해도 이가 갈리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쳐
저절로 주먹이 굳어지게 하는구나
고향땅에서 새로 발굴된
레루못, 꺾쇠, 팽이...
분노로 달아오른
내 눈앞에 있다면
우리 부모들이 당한 고통을 천백배로 합쳐
내 몸과 내 조국이 겪은 불행도 재워
흔적도 없이 모조리 짓몽개버릴
철천지원쭈 미제

땅을 준 고마운 인민공화국을 위해
애국미 선참 바친 성실한 농민들이
그렇듯 참혹하게 학살되어야 했느냐
머리에 꺾쇠와 레루못을 박고
팽이로 쳐서... 이름만 들어도

증오로 불타게 하는
살인귀 미제
분명 네놈들은
한순간도 피를 못 마시면 발작하는
인두겁을 쓴 미제

네놈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오늘도 참혹한 살륙이 벌어지기에
애어린 내 손자마저
텔레비죤에서 네놈들만 보면
주먹을 부르짖다 승냥이 미제
오 전몰하라
네놈들을 무자비하게 죽치려
이 땅의 강변에 널린 막돌도
총알이 되어 날아가려 들먹인다
이 땅에 굶이쳐 흐르는 강물도
불뿔이 되어 쏘아지려 격랑을 일으킨다

참을대로 참아온 분노를
 보복의 총탄으로 날려
 쌓이고 쌓인 증오를
 화산의 분화구로 터쳐
 네놈들을 멸살시킬
 분노의 순간에 내 사나니

이제 결전의 시각이 오면
 달아오른 총대를 식힐새없이
 복수의 총을 들고 내달릴 내앞에서
 네놈들은 다시는 단 한놈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의 복무메달

신철

군복입은 가슴에 하나둘
 훈장과 메달이 늘어날 때마다
 기쁨은 컸어도
 복무메달이여 너를 탄 오늘처럼
 생각은 깊지 못했어라

쫓아보면 자그마한
 이 메달에 다 어려있구나
 청춘을 총대로 빔내이며
 벽차게 흘러간
 병사시절의 나날들이

땀에 젖어 숨가빠 달리던
 훈련장의 산발들도
 눈비 맞으며 지새우던 밤
 가슴에 젖어오던
 전호가의 구수한 그 흙냄새도

여기에 다 비껴있어라
 입대하여 첫 군공메달을 타고
 울렁이는 마음으로
 고향집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며
 잠 못 들던 그밤도

아버이장군님 모신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소식 듣고
 모교의 담임선생님 보내온
 사려깊은 축하편지를 받던
 그날의 그 환희도

청춘의 꿈많은 나이에 군복입고
 총대청춘을 꽃피워온
 병사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복무메달이여 너는
 소중히도 새겨안고있구나

내 이제 세상을 놀래우는
 그런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세운다고 하여도
 인생에 두번다시 탈수 없는
 복무메달!

너는 진정
 수호의 총대를 틀어잡고
 청춘의 피와 땀 바쳐가는 병사에게
 어머니조국이 안겨주는
 선군의 값높은 표창이여라

먼 후날에도 너를 보며
 내 뜨겁게 추억하리라
 성스런 복무의 자욱자욱으로
 인생의 좌표를 새겨준
 병사시절의 보람찬 나날들을

그리고 자서전에도
 긍지높이 적어넣으리라
 우리 장군님을 총대로 받드는
 위대한 선군의 시대에
 장군님의 병사로 복무했다고

아 선군의 한길에서
 영원히 병사시절에 살라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 가슴에
 총대의 넋을 심어줄
 나의 복무메달이여!

혁명적신념과 인생관에 대한 심오한 예술적해명

-장편소설 《폭풍이 큰돛을 펼친다》에 대하여-

안희열

주인공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낸 소설작품의 감화력과 인식교양적의의는 참으로 큰것이다. 소설작품의 이러한 형상적기능을 장편소설 《폭풍이 큰돛을 펼친다》(홍석중 작)를 읽고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소설작품은 종자도 특색이 있고 제기하고있는 인간문제도 선군시대인 오늘의 견지에서 절실하고 의의가 있는 문제이다. 세찬 바람만이 큰돛을 펼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종자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은 이러한 종자를 생활의 사상적알맹이로 하여 선군시대가 제기하고있는 중요하고도 절실한 인간문제인 혁명적신념의 기동, 신념의 원천을 어디에 두고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고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혁명적수령관, 인생관, 사랑관과의 관계속에서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 있다.

장편소설은 무엇보다도 혁명가의 강직한 신념은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혁명적수령관과의 관계속에서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해명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신념화된 충실성은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깊은 인식과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야 혁명이 승리하고 자신과 인민의 운명이 개척될수 있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작품에서 원형인물에 기초하여 형상하고있는 주인공 박승제는 평범한 인민군전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떻게 원수들에게 체포된 후 군사재판에서의 사형판결과 광주와 대구형무소에서의 10년, 《보호관찰》대상으로서 10년, 서울남산지하실에서의 1년, 두번째의 사형판결과 서대문형무소 감방에서의 20년간 온갖 무서운 육체적 및 정신적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전향을 끝까지 거부하고 혁명적신념을 지켜낼수 있었는가. ... 그것은 그에게 신념의 기동이 든든히 박혀있었기때문이다.

원수들은 승제를 남산지하실에 끌어들여 온갖 위협과 공갈, 악형과 회유책동을 다 벌려보았지만 그의 신념을 굽혀낼수 없었다. 별의별 공갈과 고문만행을 감행하여도 더욱더 굳세여지는것이 그의 신념과 의지였다. 자기들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엔 없게 된 《염라대왕》인 《중앙정보부》의 5국국장인 승제를 제 방에 불러다놓고 《박선생, 당신들의 그 신념은 어떻게 생긴거요. 그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된것이구?...》라고 질문하였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태양의 위대성에 대한 설명으로만 가능한것이였다. 밝은 태양도 소경의 눈에는 검게 보일터인데 반공사상이 골수에 박힌 그에게 심장으로부터 느낄수 있을 태양의 광휘로움을 어떻게 몇마디의 말로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승제에게 있어서 그 신념의 뿌리, 신념의 기동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심이고 믿음이다. 승제가 평양에서 생활한 기간은 해방직후 불과 4년밖에 안되였다. 그러나 아버지 여수(박팔양)로부터 아버지수령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뜨거운 체험세계와 위대한 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러르는 아버지의 굳은 신념이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가 하는것을 자기의 실제험을 통해 깨달았다.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정치활동으로 강선지구 농촌마을에 나갔다가 한 농민에게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농민들과 농사일도 허물없이 의논해주시며 행복할 래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소박하고 자애로운 모습에서 태양의 광휘로움을 보았던것이다. 승제는 그 태양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의 끝없는 행복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음을 심장으로 느꼈고 장군님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투쟁할 결심을 굳게 다졌다. 승제의 강직한 신념은 다름아닌 그 결심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것이였다. 주인공의 신념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한것으로서 자기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깨닫고 체득하고 굳은 결심과 각오로 다져진 불같은 충실성의 열정에서 뿌리깊이 내려지고 철석의 의지로 다져진것이다.

작품에서는 뿌리깊이 박힌 혁명가의 신념이 얼마나 굳세고 강한가 하는것을 주인공인 승제의 형상을 통하여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승제는 주체41(1952)년 원수들에게 체포되어 군사재판에서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여 광주와 대구감옥에서 10여년간 모진 악형을 다 받으면서도 끝끝내 전향을 하지않았다. 그후 감옥에서 나와 놈들의 《보호관찰》대상이 되였지만 투쟁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을뿐아니라 자기가 구원해준 한 처녀의 열렬하고 순결한 사랑을 받게 되자 그의 사랑에 공감되어 그와 결혼하고 세 아이의 아버지까지 된 몸이였지만 안해의 달콤한 사랑과 안온한 가정생활의 분위기속에서 자기 머리에 독이 쏙고있음을 느끼게 되자 그 사랑의 보급자리를 차고일어나 풍랑사나운 배에 다시 몸을 싣는다. 이것이 감옥에 끌려가 옥고를 치르고있는 혁명동지들의 결의로 가는 길이며 그러한 아버지장군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승제의 심장속에 신념의 뿌리가 깊이 박혀있었기에 모략과 음모의 소굴이며 《염라국》으로 소문난 서울남산지하실에 끌려갔지만 자기의 신념을 절대로 굽히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투쟁과 북으로만 쏘리는 민

심을 차단하고 치안교란의 책임을 북에 넘겨쥬우는 이른바 《신기루작전》을 발기하고 불은 불로 끄고 가시는 가시로 파내는 격인 이복출신 진짜 빨갱이를 리용하는 《에쓰리작전》이라는것을 꾸미고있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그 역으로 조선인민군경찰병출신이고 북에 있는 이름난 시인(여수)선생의아들이며 자기들이 《보호관찰》대상에 넣고 감시해온 박승제를 점찍어놓고있었다. 그래서 놈들은 승제가 저들의 《보호관찰》대상이며 《상천포의 간첩단》사건의 배역으로 설정한 조동무를 찾아가 분격을 참지 못하여 폭약을 안구다니다가 청와대에 앉아있는 강패너석을 끌어안구 자폭해버리겠다고 한 말을 그대로 도청록음해가지고 《국가원수암살미수죄》의 《헌행범》으로 몰아 체포했던것이다. 놈들은 그에게 《상천포의 간첩단》 사건이나 《국가원수암살미수사건》을 모두 북의 로동당지도부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조직한것이라는것을 인정하고 직접 나서서 말하여 사람들에게 납득시킬것을 강요했다.

승제는 이때에 《개놈의 새끼! 네놈이 감히 우리 당을 더러운모락에 끌구들어?》하면서 증오의 분격을 참지 못하여 결상을 형사놈에게 힘껏 던졌다. 그는 놈들의 각목에 못매를 맞아 왼쪽눈알이 쏟아져나왔고 다리 하나가 부러졌으나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한번 우리 당의 존엄을 건드린다면 아주 죽어버리고말겠다고 울려했다. 승제는 원썬들이 우리 당의 존엄, 우리 장군님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는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남산지하실의 교형리들은 그 어떤 위협공갈로써도, 사람들을 공포로 전율게 하는 《8월지옥》, 《백열등지옥》, 《살모사지옥》, 《참대침지옥》, 《칭기스한의 지옥》 등)으로써도 그의 신념을 꺾을수 없었다. 안해와의 면회를 통한 심리작전으로써도, 아버지가 북에서 정치적으로 매장되었다는 악설로써도 그의 신념과 의지를 조금도 흔들어낼수 없었다.

승제는 신념의 기둥, 신념의 뿌리가 든든하였기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로 싸우다 죽는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서울서대문형무소 감옥으로 이송되어 사형판결을 내리는 공판장에서도 죽음을 맞받아나감으로써 그 어떤 변호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청와대의 독재자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내용을 더 증폭시켜달라고 요구했고 놈들의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죄행과 살인귀적만행을 준렬히 단죄했다.

작품에서 주인공 박승제는 혁명전사의 자부를 안고 죽음을 맞받아나감으로써 죽음을 이겨냈고 신념을 끝까지 지켜냈으며 끝내 조국의 품, 위대한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올수 있었다.

세찬 바람만이 큰돛을 펼칠수 있는것이다. 신념의 기둥, 신념의 뿌리가 든든하면 그 어떤 세찬 폭풍이 휘몰아치고 사나운 풍랑이 앞을 막아나서도 배는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신념을 끝까지 지키고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이 작품이 밝혀낸 심오한 생활의 철학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장군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세찬 폭풍도 풍랑도 헤쳐 변함없이 선군길을 가야 할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주는 심오한 생활의 진리이다.

장편소설은 다음으로 주인공이 지닌 혁명적인

념을 혁명적인생관과의 관계속에서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다.

혁명적신념은 인생관화될 때 공고한것으로 된다.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닌 혁명적인생관을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부르조아적인생관과의 대비, 대결속에서 그 정당성과 위대성을 밝히고있다.

혁명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조직과 집단, 당과 혁명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앞에 다진 맹세 절대로 변치않고 끝까지 혁명적절개를 지켜 싸워가는데서 삶의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다. 전향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혁명적절개를 지켜싸운 수많은 옥중투사들, 비전향장기수들이 바로 그러한 혁명적인생관의 소유자들이었다.

수많은 혁명투사들과 애국렬사들이 무서운 악형을 당하고 단두대에 오르면서도 비전향의 길을 택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투철한 혁명적인생관을 지녔기때문이었다. 작품에서 주인공이 감옥생활의 선배로, 스승으로 내세우고 귀감으로 삼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리동지와 최동지가 그러한 인생관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주체 41(1952)년 겨울 놈들에게 체포된 후 독감방에 갇혀서 무서운 고문을 받다가 자결로써 자기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켜낸 녀성혁명가 고동지가 바로 그러한 투철한 인생관을 지닌 사람이었다.

작품에서 주인공 승제는 혁명적인생관을 지닌 비전향장기수의 전형으로 격이 있게 형상되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로 살며 한몸바쳐 싸워나가는데서 삶의 참된 보람과 행복, 영예를 느끼는 사람이다.

주인공의 인생관은 군사복무도 했고 감옥생활도 같이하였으며 같은 처지의 《보호관찰》대상인 조동무의 인생관과 차이가 많았다. 조동무는 서울에 처와 아이까지 있으며 회사를 하나 운영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있었는데 20년만에 만난 옥중동지인 승제앞에서 《살아야 하네. 세상은 지옥 같애두 어떻게든 견디여 오래 살아야 해.》하면서 《살아남는것이 승리자》라고 열변을 토했다. 그는 평시에는 옛날 미학자나 철학가들의 고사를 곧잘 외웠고 여수선생의 《진달래》 시구에도 공감했었다. 그러나 그는 소부르조아사상을 가지고있었기에 《보호관찰》대상으로 놈들의 관용을 받게 되자 남조선사회풍조에 쉽게 오염되어 개인주의적 인생관에 빠져들어갔다. 그리하여 감옥에서 나올 때 동지들과 혁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도 다 집어던지고 《보안감호법》으로 다시 감옥으로 끌려간 동지들도 다 잊어버리며 조국도 혁명도 다 뒤전에 미루어놓기 시작하였다. 결국 놈들의 《간첩단사건》에도 쉽게 리용당하였으며 승제의 강한 비판과 공격에 정신이 좁 들어 변절하지 않았지만 남산지하실에 끌려간 첫날에 놈들의 고문에 못이겨 죽고말았다. 이것은 인생관화되지 못한 신념은 확고한것으로 되지 못한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혀주고있다.

남조선사회에서 실존주의사상에 깊이 물젖은 순회는 사랑으로 무어진 든든한 배만 있으면 모진 풍랑도 헤쳐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전박에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벼락이 쳐도 아랑곳할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자기와 남편 두사람의 행복과 자식들의 안녕을 지킬수 있는

배만 있으면 그만이라는것이다. 실용주의사상에 물젖은 수많은 남조선사회사람들의 개인주의적인 생관을 대변해주는 인물이다.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관을 지닌 녀성이였기에 동지들과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생각으로 늘 모대기고있는 남편인 승제를 리해할수 없었던것이다. 사랑의 배는 함께 탔지만 노를 젓는 방향은 서로 달랐다. 결국 승제가 사랑의 배에서 뛰어내려 풍랑 사나운 배에 몸을 실은것은 인생관의 차이에 기초한것이였다.

작품에서는 순희의 사촌오빠인 리소장의 형상을 통하여 부르조아적인생관은 권력의 야심과 황금만능주의에 기초한 반동적인생관임을 생활적으로 깊이있게 파헤쳐보이고있다. 그는 장차 룡이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는가 못 오르는가 하는것이 부모없이 자란 자기 사촌누이동생과 역대제별2세의 귀공자와 정약결혼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동생이 북쪽출신의 《빨갱이》에게 반했다는것을 알게 되자 그 《빨갱이》에게 동생을 빼앗길가봐 두려워했고 녀동생에게 설교했으며 서울에까지 올라와 승제에게 사랑을 포기할것을 강요했고 위협공갈까지 하였다. 그리고 결혼이후에 승제가 《국가원수암살미수죄》로 공판장에 끌려가게 되자 많은 돈을 써가며 윤변호사를 파견했고 그 변호를 거부하고 사형판결을 받는 길로 나가자 녀동생에게 《리혼신청서》를 내도록 강요하였다. 출세와 권력, 돈과 재물을 위해서는 초보적인 도덕도 의리도 량심도 다 짓밟아버리는것이 미제의 실용주의철학에 깊이 물젖은 남조선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퇴폐적인 인생관이다.

군부의 하층인물들의 인생관, 도덕적비열성이 이렇진대 상층계층인물들의 인생관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작품에서는 《청와대》를 타고앉은 독재자가 《유신헌법》을 조작해낸것자체가 봉건제왕처럼 종신대통령을 해먹자는 야심에서 출발한것이고 《중앙정보부》의 모략가들, 남산지하일의 《염라대왕》이나 주가성을 가진 교형리나 예심실장, 서울서대문형무소의 박검사, 재판관나으리들이 모두가 다 《유신헌법체제》를 유지해서 자기들의 권력야욕을 채우며 권모술수도 더 잘하고 《전향실적》을 더 올려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타고앉아 더 많은 돈과 재물을 긁어모으자는데 있었다.

하지만 부르조아적인생관에 떠밀려나가는 배는 가라앉기마련이고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작품은 형상적으로 밝혀내고있다. 《청와대》의 독재자가 제 심복놈들의 총에 맞아 즉살하고 유신헌법체제의 줄개들이 남에게 씌우려던 울가미에 제 목이 걸려 무리로 교수대에 끌려갔다.

작품이 밝혀낸 이러한 심오한 철학성은 부르조아인생관에 깊이 물젖어 미국놈들을 등에 업고 민주와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을 배신하는 남조선의 괴뢰통치배들과 그 하수인들의 운명의 말로도 달리는 될수 없다는것을 생활적인 진리로 밝혀준 것으로 된다.

장편소설은 또한 비전향장기수 안해들의 사랑관을 통하여 혁명적인생관과 동지애에 기초한 참

다운 사랑만이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낳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는 생활의 진리, 사랑의 철학을 밝히고있다.

사랑의 성격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령장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가의 사랑은 혁명의 길에서 뜻과 리상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될 때 공고하고 아름다운것으로 되며 그러한 사랑만이 더 커지고 억세여지는것이다. 이것은 승제가 순희와의 사랑문제를 고민하면서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을 때 감옥의 선배동지가 가르쳐준 사랑의 철학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철학을 옥중투사인 최동지의 안해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승제의 안해인 순희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의 대비들에서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밝히고있다.

주인공과 함께 대구형무소에서 옥중투쟁을 한 최동지는 정치적으로 누구도 견줄수 없는 강한 신념을 지닌 혁명가였다. 그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 비판을 모르는 혁명적락관주의에는 진정한 우정과 동지애에 기초한 안해의 뜨거운 사랑의 힘이 크게 안받침되어있었다. 무기징역 10년을 넘어서 자기 남편에게 그 녀성은 하루도 빠짐없이 사식과 약품을 감방안에 차입해 들여보냈다. 그 하나하나가 남편을 위해 피라는 노력으로 땀이 돈을 모아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고귀한 지성품이었다. 그러한 안해였기에 동지들의 부축을 받으며 형무소문을 나서는 남편을 보자 그의 눈은 곧 숲불처럼 타오르며 눈부신 빛발을 내뿜었던것이다.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인가. 그 사랑의 불빛앞에서 사람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녀인에게 절을 하였다.

옥중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신념을 끝까지 지켜낸 남편을 자랑스럽게 맞이하는 그 녀성의 사랑과 순희의 사랑을 나란히 세워보면 얼마나 대조적인가. 순희는 사랑에서 언제나 불덩어리와 같았지만 것처럼 짧은 시간에 차거운 재로 식어버리고말았다. 순희가 결코 철없고 순진한 녀성이 아니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의 량만큼 행복의 량을 규정하는 리기적인 녀성이였다. 그는 남편이 된 승제를 자기 하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신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남편을 사랑의 애무에 취하여 따뜻한 아래목에 주저앉아 즐기고있는 수고양이가 될것을 바라고있었다. 그러나 승제는 순희 한 녀성만을 위한 사랑의 신으로 될수 없었다. 그래서 순희와 사랑의 배는 함께 탔지만 승제의 녀, 사랑의 눈길은 다른데로 더 많이 향하고있었다. 순희가 것처럼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감싸주었지만 승제는 끝끝내 그 사랑의 배에서 뛰쳐내리고 말았던것이다.

순수한 부르조아적사랑관에 기초한 사랑은 공고할수 없는것이다. 결국 순희는 감옥에 면회 와서 처참한 《귀신》의 몰골로 변모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자 처음에는 질겁하는 표정이였고 그 다음에는 외마디 비명을 질렀으며 그다음은 돌아앉아 슬픔에 잠겨 끝없이 눈물을 쏟다가 말없이 그 자리를 뜨고말았다. 이제 승제가 자기를 위한 사랑의 신이 더는 아니었던것이다.

돈황석굴의 비밀

이 이야기는 《왕오천축국전》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된 사연을 반영한 것이다.

혜초(704~787)는 려행을 끝마치고 돌아온 후 자기의 려행기를 정리추고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이 려행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널리 읽혔다. 사람들은 이 책을 그저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해설을 가하기도 하였다.

당나라에 혜림이라는 중이 있었다. 그도 이 희귀한 도서에 해설을 가하여 《일체경음의》라는 책을 내었다.

이렇게 많이 읽히던 《왕오천축국전》이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아마도 불교가 역제당하고 사원들이 전보다 못해진 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어왔다.

인류문화의 자량인 《왕오천축국전》은 덧쌓이는 중세기봉건력사의 락엽에 깊이 묻히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 망국의 비운이 내리깔리던 1900년경이었다.

중국에서 왕도사라는 중이 돈황사라는 절간의 주지가 되었다. 절간을 돌아보던 주지는 석굴에서 흠으로 바른 곳을 보게 되었다. 무심히 지날 수 없어 주지가 그 자리를 헤치고 보니 그안에 책들이 가득히 차있었다. 그러나 그 책들이 무슨 책인지 알지 못하여 그냥 내버려두었다.

그 책들가운데서 몇권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 시장에 나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회적으로 이 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돈황석굴의 도서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1908년경이었다. 연구과정에 학자들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희귀한 대려행기를 읽게 되었다. 책의 내용과 종이며 체제로 미루어보아 천수백년전의 것이 틀림없을 것 같으나 그이상은 알 수 없었다. 책의

내용과 가치에 깊이 끌려든 학자들은 그 책을 고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마침내 이 책이 혜림이 쓴 《일체경음의》에 해설된 원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리하여 1910년에 《왕오천축국전》과 그의 저자 혜초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학자들은 경탄과 환희에 넘쳐 《8세기 불교를 상대로 하여 묘사한 현대의 가장 귀중한 자료이다.》라고 하였다. 세계 각지의 여러 학자들이 이 책을 연구하게 되었다. 1960년경에 서유럽 어느 대학의 한 교수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조각이 있지만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기록되었으니 오늘날에 있어서 세계고전문헌중의 한 중요한 자료이다.》라고 경탄하였다.

《왕오천축국전》의 간결본 원문은 프랑스의 파리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부르조아적인 생관, 사랑관에 기초한 리기적인 여성인 순희는 남편이 품고 있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었다. 그는 남편의 리상과 신념을 믿지 않았으며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사랑이나 리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허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래서 승제가 육중생활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남편의 곁에서 물러났고 남편이 생명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신념을 한갓 옛이야기에 나오는 것으로 묵살해버렸으며 남편이 사형선고를 받자 서슴없이 《리혼신청서》를 써보내왔던 것이다. 제 손으로 포박포박 쓴 그 문서장에서는 순희의 고민과 몸부림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팽만한 심장으로 영원한 사랑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었다.

순희의 이러한 사랑은 최동지의 안해의 뜨거운 사랑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또한 승제와 같은 시각에 사형언도를 받게 되는 남편을 실은 수인차를 막아서는 경관들을 떠밀어제끼며 달려가는 그 젊은 여성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승용차를 몰아 수인차뒤를 바짝 따르는 그 여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형수 안해의 눈물은 순희와 같은 허무와 비애의 눈물이 아니었다. 뜨거운 심장에서 우러나온 다함없는 사랑의 눈물이었고 교형리들에 대한 증오에 불타는 눈물이었다.

열렬한 사랑과 불타는 증오의 두 감정이 합쳐

져서 불굴의 신념을 만들고 강철의 의지를 버려놓는다. 혁명가의 강직한 혁명적신념은 혁명적인 생관과 함께 혁명적사랑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심오한 생활의 철학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이 소설의 중요한 형상적전인력과 가치의 하나이다.

소설은 구성과 문장조직, 언어표현과 형상수법에서 작가의 독특한 개성과 형상기교, 진지한 탐구정신을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

감옥생활을 기본으로 그리면서도 형상구성을 리듬체적으로 조직하면서 생활을 폭넓게 일반화하여 보여준 것이라든가, 소설을 인간학적인 요구에 맞게 사건문학이 아니라 성격문학으로 되도록 주인공의 성격적해를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간 것 등은 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을 높일 수 있게 한 중요한 창작적성과로 된다.

이와 함께 여러가지 대조와 대비수법, 형상적 비유와 상징수법, 의인화의 수법의 적극적인 활용, 성구와 고사의 적절한 리용, 세계고전문학작품들의 효과적인 활용으로 성격적특성과 생활의 심오한 본질을 생동하고 인상깊게 표현한 것은 형상의 진실성과 철학성, 지성도를 높일 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소설은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냄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적국인정신과 참다운 혁명적 인생관을 심어주는데서 귀중한 정신적량식으로 되고 있다.

리우원의 《해동악부》에 대하여

리원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나라의 역사와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슬기로운 인민입니다.》

우리인민이 창조한 찬란한 문화전통가운데는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시기와 고려시기를 거쳐 리조말기까지 줄곧 발전하여 높은 수준에까지 오르게 된 악부시도 들어있다.

19세기 후반기에 리우원(1814~1888)에 의하여 창작된 《해동악부》도 그중의 하나이다.

1871년 동지달에 탈고된 내용이 간명하고 아담하면서도 또 여운이 풍부한 필치로 엮여진 《립하필기》의 제38권에 《해동악부》가 수록되어 있다.

해박한 지식의 소유자인 리우원이 여러가지 저서들과 함께 악부시묵음집인 《해동악부》를 남겨놓은것은 우리 나라 중세 말기 악부시유산을 풍부히 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것으로 된다.

리우원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노래들을 기록한것을 《악부》라고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악부를 노래를 기록한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러한 노래들이 어떻게 창작되었으며 지금은 어떻게 유행되었는가 하는것을 해설한것도 《악부》라고 하였다.

리우원이 《삼한악부》에 기초하여 창작한 《해동악부》는 해당 시가작품의 머리말부분과 악부시로 되어있는데 머리말부분에서는 해당 작품의 창작동기와 전승과정을 서술하였으며 악부시에는 노래를 기록하거나 그 노래로 하여 얻어진 필자의 소감과 그것이 후대들에게 주는 교훈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리우원의 《해동악부》는 우리 나라 악부시의 일반적특성을 체현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해동악부》는 제재의 범위가 비교적 넓다.

《해동악부》에서 가장 많이 리용된 소재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이다.

악부시 《삼한악》, 《고구려악》 등이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이라면 《교방녀제자》, 《훈민정음》 등의 악부시들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소재로 한것들이다.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에 대하여 옳은 악부시들은 해당한 소재에서 받아안은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한여름과 초가을 땅 구르며 추는 춤
농사일 시작마감 절기맞게 벌어지네
방울소리, 가야금소리 어울려 화답할제

온갖 새 쌍을 지어 춤터에 날아드네

악부시 《삼한악》에서 보는바와 같이 시에서는 삼한 즉 진국의 풍속에서 5월과 10월에 진행되던 제천풍속과 그때의 정황을 읊고있다.

《해동악부》에서는 또한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 우리 나라의 역사문헌들에 실려있는 음악관계자료들을 대부분 소재로 리용하고있다.

《회소곡》, 《우식악》 등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 전해주는 중세 우리 인민들이 창작하였던 노래들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작품이며 《목주가》, 《사리화》 등은 《고려사》의 악지에 실려있는 노래들을 가지고 지은것이다. 그리고 《헌선도》, 《수연장》 등은 15세기말에 편찬된 《악학궤범》에 소개된 노래들을 소재로 하여 창작한 악부시들이다.

이처럼 《해동악부》는 우리 조선민족이 오랜 세월을 걸쳐 창조하고 전하여온 노래들을 채집하여 소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전통을 엿볼수 있게 하고있다.

《해동악부》에는 우리 나라에서 《훈민정음》 창제이후 국문시가창작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 창작되었던 사상적지향이 비교적 진보적이고 예술적 형상이 우수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별적 문인들의 가사작품들을 소재로 한 《도산구곡가》, 《석담구곡가》, 《관동별곡》, 《사미인곡》 등의 악부시들도 들어있다.

《해동악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민속생활을 노래한 작품들도 찾아볼수 있다.

악부시 《고려팔관회》는 고려시기에 진행되던 《팔관회》를 소재로 한 작품이며 악부시 《제석나》는 설날 그믐날 밤에 궁중에서 진행하던 《나례》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이렇듯 리우원의 《해동악부》는 우리 민족생활에서 다양한 소재를 취하여 그것을 시로 읊고 그에 대한 자기식의 해설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중세 악부시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해동악부》는 실고있는 작품의 주제 또한 아주 다양하다.

《해동악부》에 들어있는 작품들가운데는 봉건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봉건적착취와억압속에 시달리는 인민대중을 뜨겁게 동정하는 악부시들이 적지 않다.

악부시 《장암가》가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평장사나리에게 깨우쳐준 로인의 말
재상님도 잘못하면 그물에 걸린다고

이런 일이 그 어찌 옛날에만 있을손가
그 늙은이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

평장사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정사는 바로하지 않고 그릇된 일만 일삼다가 귀양살이를 하게 된 두영철이라는 량반을 시골의 한 이름없는 늙은이가 준절하게 깨우쳐준다. 그러나 벼슬길에 현혹된 두영철은 자기의 잘못을 고칠대신 그 본새를 되풀이하다가 또다시 죄를 짓고 시골로 쫓겨가게 된다. 이것은 《고려사》 악지에 실려있는 사실이며 지난 시기의 악부시들에서도 언급되었었다. 《해동악부》에서는 늙은이의 말을 긍정하면서 세상에서 온갖 불의와 탐욕만을 일삼는 관료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일이 어찌 옛날에만 있을손가》라고 개탄하고있다. 그러면서 《그 늙은이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라고 하면서 불의와 탐욕을 일삼는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나 그것을 타매하고 시정시켜줄 인물이 없음을 통탄하였다. 이것은 바로 리유원의 진보적인 견해와 주장의 일단이 아닐수 없다.

봉건사회의 부패상과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작품들로는 이밖에도 《제위보》, 《례성강》 등을 들 수 있다.

《해동악부》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의 착취행위를 폭로단죄한 작품도 찾아볼수 있다.

악부시 《사리화》에서는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봉건통치배들을 참새에 비겨 폭로비판하고있다.

참새가 날아들어 우리 곡식 쫓는구나
밭에서 한해량식 모조리 축내누나

작품에서는 온 한해 애써 지은 곡식들을 마구 뺏아가는 지주들과 토호들, 봉건통치배들을 알미운 참새에 비유하여 비판하면서 《백성들의 이 고생 누워서 알아주겠는가》고 부르짖고있다. 통치배들의 이러한 착취로 인해 흠아비와 고아들이 굶주린다고 작품에서는 개탄하고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흠아비와 고아는 당시의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근로인민대중을 의미하는것이다.

작품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을 령락시킨 봉건통치배들을 비판하면서 근로인민들에 대한 뜨거운 동정심을 표시하고있다.

이와 같이 《해동악부》에는 봉건사회의 부패상을 폭로하고 인민대중의 생활을 동정하는 작품들도 수록되어있다.

우리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외래침략자들을 쳐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왔다.

《해동악부》에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반침략투쟁을 력사적으로 펼쳐보이면서 외래침략자들을 쳐 물리치는 싸움에서 애국적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한 우리 인민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긍지높이 찬양한 작품들이 여러편 실려있다. 악부시 《궁수분》, 《금강성》 등이 그 대표작이다.

악부시 《궁수분》에서는 14세기말 우리 나라에

침입한 왜구들을 격멸한 우리 인민의 투쟁사실을 노래하면서 왜놈들을 모조리 섬멸한 선조들의 위훈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악부시 《금강성》은 고려시기의 반침략투쟁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료나라군사 달려들어 궁궐을 불사르니
성벽을 다시 쌓고 도읍을 꾸리였네
성안으로 돌아온 날 노래소리 울려나니
성벽은 쇠불인양 굳고도 드높아라

1010년 거란침략자들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달려들어 왕궁을 불사르고 재물들을 마구 로략질할 때 우리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격멸시키고 승리를 이룩하였을뿐아니라 성벽을 다시 쌓고 수도를 새롭게 건설하였다. 이러한 나날에 인민들은 비판하거나 락심한것이 아니라 침략자들을 쳐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낸 긍지감을 가지고 승전의 노래를 기세차게 부르면서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굳건히 지켜낼 굳은 각오를 다지였다.

시에서는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낸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을 격조높이 강조하였다.

《해동악부》에 들어있는 악부시 《양주곡》, 《송산가》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서는 물산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우리 나라를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해동악부》에는 특히 우리 조선민족이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것을 크나큰 긍지를 가지고 노래한 작품들이 여러편 들어있다.

악부시 《청구풍아》, 《삼한악》, 《고구려악》 등에서는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발전된 문화를 소리높이 구가하면서 우리 문화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준 영향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노래하였다.

큰 소매로 창을 잡고 구슬을 희롱하니
피리소리 아쟁소리 어지러이 울려나네
지이산곡 선운산곡 무등산곡 노래들은
설장군이 얻어서 임금께 들려준것이니네

악부시 《백제악》에서는 백제시기의 노래들인 《지이산곡》, 《선운산곡》, 《무등산곡》 등의 연주방식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중국의 당나라에 전해진 력사적사실을 노래하고있다. 《백제악》에서 이야기된 백제시기의 노래제목들은 단순히 제목라렬에 그친것이 아니라 이런 노래들을 포함할수 많은 작품이 있었으며 또 그것들이 바로 이웃 나라들에서도 부러워하고 몹시 숭상하던 우리 조선민족의 문화였다는것을 긍지높이 강조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해동악부》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음악이

매우 훌륭하였으며 그것이 이웃나라 사람들속에서 아낌없는 찬양을 받았으며 또 역사책에도 기록되었다는것을 해설문을 통하여 특별히 강조하고있는데 이것은 작자의 진보적립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작품의 주제사상을 연구하는데서도 좋은 참고가 될것이다.

《해동악부》에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며 미풍양속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작품들도 있다.

악부시 《목주가》에서는 목주지방의 한 효녀가 지니고있는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고상한 도덕품성을 노래하고있다.

경상도지방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던 젊은 과부 향랑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악부시 《산유화》는 당시 우리 조선녀성들이 지니고있던 순결한 지조와 절개를 긍지높이 노래한 작품이 아닐수 없다.

《해동악부》에는 또한 우리 조선민족의 다양한 생활세태를 노래한 작품들도 들어있다.

악부시 《회소곡》, 《대악》 등이 오랜 옛날의 민속생활을 노래하고 있다면 악부시 《무애》, 《교방녀제자》 등은 중세 우리의 음악예술, 무용예술의 발전면모를 소개하고있다.

실례로 《교방녀제자》에서는 해설문을 통하여

12세기에 초영을 비롯한 무용수 55명이 춤을 추면서 《천하태평》 등의 글자들을 새기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무용예술의 높은 연기수준을 잘 보여주는것이다.

이밖에도 《해동악부》에는 우리 조선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고이 간직해온 고상한 품성과 지향, 념원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있다.

이처럼 《해동악부》는 우리 나라 중세 말기의 악부시작품집으로서 비교적 진보적인 작품들을 수록하고있다.

《해동악부》의 일부 작품들에는 사대주의적표현들과 함께 봉건적충군사상이 반영되어있는가 하면 비과학적인 견해를 피력한 부분도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제한성과 함께 작자의 세계관상 제한성, 과학적견해의 미숙성에 기인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부족점들은 있으나 리유원의 《해동악부》는 조선중세 말기의 악부시유산을 풍부히 하고 우리 나라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데 참고가 될 자료들을 제공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자기의 가치를 잃지 않고있다.

고전작품소개

방이와 그 동생

삼국시기에 인민들속에서 널리 알려진 설화이다.

《동사강목》, 《유양잡조》 등에 실려있다. 동화적인 수법으로 재물보다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모를 보여준 설화이다. 설화에는 가난하고 착한 형 방이와 욕심 많고 심술궂은 부자 동생이 등장한다.

방이는 이웃한테서 땅 한뼉기를 얻고 동생에게서 누에종자와 곡식종자를 얻었으나 동생은 그것들을 모두 가마에 찌서 주었다. 그리하여 누에종자는 다 죽고 한알만 잤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자라 황소만큼 큰 고치가 되었으며 곡식종자도 역시 다 죽고 한이삭이 나왔는데 길이가 한자나 되었다. 심술이 난 동생이 그 누에고치를 죽이니 며칠사이에 사방 100리안의 누에들이 모두 방이네 집으로 모여들어 누에고치를 트는 바람에 방이는 누에고치부자가 되어 마을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가진다. 부지런한 방이는 한대 남은 곡식도 소홀히 하지 않고 지키고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새가 날아들어 이삭을 물고 달아나기에 산으로 쫓아간다. 거기서 그는 무엇이든지 소원하면 나

오는 금방망이를 얻어 큰 부자가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동생은 금방망이가 탐나서 형더러 곡식종자와 누에종자를 찌서 달라고 하여 형처럼 한이삭을 얻어 지키다가 새가 그것을 물고 날아갈 때 쫓아갔다. 그러나 그는 도깨비한테 금방망이를 훔친 놈으로 몰리어 곤경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 죽는다.

작품은 이렇듯 성격이 상반되는 방이형제의 형상을 통하여 인간의 의리도 모르고 저 혼자만 잘살려고 그 어떤 흉악한짓도 서슴지 않는 착취자들의 죄행을 폭로규탄하였으며 가난속에서도 서로 돕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당시 농민들의 아름다운 품성을 찬양하였다.

작품은 선한것과 악한것을 대치시키고 환상의 수법으로 인민들의 념원을 펼쳐보이고있다. 이 작품은 그 주제사상적내용과 과장과 자유분방한 환상적수법 등으로 하여 당시 우리 나라 구전동화의 선구적작품의 하나로서 18세기에 창작된 동화적형상이 풍부한 소설 《홍부전》의 설화적기초의 하나로 되었다.

《동반자》 작가 심훈과 그의 시세계

함성실

장편소설 《상록수》, 《영원의 미소》, 중편소설 《동방의 애인》 등으로 하여 작가 심훈은 《카프》의 《동반자》 소설가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러나 시도 그의 창작생애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동반자》 소설가로서뿐 아니라 《동반자》시인으로서의 심훈의 모습을 새롭게 찾아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은 비록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일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으로 창작되어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인민의 소유물로,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문학사상에서 대체로 소설가로 알려져있는 심훈의 창작활동에서 시세계를 따로 고찰하는것은 그가 남긴 시유산에 반영되어있는 진보적세계관과 애국적지향을 옳게 밝힘으로써 《동반자》소설가로서의 심훈의 작가적 초상을 립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이다.

심훈(본명 심대섭)은 190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그는 비교적 유족한 가정의 출신으로서 별로 고생을 모르고 보통학교를 거쳐 당시 가기 어려운것으로 되어있던 경기제1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갔다.

명문가의 귀동자로 태어났지만 심훈은 어려서부터 정의감이 있고 정열적인 소년으로 자랐다. 하기에 그는 고보 4학년때인 주체8(1919)년에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거기에 적극 참가하였고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4개월간이나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출옥후에도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학교를 그만둔 다음 나라를 빼앗긴 울분과 식민지청년의 설움을 가슴에 안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갔다.

이 시기 주체9(1920)년에 베이징에서 쓴 시 《북경의 절인》으로부터 그의 시가 출발하였다.

비록 람루를 걸친 절인이라도 제 나라 기발이 휘날리는 하늘아래 사는것을 부러워하며 독립을 부르짖다가 옥고를 치르고 《선불맞은 어린 짐승처럼》 이국의 광야를 헤매는 자기 신세에 대한 통탄, 망국노의 처지에 대한 사무친 울분, 그 처지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젊은 녀의 꺾일줄 모르는

지향정신이 맥박치는 시 《북경의 절인》.

이어서 귀국하여 《염군사》에 가입하고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면서 사회주의적색채를 띤 활동을 하고, 또 주체15(1926)년에 대우개선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집단적인 항의행동에 참가하기도 하면서 심훈은 자기의 진보적세계관이 집약된 많은 시편들을 중단없이 창작하였다.

주체22(1933)년에 간행하려다 성사 못한 시집 《그날이 오면》의 머리말에서 작가자신이 근 100수의 시를 여기에 묶는다고 하였는데 그후에도 생의 말년 [주체25(1936)년] 까지 시를 썼으니 백여편의 시를 유산으로 남긴셈이다.

주체22(1933)년에 발행하려던 이 시집은 일제당국의 검열에서 절반이상이 삭제도장을 받아 성사되지 못하였다.

이 사실은 시집 《그날이오면》에 판통되고있는 기본사상정서가 어느 정도로 진보적이였는가를 검증하는 실질적인 자료로 된다.

시집으로서의 발행은 실패하고 해방전 여러 지면들에 실린 심훈의 시작품은 11편이다.

그를 열거하면 시 《그날이 오면》[주체19(1930)년], 《춘영》[주체17(1928)년 《조선일보》], 《고독음》[주체18(1929)년 《조선일보》], 《가을》[주체18(1929)년 《조선일보》], 《가배절》[주체18(1929)년 《조선일보》] 그리고 《신녀성》잡지에 실린 시 《명사십리》[주체22(1933)년], 《해당화》[주체21(1932)년], 《송도원》[주체22(1933)년], 《총석정》[주체22(1933)년], 또한 《학등》잡지에 실린 《가을밤》[주체22(1933)년], 《겨울의 무사시노》[주체22(1933)년] 이다.

지면으로 발표된 심훈의 시는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상록수》, 《영원의 미소》를 비롯하여 부피두터운 장중편들을 여러편 창작하여 《카프》의 《동반자》작가로 이름 남긴 심훈의 이 모저모를 립체적으로 알게 하는데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심훈이 남긴 시유산들에 대한 고찰에서 주목되는것은 《카프》의 《동반자》작가로서의 사상적 지향에 부합되게 빼앗긴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설움에 겨운 눈물의 세계, 해방의 그날이 오기를 일일천추로 고대하는 뜨거운 념원이 시전반에 맥박치고있다는것이다.

특히 《조선일보》에 실린 다섯편의 시들이 모

두 그러하다.

시 《그날이 오면》, 《춘영》, 《고독음》, 《가을》, 《가배절》은 그 제목에서부터 갈망과 기다림, 설움과 희망이 엮인 애국시인의 몸부림과 투쟁의 열정을 석연히 그려보이고있다.

시 《그날이 오면》은 2개 편으로 된 짧은 작품이나 시인의 격렬한 감정이 글줄마다에 차넘친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며는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치기 전에 와주거나 할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6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덩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시는 주체19(1930)년 3월에 창작되었다.
이 시에서 《그날》은 곧 해방의 날이다.]

그의 이 시에는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민족의 울분과 고통받는 겨레에 대한 뜨거운 동정이 반영되어있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식이 구현되고 해방의 새날에 대한 피타는 갈망과 지향이 숨쉬고있다.

심훈의 시세계에서 이 시는 사상정서적지향의 견지에서나 시형상적기교의 측면에서나 절정을 이룬다.

이와 함께 시 《춘영》, 《고독음》, 《가배절》과 같은 작품들은 한결같이 설움과 희망, 의지가 엮인 독특한 사상정서적매력을 보이고있다.

시 《춘영》에서 《봄하늘의 별》은 생동하고 서정질은 자연인 동시에 《나》가 찾고저 하는 《님》이며 꿈이다.

또 시 《고독음》에서 시인은 《값없는 눈물을 타매하고》, 《울음을 씹어서 웃음으로 삼》킬만큼 내

심으로 자신을 굳게 다잡는 의지적인 모습을 그려내었다. 이 시에서는 빼앗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단순한 비애로서만이 아니라 《값없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리라는 시인자신의 굳센 의지와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울려나오고있다.

시 《가배절》에서 빼앗긴 조국을 그리는 시인의 목메이는 갈망은 8월 보름 명절놀이에 비추어 참으로 가슴뜨겁게 펼쳐진다.

내 팔이 끊지 안었으니 더덩실 춤을 못 추며
다리 못 퍼 병신 아니니
가로세로 뛰진들 못하랴

...

기쁨에 겨워 떼울음 터치는 명절이 오면
《기저귀》로 곳갈쓰고 무등 서지 안으리
《쓰레벳기》로 뺨가리치며 밋치나지 안으리
오오, 명절이 그림구나!
단 하루의 명절이 가지고 싶구나!

절망과 한숨, 비애가 전부가 아니고 희망, 리상애로 줄달음쳐 스스로 환희를 앞당겨 맛보고야마는것이 심훈의 시세계에 흐르는 세찬 정열이다.

물론 그 희망과 리상은 아직 《카프》가 내세우고 구현하는 실질적인 투쟁, 구체적인 방도와 결합되지 못하고있으며 바로 그것으로 하여 심훈은 《동반자》가 되는것이다.

심훈은 어려서부터 한생 가난에 조들린 생활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뜨겁게 동정하고 그들을 고통속에 몰아넣는자들을 증오하였으며 사회주의사상에 공명하고 그것을 자기 활동에 일정하게 구현하였다. 물론 그는 견결한 사회주의자로는 되지 못하였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에도 끝까지 참가하지 못하였지만 《동반자》작가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문학사에 이바지하였다.

이제까지 렬거한 그의 시세계에 대한 고찰은 《카프》의 《동반자》작가로서의 심훈을 더욱 확증하는 생동한 근거로 된다.